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한체육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한국체육산업개발㈜|스포츠윤리센터|한국스포츠레저㈜

일시 2025년10월27일(월)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에 대하여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7개 기관들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활성화, 경륜·경정 투표권 사업 등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태권도 진흥, 장애인의 스포츠 복지 환경 조성, 체육시설 관리와 스포츠산업 활성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성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운영 문제, 스포츠계의 인권침해와 비위 문제, 스포츠 소외계층 지원과 체육인 복지 문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확대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열한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

인들의 참석은 10월 29일로 예정된 종합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대한체육회

회장 유승민

사무총장 김나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전무이사 박용철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완

사무총장 이희룡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신치용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중현

사무총장 신성일

한국스포츠레저(주)

대표이사 박용철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 **위원장 김교홍** 다 앉으셨네요, 앉으라 하기 전에 벌써 딱 앉아 계시네요.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고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나머지 기관들의 업무보고는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한체육회 회장 유승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한체육회는 노 스포츠, 노 퓨처, 스포츠 없는 미래는 없다는 슬로건 아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며 생활체육·학교체육·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균형 있는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체육회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미 사무총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대한체육회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스포츠 참여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비롯한 지역 기반 생활스포츠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과감히 선수촌 시설을 개방하고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스포츠를 통한 상생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및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연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스포츠7330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선진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생활 및 전문체육이 연계된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 선진형 체육 시스템 기반을 구축·확장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분야 선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생활체육선수 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체육인 대상 교육·연수 시설인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운영으로 체육인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고 선수 및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선진 스포츠 환경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권 경영을 추진하고 스포츠윤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강화 및 피해자 권익 보호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월 8년 만에 개최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으로 금메달 16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개최된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종합 순위 4위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은 동계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등 메가 스포츠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꿈나무·청소년·후보·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우수선수 육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훈련 지원을 과학화하여 다가오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체육단체로서 국제스포츠 교류 협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쪽입니다.

책임 경영으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체육인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단체 회장 선거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업무현황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국가대표 선발, 편파 판정 등 체육계 부조리와 선수의 인권침해 문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임기 중에 체육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안녕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종합적

으로 점검하고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공단 임직원들은 대한민국 체육행정 중심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전무이사입니다.

(인사)

그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우리 공단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및 3쪽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과 5쪽, 기금 조성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투표권과 경륜·경정 사업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에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올해 매출 6조 4478억 원, 기금 조성 금액 1조 911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투표권 사업을 안정화하고 책임 있는 업무 개선을 통해 미래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륜·경정 사업 또한 실명 기반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건전 문화 조성 등 과몰입 예방과 만전을 기하면서 올해 매출 목표인 1조 9382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체육진흥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주요사업들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등 스포츠 전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총 1조 516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8월 말 기준 1조 35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변화·국민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맞춤형 생활체육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입니다.

국민의 스포츠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민체력인증사업을 확대하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촘촘한 스포츠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올림픽과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포츠가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2만 4547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스포츠산업의 튼튼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스포츠기업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잠재력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체계화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선도기업 육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포츠산업 정책 지원은 스포츠코리아랩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체육인 복지사업 및 체육지도자·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인의 경기력 성장,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은퇴 체육인의 직업안정과 체육인 특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뢰도 높은 체육지도자 자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제심판 배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이기도 한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의 기념사업과 스포츠와 문화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명품공원으로서의 올림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국립스포츠박물관은 25년 12월까지 내부 전시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26년 9월 정식 개관을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단은 급변하는 체육환경을 반영해 체육과학·정책·산업 분야의 정책기반 자료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체육정책 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등 스포츠산업 진흥을 뒷받침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조언들은 즉각 개선하는 등 향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룡 사무총장입니다.

(인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5년 창립 이래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패럴림픽 등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6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 확대입니다.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초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각종 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장애인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체육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 및 장애유형·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생활체육교실, 스포츠클럽,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체육교실을 확대하고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인터넷 TV 중계와 체험 프로그램인 드림페럴림픽을 운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 가치를 확산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9쪽, 전문체육 기반 강화입니다.

종목별 리그전을 통해 전문체육 기반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 중계와 후원사 확보를 통해 리그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분류사 양성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상임심판제도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 국가대표의 효율적·과학적 훈련 지원입니다.

월급제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국가대표 인력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2026년 밀라노 동계페럴림픽을 대비하여 집중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스포츠과학원과의 협업과 전문장비를 통해 스포츠과학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입촌 선수단을 대상으로 맞춤 의료서비스와 헬스키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선수 발굴을 위해 선수육성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선수단 관련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쪽, 장애인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도쿄 하계 데플림픽, 12월 두바이 아시안 유스페어게임, 내년 3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페럴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IPC 정기총회가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각국과의 교류와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스포츠 시스템 혁신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은퇴선수 취업 지원과 민간기업 장학금 유치 등 장애인 체육인 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실업팀 지원으로 선수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시도 인권교육 지원과 권역별 인권감수성 향상 캠프,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스포츠 인권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년 계획의 차세대 장애인체육 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여 일반 국민과 장애인 체육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수상 체육국장, 최성희 체육협력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이기현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중인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29일 종합감사 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추은열을 중인으로 신청했으나 중국 출장을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중국 음원 저작권 사안에 대한 중국 저작권협회 측의 방증 요청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안은 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가 직접 질의한 내용이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현안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저작권협회와의 논의 이전에 본 위원 질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회 중인 출석 요구에 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나 중국저작권협회의 평계를 대며 두 번이나 교묘하게 출석을 회피한 것은 명백히 국회의 권위와 국정감사 권한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에 김교홍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은열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여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소명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하여튼 우리 양 간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조은희 위원님 먼저……

○위원장 김교홍 조은희 위원님부터?

예, 그레세요.

○조은희 위원 먼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료 요구 건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유승민 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탁구협회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탁구협회는 유승민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2020년도 170만 원뿐이라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명백한 허위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스포츠지원포털에 등록된 경영공시 내역을 확인하니 2021년부터 24년까지 6000만 원이 넘는 업추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됩니다. 명백한 허위자료 제출입니다.

유승민 회장이 지난 1월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협회장 재임기간 단 한 번도 범카를 쓰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탁구협회 회장인 전직 협회장을 현직 탁

구협회가 예우하자고 자료까지 허위로 제출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협회에서 점심 전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허위자료 제출로 고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의 협회장 시절 임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하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46만 체육인을 대표해 대한체육회라는 큰 조직을 이끌어 갈 자질, 대표성에 큰 의문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 회장은 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리베이트는 물론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국가대표 교체 건으로 그 리더십에 의구심을 품는 체육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탁구협회는 후원금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환수 권고도 하지 않았고 국가대표 교체 사건의 절차·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의뢰해 전·현직 탁구협회장의 셀프 면죄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 위원이 요구드리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켜보는 눈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금일 오후 중인 질의 전에 탁구협회와 회장 본인을 통해 자료 요구 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KBO와 문체부 자료 요구 건입니다.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창원 NC파크를 시작으로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그리고 대구 라이온스파크까지 프로야구 1000만 명.....

30초만 더 있으면 됩니다.

프로야구 1000만 관객 시대의 영광 뒤에 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야구장 안전 사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입니다.

NC 사고의 쟁점이기도 한데 구단시설 보수·교체 현황이 유선으로 톡 전달되는 등의 문제로 관리가 잘 안 돼 구단별 전달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문체부와 KBO는 구단시설 보수 현황이 구장 관리하는 시설공단 측에 어떤 식으로 공유되는지, 유선인지 무선인지, 문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종감 때까지 구단별 현황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가만, 이거는 문체부의 체육국장이 조은희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 탁구협회에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오후 질의시간 들어갈 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KBO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지난 2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김건희가 어좌에 올라 앉은, 추측되는 사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경회루와 관련된 사진이 나온 뒤에 그 사진이 나와서 국민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인 21일 날 저희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근정전 어좌에 올라갔던 사실과 관련된 저희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의 답변을 받아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많은 언론 보도와 국민들의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밝혀 주신 건청궁 곤녕합에서의 그 이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적 질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김건희의 변호사인 유정화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페이스북에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 표현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당시 자기는 대통령비서실 사진 담당으로 있었던 기억 써라고 특정을 하

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가 가져올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라고 하는 페이스북상에 실질적인 협박을 해 왔던 이런 페이스북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의 공익제보의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언론사의 기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 중에 범죄, 특히 문화유산의 사적 사용은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문화재법 위반의 위법 행위가 분명히 따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한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김건희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나중에 저희가 종감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질의할 수 있는데 피의자인 김건희의 변호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대놓고 공익제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유감 표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무지의 소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호사가 몰아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상임위에서 우리는 얘기를 한 건데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지고 무조건 내로남불에 남 탓만 하고 있는 그 변호사 쪽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 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박 성명을 내기는 했는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정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감을 표명하고 또 향후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지난해 체육회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때 굉장히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정확한 현황 파악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보면 개선은커녕 더 악화된 그런 답변서들이 줄줄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직원들의 업무 역량 문제인지 아니면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자료조차도 지난해 우리가 국정감사 때 제출받았던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수치인 그런 자료들이 들어왔고요.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과 성과상여금조차 제대로 구분을 못 해 가지고 또 엉터리 혼동을 주는 그런 자료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서류도 일체의 계약 내역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체육회장의 집무실 호화 개편과 집기 구입과 관련된 그런 자료는 쏙 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대한체육회뿐만 아니고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심판 명단만 하더라도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단하고 실제 제출한 명단이 차이가 나는 그런 엉터리 자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국정감사 방해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

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이기홍 전 체육회장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보좌역, 자문관 또 위인설관으로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이라든지 진천선수촌 부총장 등 이런 자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들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는지 정확한 현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 종목별 단체에 대해서 법인화기금 또 경기력 지원비를 지원한 것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적립금 회계점검과 컨설팅을 9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 컨설팅 점검이 끝났으면 점검 결과 자료를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김승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단체 축구 협회는 반드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자료를 빼고 제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자료를 안 내면 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는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단체가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승민 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시작을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하세요.

○양문석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순천시장 노관규가 지난 국감에 나온 이후에 자기는 더 이상 중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지역정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입장을 표명하고 심지어 불출석사유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회 문체위를 능멸하고 있다, 자기 정치에 국회 문체위를 이용하면서 능멸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회법이 허용하는 한 모례 종감에 반드시 순천시장 노관규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중인과 관련해서 오후에 많은 시간을 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3분으로 하고 4분을 저축하면 안 될까 여쭤봅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하세요.

○양문석 위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런데 질의 시작하기 전에 노관규 의원이나 추은열, 두 분은 제가 보기에도 의도적으로 이 국감장에 안 나오는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당 간사님이 잘 협의해 주셔 가지고 국회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행명령을 하든 고소·고발을 하든 여하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석 위원** 유승민 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말에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 그다음에 선수 인권침해 문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당선 인터뷰에서도 인권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인 법정의무교육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인원 대비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30.8%에 불과하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로 한정을 해도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들어가는 진천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39.78%밖에 이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지요. 종목별로 봐도 우수 같은 경우에는 100% 이수율인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7.41%, 탁구가 가장 낮아요. 굳이 탁구의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천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국가대표들이 들어가는 선수촌이고 진천은 비장애인 국가대표들이 들어가는 선수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국가대표의 이수율은 88.24% 그리고 입소가 늦어서 지체된 것을 빼면 100% 다 이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40%도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세인의 입에 오르게 만드는 게 현재 지금 스포츠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회장이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소하면서 바로 법정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록했었을 때 매월 그들이 의무적으로 바로 각 시도체육회에서 교육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무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서 만들면 최소한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좀 철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세 번째란 말이에요. 오늘도 선수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두 번을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당선 인터뷰 이야기하셨고 선거 과정에서도 선수 인권과 관련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왜 안 하는지.

이상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방금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취임 이후에 다양한 종목에서 또 다양한 지역에서 터져 나오는 비위, 어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촌 관련해서는 사실은 선수들이 종목마다 해외 훈련이나 전지 훈련 또는 시합 등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경기인등록시스템과 윤리센터 연동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쟁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후에 바로 저희가 강화훈련 지침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등록, 이수를 하지 못하면 저희의 강화훈련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어떤 지침을 저희가 권고를 해 가지고 아마 선수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하도

록 할 거고요.

특히 이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저희가 선수촌에 입촌하면 입촌 교육이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폭력, 성폭력 관련된 어떤 국가대표선수로서 갖춰야 될 그런 윤리, 도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의무적인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이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회장님,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 교육,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천에 불이익을 당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유승민 회장님, 이기홍 체육회를 대신해 들어와서 체육회 쇄신에 노고에, 애쓰시는 것을 일단 치하합니다. 하지만 따질 것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2036 하계올림픽 전북도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가적 쾌거고 앞으로 올림픽을 유치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전북도가 사전타당성조사 계획을 9월에서 12월 까지 일단 연기한 것 같습니다. 뭔가 계획서를 수정, 보완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자꾸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또 조사 기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는 불만들이, 우려가 섞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체육회도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환호는 터졌지만……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죽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전북도에 우리가 유치 신청계획서 변경안에 대해서 올림픽 유치 관련 기관과의 협의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은 이렇게 왔습니다. ‘없습니다’, ‘실제 없었습니까’라고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관련해서 한번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전주, 전북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주요 기관들의 의견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IOC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북 올림픽 개최 효과에는 다면적 검토를 기반으로 유치를 추진하되 선수의 풍부한 대회경험 기회 제공이 최우선이므로 경기장, 선수촌의 지나친 분산은 지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북도가 애초에 유치할 때 연대 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충남북, 광주, 전남, 대구, 모든 주변의 도시들과 연대해서 지방 도시끼리 충분히 연대하면 하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입장 발표를 하고 그게 개최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확인한 거지요?

그건 맞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정연욱 위원 전북형 분산에너지 모델이 당장 개최지 선정하는 IOC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아예 답변 자체가 이런 의견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지요?

이 기관 주요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IOC는 개최지 선정 규정,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북도가, 저희가 전북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개최지 선정 시점을 2019년부터 시점 자체를 아예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정연욱 위원** 유치 희망도시의 개최 계획 준비가 완료되면 바로 판단하고 IOC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유치 계획서, 개최 계획서 준비가 완료되면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전북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IOC 참여 시기 이런 건 올림픽 개최로부터 7년 전, 9년 전에 선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북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계올림픽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만들어서 총 사업비 5조 3000억, 국비 11%, 경기장 배치(안) 총 51개소, 개최지 선정 시점은 올림픽 개최로부터 7년 전 혹은 9년 전 선정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지요? 내용 틀린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직 딱히 개최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연욱 위원** 아니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정연욱 위원** 이렇게 7년 전, 9년 전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또 따져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애매모호한, 사전타당성조사 계획서를 내서 IOC는 전북 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36년이라는 특정 연도를 명시하지 말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정연욱 위원**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은 특정 대회를 전제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지요? 전북도는 여전히 2036년 전주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는 이 올림픽이 2036년도 개최지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2036년 의미 자체가 안 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IOC가 이렇게 2036년 숫자 표기를 자제해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저희는 전북도가 해서 지방 도시와 연대를 해서 이런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뭔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모든 걸 던져서 여론으로 몰아가겠다는 건, 그러면 IO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OC가 이런 지적사항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이고 사전타당성조사 계획 자체가 왜 늦어질 수밖에 없고 제때 제출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 올림픽 개최지 선정은 이 사전타당성조사 계획이 제대로 됐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정연욱 위원 현재 2032년까지는 대충 개최지가 정해졌지만 앞으로 향후 이후의 모든 개최지 선정은 이 사전타당성조사 계획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숫자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개최 연도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왜 2036년 못을 박고 모든 IOC 규정과 지침까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국내에서 적당히 여론전으로 해서 선거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규정에 맞게, 지침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산 문제 모든 걸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사전타당성조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고, 어설프게 계획서를 냈다가 만약에 IOC에 직접 나갔다가는 리젝트(reject) 당할 것 아닙니까?

이 관련국은 지금 아마 인도 정도만 떠오르지 경쟁국 리스트는 아직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경쟁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것은……

○정연욱 위원 그런데 각 나라가 제출하는 이 계획서 자체가 하나로 부실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탈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서 자체가 국내에서 몇 마디 떠드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 경기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설프게 연대 도시라는 개념 하나 가지고 이 전북도 어마어마한 하계올림픽을 유치한다?

그러면 체육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적 조언도 하고 서포트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바로잡아야 될 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어떤 걸 주문할 건 하셔야 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IOC와 한국 정부 그리고 전북도청까지 이렇게 엮어 주고 연결하는 주체,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체육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회는 적당하게 손을 빼고 그냥 지켜보는 위치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칫 이러다가 우리가 모처럼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섰는데 첫걸음 빼기도 전에 이렇게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들어서 가장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첫걸음 자체가 이렇게 무산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방금 말씀 주신 대로 IOC가 개최지 선정 방식을 바꾸면서요. 예전에는 하나의 대회를 정해 놓고 경쟁 도시를 취합했다면 지금은 미래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로 바뀜으로써 저희가 개최를 선정하는 연도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6월 달에 커스티 코벤트리 신임 IOC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올림픽 유치 도시 신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의미로 잠깐 지금 훌드득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대한체육회는 이렇게 발을 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IOC의 첫 번째 회의에 갔을 때, 첫 번째 회의 갔을 때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부적격하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의 계획안에 대해서 IOC가 들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것 한 가지는 명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물론 이게 부적격 판정을 했다는 건 아니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부적격 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연욱 위원**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을 철저히 고려해서 충분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분명히 체육회가 준비하고 조정해야 될 역할들이, 말씀하신 대로 2036이란 게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36은 내부적인 목표지만 IOC에서는 2036 또는 2040, 앞으로 있을 올림픽대회 유치 신청에 관한 것이지 정확하게 딱 2036이나 2040을 특정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바로 잡아 주시고.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정연욱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체육회의 입장 그리고 대응하실 생각, 구체적인 계획은 종감 전까지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영평가 등급 C 받으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이기현 위원**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영평가 관련된 조직적인 데이터 조작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공단의 스포츠복지팀 직원이 올 9월 11일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도급업체 직원에게 보낸 내부 메신저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보시면 내부 메시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작년 4분기에 했던 작업,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24년도지요. 작업을 올해에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 내용은 미이용자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 수강 클릭 처리하기.

세부 내용은 엑셀파일에 대상자 온라인 강좌를 1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I~J열까지 삭제한 파일로 IT센터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정 인원에 대하여 온라인 강좌 수강 클릭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매월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이기현 위원 25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이에 책정된 예산만 1572억 원이 투여된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도 1122억이 투여된 사업입니다.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소수 계층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실시된 사업입니다. 이용권을 쓰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특히 자격정지된 상태의 사람들까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니까 마치 성실하게 수강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해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이기현 위원 더 심각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4분기에 했던 작업'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4년도 4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작이 24년도에도 있었고 25년도에도 있었던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다음 PPT 띄워 주시지요.

결국은 경영평가를 받는데 2점의 가점, 사회적 약자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라고 하는 2점의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목표 ① 저소득층 유소년·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표에 의하면 배점 21점 중 그중에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실적을 올리면 2점을 더 주는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공단 직원들이 이렇게 공공 기관의 경영평가에 허위 조작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시킨 겁니다. 이것은 실적 조작 시스템 개발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여기에서 보면 경평 실사용 관리시스템-이용권실적통계 메뉴 개발 요청을 한다. '이용권 실적통계'로 '통'을 '동'으로 바꾸는 것을 활용한다. 해당 메뉴는 공단에서만 조회 가능하도록 개발 조치를 요청한다. 광역, 기초단체 및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조회 불가도록 조치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조작에 직접 관여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전산……

○이기현 위원 전산실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스포츠복지실, 디지털혁신실 그다음에 ESG성과실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이기현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의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언론보도가 난 뒤에 특정감사 실시하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정말 사실관계는 대부분 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진행상황 보고를 저희 방에 해 왔는데 비정상 입력 패턴이 확인됐고 24년에도 이런 일

이 있었고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향후 계획은 본감사가 끝나는 10월 24일 이후에 감사 결과 확정한 후에 조치하겠다라고 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꼬리 자르기 식의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 하시기 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상임감사로 임명받고 감사직을 수행하시다가 이사장이 되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24년에는 감사 하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사장께서 감사와 이사장을 같이 해 오셨던 과정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떤 변명을 해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단지 실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성과평가 C등급 받아서 공단 직원들에게 성과급 조금 더 받겠다라고 하는 그 욕구만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체육진흥공단 내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그리고 일부 간부들 그리고 해당 부처의 직원들이 공모해서 이루어진 일로 벌어졌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단 직원이 경영평가지침의 경영평가 데이터에 관련돼서 자료를 왜곡할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사적 불이익을 각오하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급자들의 암묵적 묵인 내지는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파견법 위반을 한 것입니다. 공단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것을 발주해서 2년 단위로 용역업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NDS라고 하는 주식회사하고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23년서부터 세 번의 업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의 인원이 계속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담당자의 메신저, 전화, 회의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에 해당되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평가 데이터 조작, 공단 직원 누구하고 했는지 이사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이기현 위원 공단 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리 중 공단의 핵심적이며 상시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이기현 위원 데이터 조작 같은 은밀한 지시 이것은 도급 계약을 맺은 직원들을 공단의 정직원처럼 여기고 사용한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파견업체하고 SR시스템이라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할 수밖에 없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SR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그리고 개인 메일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사내 메일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염연하게 노동법상의 파견법 위반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 이기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PT 한번 계속 띄워 보시지요.

보면, 사내 메신저나 문자로 수시로 업무를 지휘합니다, ‘제가 요청드린 것 중 급한 것은 추가로 보내 드림’, ‘파일 관련해서 내용 1순위여야 합니다’.

계속 넘겨 보세요.

저렇게 사적 메신저로 계속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도급업체가 공단 직원에게 하다못해 하소연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사무실에 복귀하시면 SR에 등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단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비밀리에 유지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을 관리하는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실제로는 SR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메일과 SNS 그리고 사내 메신저에 아예 초대해서 사내 메신저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급업체 직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수상 실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수상 체육국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일단 자체감사 진행 중이니까요 감사 결과를 보고 부족하면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자체감사가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감사 끝나고 나면 문체부에서 특정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일단 먼저 감사 결과를 본 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예.

하형주 이사장님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대한민국 체육계의 영웅이었습니다. 84년 LA 올림픽의 금메달 수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체육계 스타셨어요. 저는 그 명예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겁니다. 경영평가 C를 받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 노력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경영평가를 조작해서 공단 직원들에게 사적,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것을 착취한 겁니다. 갈취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하형주 이사장님께서 명예를 지키는 그런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교홍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겸허하게 잘 받고요. 특히 해당 문제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문제 사안을 갖다가 염중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토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님, 취임 후 올해 첫 전국체전이었지요.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위원님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전국체전은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전에 사건·사고가 많았었는데 최근 경기용 실탄 유출 사고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관련 보고받으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받았습니다.

○진종오 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언제?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그 기자회견 후에 알게 됐습니다.

○진종오 위원 기자회견 후에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사격연맹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없고요.

○진종오 위원 연맹에서 받은 것은 없고?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진종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체육회 관련자들에게 질의를 했는데 실탄 유출 이것은 대한체육회 잘못이 아니다라고 경찰청 소관이니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반박 언론 보도를 했어요. 상관없는 것 맞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다음 화면 좀 띠워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용구 부적법 사용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이 있는데 보면 ‘연맹의 경기용 총기 및 실탄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용구의 안전하고 정확한 관리를 기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사격연맹 징계세칙이 있어요.

회장님, 대한사격연맹, 대한체육회 회원 단체 맞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산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체육회에서 언론 보도한 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는 실무자의 언론 보도를 사실은 언론 보도 나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입장과.....

○진종오 위원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는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 대한체육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종오 위원 이게 제가 자꾸 한번 더 얘기드리는 게 경찰 발표에서는 5만 발 정도라

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온 제보만 해도 훨씬 더 그 추가 이상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이 부분 조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사하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안 그래도 지금 문체부랑 합동감사를 들어갔고요.

○**진종오 위원** 언제부터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초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 합동감사 대상에 학생들도 포함됩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것은 체크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선수들한테도 이런 짓을 시켰어요. 학생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들은 지원받고 훈련한 것밖에 없는데 학생들한테 실탄을 빼돌리라고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돼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22실탄이 1발당 3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5000원 이상 되는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해서 팔아 먹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하시고 경찰이 불법 유해조수 단속, 사냥 단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내부 자료에 보면 사실상 대선후보 암살설 때문에 조사가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난 6월에 대한사격연맹에 실탄 유출 진위 여부 확인하러 갔는데 연맹에서는 6월 달에 경찰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기자회견 하고 언론 보도 후에 그제서야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저는 사격연맹이 체육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하는 것 보고받으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전수조사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언제, 어떤? 연맹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한다라는 것 보고받은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보고를 정식적으로 저한테까지 올라온 것은 없고요. 실무선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맹 자체가 6월 달에 경찰청에서 나왔으면 그러면 당연히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의논했어야 되는데 연맹 자체가 대한체육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무시했다라기보다는 연맹도 아마 경황이 없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지요.

회장님, 제가 대한체육회장이 여러 종목단체가 있기 때문에 회장 지위로서 하나하나 모든 회원종목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회장님의 철저하게 진두지휘해서 조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 대한체육회가 굉장히 큰 조직이다 보니까 시군구 체육회나 종목단체까지 하면 1만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전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강력하게 저희가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시군구까지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연맹이잖아요. 큰 연맹, 협회 연

맹인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계자들 확실하게 조치하실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재미난 일이 하나 또 있어요.

회장님, 골프 치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진종오 위원** 근무시간에 친 적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는 근무시간이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만약에 부하 직원이 근무시간에 골프치러 가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것은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대한사격연맹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전국체전 기간에 골프를 치러 갔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연맹의 사무처장이 체전 기간에.

임직원 행동강령에 보시면 누가 봐도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러 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탄이 유출돼서 난리가 난 상황에. 이것은 지금 처장이라는 사람이 신경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자기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회장님, APEC 얼마 남았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APEC 이제 곧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3일 남았지요. 이제 3일 뒤 시작이고 3일 뒤에 김해공항으로, 김해공항 공군기지에서 누구누구 만나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만나지요. 실탄이 사라진 상황에서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은 골프 치러 다니고 본 의원실에 보고하러 와서 ‘그래서 어찌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이런 식의 답을 했어요. 개탄스러운 일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할 것은 징계하시고 조치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회장님 관련해서 일인데, 문체부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회장님 비위 관련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조사가 대부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조사 끝났어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진종오 위원** 탁구협회 관련돼서 2건인데 회장님 임기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그때 당시에 하나은행이 협찬했는데 협찬했던 용품 1억 원어치가 사라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탁구협회 사무처장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 탁구장이나 용품사에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라는 정황이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것은 사실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종오 위원** 따져 보시고. 그리고……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예, 1분 더 주세요.

○**진종오 위원** 그리고 탁구협회에서 대회 취소로 인해서 한 20억 정도 빚이 생겼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진종오 위원** 그리고 연간 5000만 원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용품들이 불법적으로 판매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배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기 대해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승강제 리그 관련해서 이게 문체부에서 한 25억 정도 지원받는 사업 맞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승강제 리그를 하면서 경기장으로 선정된 곳들이 유승민 회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탁구장과 부회장이 운영하는 탁구클럽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탁구장들이 약간 논란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이 됐는지 사장을 다른 명의로 했고 그리고 이름까지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선진국 리그 답사 그런 것도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때 당시에 사업으로 내려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회장님의 가족이 동반해서 갔다라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란의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부산에 계신 모 지인분과 함께 미국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자 명단 공개할 의향 있으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질문 답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진종오 위원** 관련된 말씀에 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이 사격 관련해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철저하고 강력하게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하나은행의 협찬 물품이 아니고요. 하나은행은 개인 후원사였고요. 용품회사에서 협찬 물품이 들어온 겁니다. 그 협찬 물품들은 전부 다 그때 당시 자원봉사자들 또는 직원들의 옷과 가방 이런 물품들이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은행 로고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를 해서 팔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어치도 아니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산정하기 나름인데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국이었고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대회가 취소가 되면서 20억 원에 대한 매몰비용이 부득이하게 있게 됐고 그때 당시에 국비·시비 다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책임은 저희 대한탁구협회가 혼자 떠안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사무처장이 공모할 데도 없고 코로나 기간에 팔 데도 없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사회 의결받아서 그것을

판매를 했고 그 판매 수익금을 그대로 협회 통장에 입금한 내역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 내용을 그러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 내역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디비전리그는 사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탁구장을 가족과 함께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IOC 위원 시절에 했는데 탁구클럽을 운영하면서 탁구협회장이 되다 보니 이게 나중에 되면 이 해충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창립 멤버였던 관장이 탁구장을 인수해서 명의와 탁구장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다 저희가 했고요.

승강제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대한탁구협회가 또 제가 개입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한탁구협회에서 뿌려지는 내역을 갖다가 군포시 탁구협회에서 집행을 한 거고요. 또 거기에 선정기준, 절차에 맞는 것에 다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탁구협회장 될 때 탁구클럽에서 나온 수익금 약 3000만 원 정도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탁구협회에 기부를 하고 시작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루에 개최비용이, 대관비용이 30만 원으로 측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만 원이면 청소비용에 관리비용…… 통대관하는 데는 사실 탁구장은 적자이지만 그때 당시 코로나 시국에 이 디비전을 개최할 수 있는 탁구클럽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 또한 관련된 자료제출을……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것도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있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 연수 간 것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 재미대한탁구협회에서 유승민 기념대회를 열고자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탁구협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자체에서 하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후원사를 연결해서 대회를 유치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 대회 참가차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그때 마침 대한탁구협회에 디비전 선진문화 탐방이라는 사업이 내려와서 대한탁구협회 사무처가 그렇다면 회장이 하는 대회에 맞춰서 가서 탐방을 하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별건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종오 위원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해서 자료 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진종오 위원 자료제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미국에 간……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부산의 지인도 생활체육 위원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는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유승민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81년 대한민국의 위대한 권투 선수, 울지 않는 호랑이 김득구 선수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맨시니 선수와 경기하다가 14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지요. 결국 그 경기가 끝난 후에 복싱 제도에 닥터스톱 제도가 생겨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안타깝게도 김득구 선수가 사망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어머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잃으셨고 그 경기의 주심을 맡았던 리처드 그린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7개월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비극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 선수들의 피로 결국 복싱에 규칙이 만들어졌고 복싱경기에 의사들이 배석을 하고 상황을 관찰하다가 닥터스톱 할 수 있고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대한복싱협회의 국내대회 기술 및 경기규칙이 2025년 3월 4일에 의사 대신 간호사 등 의무진으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임의 변경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조계원 위원** 안타깝게도…… 지난 9월 3일 제주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경기가 있었지요?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거기서 중학생 선수가 2라운드 경기 중에 머리를 맞고 다운되었는데 결국 약 5분이 경과한 뒤에 사설 구급업체 직원이 들것으로 링 밖으로 이동해서, 그때 의사나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없는 구급차를 타고 아무런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실려 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진단 상황은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뇌수술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가 없었더라도 간호사만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응급조치도 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하면서 응급차에서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면 목숨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중학생 선수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유승민 회장님도 체육인이기 전에 두 아이의 아버지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조계원 위원** 지난번에 취임식 때 아드님들도 나오셨던데, 그 선수의 아버님께서 지난 주에 저희 의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을 대신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그 병원의 응급차에 의료진이 없다 보니까 17분이면 가는 9km 거리의 병원을 모든 신호 다 지켜 가면서 사이렌도 안 켜고 30분이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권투에 뇌졸중이 일어나면 시간이 생명인데 아무런 의료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의 대회가 열렸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계원 위원** 복싱협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계획안에 보면 참가 인원 1500명이라고 추

산해서 보고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1000명 이상의 선수가 파견하면 당연히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하고 그에 걸맞은 의료진 배치도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조계원 위원** 참가인은 1500명으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런데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의 답변을 보면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지, 개최지에서 가장 큰 병원은 어디인지 개인적으로 항상 확인하지만 별도의 안전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사무처장의 답변입니다. 안전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투기 종목인 복싱경기를 개최한 겁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조차도 그날은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의사는커녕 간호사조차도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히 인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도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간호사 배치와 관련해서 보조금은 또 거짓으로 신청해서 다 교부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자기들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각 선수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각서를 받았어요. 각서를 받았는데 이 책임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임 각서를 보면 ‘본인은 대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부상에 대해 대회 주최인 대한복싱협회 및 개최지 시·도복싱협회 및 지자체—유관기관 포함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을 담은 책임 각서에 사인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본인의 서체하고 동일한 서체로 법적 보호자 성명, 즉 아버지 사인도 학생이 한 거지요. 이런 식으로 출속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임 각서, 면책 각서는 폐지해야겠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당시 대한복싱협회의 기술위원회의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구급차에 의료진도 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싱협회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왜 그런 것들을 인터뷰하냐, 인터뷰를 하지 말도록 압박했고 이분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원래 부산체전에서도 심판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부산체전에서는

심판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강요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결국은 심판에서 배제까지 하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처사를 지금 복싱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버님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대회 현장에 가서 자해를 하셨어요, 링 위에서. 그런데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및 공공장소 흥기소지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거 당연히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조계원 위원** 체육회가 나서서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이 어린 학생의 사고로 인해서 그 가족은 지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오늘 부모님께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에게 특별히 질의서를 저희 의원실에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서를 드릴 테니까 잘 읽어 보시고 좀 책임 있게 대책을 세워서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위원장님, 저 오전 질의에 3분을 쓰고 남은 시간 오후 질의에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하세요.

○**손솔 위원** 유승민 회장님, 취임 언제 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는 취임 2월 28일 자로 됐습니다.

○**손솔 위원** 취임 이후에 회장실과 사무총장실 가구 및 집기류 전부 교체하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일부 교체했습니다.

○**손솔 위원** 꽤 많은 부분을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시면 종류와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실에 2540만 원가량 소요됐고요. 총장실에 1000만 원가량 소요돼서 두 분 임원의 가구 및 집기 교체로 35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항목을 보시면 제가 놀랐던 게 회장실에 멀티 벤치, 입식 바이크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집기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김교홍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일단은 가구들이 굉장히 낡아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

게 가구를 바꿔 보자라고 얘기했고 이런 세부내역까지, 또 예산 상황까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솔 위원** 회장님 취임 후에 대다수의 집기류가 교체된 것은 저는 관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꽤나 많은 양으로 보이고 멀티 벤치, 입식 바이크까지는 저는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회장님, 혁신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손솔 위원** 체육계 발전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세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문체부 강수상 체육국장님, 문체부 산하 비영리법인 중에 한국프로골프협회 있지요, KPGA?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손솔 위원**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근로시간 문제랑 노동조합 탄압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일주일 동안 7일 근무하고 근무시간 총 80시간, 91시간, 이런 살인적인 근로시간이 있고요. 초과근무가 인턴 사원에게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올해까지 52시간 초과근무 없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인턴 사원이 60시간 19분 근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턴 사원들이요 문체부 지원의 프로스포츠 청년 인턴 프로그램으로 채용된 인력이에요. KPGA에서 여기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정규직은 4명 줄고 인턴은 2배 늘었습니다. 이 정책이 제대로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KPGA의 입맛대로 이 정책을 이용해서 청년을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노동조합 탄압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고발한 사람을 징계하고 일부 해고까지 한 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징계에 대한 재심도 징계를 한 사람들이 심의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무검사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세부 내용 다시 살펴보고 사무검사가 필요한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검토하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유승민 체육회장님,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도 대한체육회의 자료제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고 엉터리가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산 관련되는 통계지요. 예산 관련 통계 중에서 인건비가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에 제출했던 자료와

올해 제출한 대한체육회의 인건비 관련 자료입니다. 인건비 총액, 인건비 중에서 자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 보면 연도별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리는 것도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틀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크게 틀립니다. 자체 인건비 비율이 무려 한 4%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게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건비 통계조차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데 다른 자료, 다른 대한체육회에서 내는 여러 가지 답변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 체육회장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경영 혁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일 성과 이렇게 책까지 내셨는데 가장 내부적인 행정관리 시스템조차도 아직까지, 지금 작년보다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외부 혁신을 외쳐 본들 그게 가슴에 와닿겠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뿐만 아니고 앞서 성과와 관련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경영평가가 C, C, C등급 작년에 D등급입니다. 사실은 E등급까지 있지만 E등급은 허위 자료제출이라든지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는 그런 기관 외에는 E등급을 안 받기 때문에 D등급은 최하등급입니다. 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4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평가입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있고 또 내부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성과급과 성과상여금조차도 구분을 못 해 가지고 허위로, 엉터리로 제출했다가 바로잡기를 몇 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평가는 D등급부터는 아예 성과급을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못 받았는데, 계속 C등급을 받으면서 그전에는 그래도 성과급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내부 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은 이렇게 처참한 경영평가나 청렴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저희가 받은 액수를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성과금을 1000만 원 정도씩 지급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성과금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해임된 사람, 정직된 사람, 감봉된 사람까지 수백만 원의, 또 당해뿐만 아니고 그다음 해까지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수당 중에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보고를 받았는데요. 징계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지고 있었지만 징계 이후까지 성과금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승수 위원** 기본적으로 성과상여금, 자체적으로도 D등급, 청렴도 5등급 이렇게 받는데 성과상여금을, 그중에서 특히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도 있겠지요. 그런 직원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성과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그리고 손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집기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호화한 직기로 다 교체를 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멀티벤치와 입식바이크, 이거 지금 회장님 외에 다른 직원들 사용합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이 집기들은 개인 돈으로 구입하신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기를 교체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집기에 대해서는 본인 돈으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체육회 예산으로 구입했으면 다른 직원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전임 회장의 집기가 노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노후였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김승수 위원** 그것 구입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언제 구입했고 구입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김승수 위원** 아직까지도 그 자료제출을 저한테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것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비슷한 액수를 주고 아마 구입했을 겁니다. 다 무상으로 그냥 집기 구입하는 업체에 내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옳은 행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각 종목별 단체, 대한체육회 회계감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홍 회장이 관계가 있는 업체에 수년간 다 그걸 몰아줬어요. 대한체육회뿐만 아니고 종목별 단체 50개 단체에 똑같은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했어요. 관계가 있는 그 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동일한 시기에 회계감사를 할 텐데 50여 개 종목별 단체 유형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한 회계법인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단체에 자율에 맡기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회계감사 기관만 바뀌었을 뿐 50개의 종목별 단체가 똑같은 기관에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작년에도 배드민턴협회 같은 경우에 회계감사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과보고서에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앞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승민 회장님 탁구협회 회장 시절에 국가대표선수 선발 문제 또 발전기금을 임원들한테 인센티브로 부당하게 발전기금을 받아서 나눠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정계요구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일부는 징계시효 기간이 지났다, 유승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견책정도 받았는데 심지어는 주된 징계 대상이고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김택수 당시 수석부회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천선수촌장으로 오히려 영전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인사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선수 바꿔치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변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 부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승민 회장의 소명 내용이 맞을 수도 있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선수들의 성적순 결과대로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명의 경기력강화위원회 소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회장 말씀 한마디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오비이락으로 그 선수가 유승민 회장의 제자 아닙니까? 이러니까 오해가 오해를 더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혁신을, 대한체육회뿐만 아니고 종목별 단체의 여러 가지 부정비리가 작년 국정감사에 가장 많은 질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한테라도 스스로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하셔 가지고 다른 기관한테 이렇게 영이 서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한테 이렇게, 또 본인 지인들한테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영이 서겠냐는 거지요. 회장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처벌이 아니고 오히려 연결시켜 주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변호사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이나 정부 요직에 배치하는 거랑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질의 전에 강수상 체육국장님, 뒤에 계셔서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올해 2월에 전북이 우리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뉴스에서도 전북지사를 비롯한 우리 전북도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당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약에도 이게 들어가면서 상당히 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 그런데 정작 국정과제에서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에 관한 내용이 빠졌어요. 문체부, 이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배현진 위원** 왜 빠졌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제가 죄송하지만 담당하는 국장이 지금 따로 있어서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북도의 국회의원이신 윤준병 의원께서도 이거 올림픽 준비가 엉망진창이라고,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도 부실한 유치계획 때문이다라고 지금 막 질타를 하셨는데요. 이게 대통령후보의 주력 공약이었는데, 지역 공약이었는데 빠진 배경이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체육협력관 최성희 국장입니다.

국정과제 과정 같은 경우는……

○**배현진 위원** 왜 못 넣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일단은 아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국정과제로 되려면 사실 어느 정도의 절차나 이런 것들

이 좀 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사실 체육회에서 NOC로서……

○**배현진 위원** 본인도 대통령인수위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데에는 계획을 넣는 거라서 무슨 절차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닐까요? 어필을 못 한 거 아니에요,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중요한 계획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부산엑스포나 이런 경우도 그렇고 다 정부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대부분 국정과제로, 특히 공개본에는 포함이 됐었으니까요.

○**배현진 위원** 평창에 유치를 할 때 유치 전에 우리가 444억 원의 그 예산을 썼습니다. 이번 개최까지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문체부에서 추산하고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전북의 계획서를 받아 보지는 못해서……

○**배현진 위원** 정확하게 안 보고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이나 절차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확정된 계획이 아직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창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배현진 위원** 지금 우리가 유치하기까지 가장 라이벌 도시로 꼽히는 게 어딘지 파악하고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인도, 카타르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데들도 있고요. 한 12개, 13개 국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13개 국가들과 경쟁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배현진 위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전북도에 민주당 의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에서 조차 지금 이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체육회장님, 전북도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까지 실무를 가장 중요하게 담당해야 되는 게 대한체육회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배현진 위원**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못 들어가는데 이거 실무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진 위원** 분산 개최를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아마 그때 당시 제가 뉴스를 봤을 때에도 서울도 굉장히 주력해서 후보지 선정에 뛰어들었는데 서울을 이기고 전북도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뉴스를 굉장히 많이 냈고 또 그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분산 개최 계획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IOC가 선호하고 있는 방향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분산 개최가 가능하다면 해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체부 자료, 내부 자료를 보니까 'IOC는 압축

적인 경기장 배치를 요구한다'. 이거 앞서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께서도 IOC의 그 문서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다른 도시에 크게 분산이 되면 부담이 된다라는 입장을 IOC가 밝힌 걸로 저희는 해석이 되거든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때 당시에 전북이 제안한 도시는 한 7개 도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IOC, 전 올림픽을 비춰 보면 한 3~4개 정도의 경기장을, 지역을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

○**배현진 위원** 이렇게 분산을 해서, 7개 정도라고 얘기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배현진 위원** 그 정도의 분산 개최를 해서 성공한, 올림픽 개최에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7개까지는 개최한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없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배현진 위원** 전북도도 IOC가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약간 축소해서 보고했어요. 그런데 실제 IOC는 분산 개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 전북에 유치를 만약 시켰을 경우에.

전북에서 지금 분산 개최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이를테면 숙박, 예상 관람객이 1500만 명인데 그러면 객실이 118만 개 정도 필요한 걸로 추산이 되거든요. 저희가 한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열리는, 2023년 기준 전북의 숙박 수용률이 6%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이 1500만 명의 관람객을 수용하기에는.

그래서 개최지를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전북의 인근인 서울, 대구, 인천 등등 여러 도시에 분산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이분들을 실어 나르려면 빠른 교통수단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전북도의 계획은 인천공항-서울역 KTX 노선을 한시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확인을 해 줬어요. 중요한 것은 코레일은 전북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만금 공항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 12일에 조류 충돌 위험으로 공항 취소해 버려서 이용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전북도는 분산 개최를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국내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능력은 아직까지도 하나도 구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정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지금 국정과제에 넣는데 말씀하신 대로 절차나 어떤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하고요.

대한체육회도 이렇게 되면 우리 개최지 유치 선정하는 데 되게 어려움 겪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어떠세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부분이 국내 프로세스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또 저희가……

○**배현진 위원** 언제쯤 완료될까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올해 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내 프로세스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저희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와 그리고 전북 그리고 IOC가 유기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쯤이면 개최지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올해 3월에 신임 IOC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현재로서는 신임 IOC 오시면서 여러 가지를 다시 지금 리셋(reset)하려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배현진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후보지 개최 선정 이전에 이미 사전타당성조사 계획을 완료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것 후보지 선정하는 자체가 너무 엉터리로 진행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문체부가 국정과제에 넣지 못했다라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저희가 짓발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를 내야겠지요?

문체부 이것 잘 책임지고 대한체육회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지금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IOC랑 협의하면서 전북 이랑 같이 협의한 것들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정부단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현진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실무, 주무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먼저 묻지 않은 것은 이게 지금 국가적인 유치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대한체육회가 IOC로부터 개최 성공하기까지는 대통령실과 문체부의,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 한 거고요.

그냥 손놓고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북도가 절차적으로 이행을 못할 것 같으면 재촉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잠깐만요, 최성희 국장님.

제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한 것에 있어서, 제가 국정과제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그 안에 이행과제와 지역과제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그런데 지금 공개본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유치·지원에 대한 일부 부분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임오경** 이행과제와 지역과제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지역공약, 지역과제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 과제에도 공개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유치·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는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셔요. 그래

서……

○**배현진 위원** 아니, 문체 분야의 100대 국정과제에 안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주력해서 앞으로 노력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희에게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개최 사업?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셔서…… 두 달 동안 함께 거기에서 같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지금 국정과제 공개본에는, 원래 국정과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조금 곤란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애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지역 국정과제 부분에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공개본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유치·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지원·검토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국정과제에서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이해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니, 국정과제를 국민들께 공개를 못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 문체부가 되게 수세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간판을 걸고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왕 지금 닻을 올렸기 때문에, 뜻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광주 광산을의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하형주 이사장님, 지난해 11월 17일 임명되셨대요, 이사장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딱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기 보름쯤 전인데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누가 여기 임명 통보를 하던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홍보요?

○**민형배 위원** 통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아, 통보.

○**민형배 위원** 이것을 맡아 주시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문체부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자세히……

○**민형배 위원** 문체부에서? 문체부장관이 했습니까, 실무자가 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아니, 사회수석인가……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 안 나시네요.

2021년 10월에 당시 대통령후보 윤석열 지지 선언하셨지요?

저것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하셨지요?

그때 윤석열 후보는 헌법과 법치를 수호함으로써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완전히 틀리셨어요, 완전히 틀리셨다고. 친위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래서 탄핵당하고 파면당했잖아요.

그때 저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후회 없으세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민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왜 윤석열은 탄핵당했을까요? 파면됐을까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정의하기가 참 이 자리에서 애매합니 다마는……

○민형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권력이 자기 것인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도 없애고 그냥 사법체계도 마음대로 정리하고, 그런 게 쿠데타거든요.

동의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민형배 위원 동의하신다고요? 잘했다, 윤석열 잘했다 이거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아니요, 제가……

○민형배 위원 빨리빨리 말씀을 해 주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민형배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놔두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에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이사장님은 제가 지금까지 본 이력, 경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오피니언리더들 중에 정말 최대세요. 경력만 봐도 한 5장쯤 포상과 경력이 돼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게. 이렇게 화려한 분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저렇게 윤석열 지지를 하다가 그 대가로 공단 이사장으로 쿠데타 보름 전에 가신 것 아니겠어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번 윤석열 파면 과정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텐데 스포츠진흥본부에 이런 것을 하셨대요, 체육인 눈높이에 맞는 복지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기관장 핵심 현안과제 실적보고회라고 하는 것을 올해 들어서 두 번 하셨어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민형배 위원 윤석열 파면된 후에 두 번 다.

왜 하신 겁니까, 이 현안과제 실적보고회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제가 상임감사 때부터 와서 봤는데요. 우리 서울올림픽의 송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고……

○ 민형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설립 취지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셨다는 거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중에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과거 체육인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고려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런 적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 이해 가능한 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시 보상을 받게 한다.

혹시 대한민국에 이런 연금제도 보신 적 있으세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아니, 없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지시를 하셨나요? 잘 모르고?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지시가 아니고요.

○ 민형배 위원 에이, 왜 그러세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연금은, 연금제도는 개선돼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대한체육회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봐 보세요, 지금.

현행 지침하고 타 연금법 비교를 해 보면 이런 발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특히 문체부의 연금 관련 지침을 보면 최초 지급할 때 선택을 해요. ‘일시금으로 받을래, 연금으로 받을래?’ 이렇게 물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다음에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 검토를 해라, 왜 그랬을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형주 이사장님이 이 성과포상금을 수령하는 분이더라고요.

왜 고개를 흔드십니까?

보여 주세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맞습니다.

○ 민형배 위원 5800만 87만 5000원, 94년 3월에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때 일시 수령을 하셨기 때문에, 94년에 5880만 원을 지금 소비자물가지수가 그때보다 2.2946배 올랐기 때문에 2024년으로 해서 일시불로 하면 약 1억 3500만 원이 나옵니다.

저 표 한번 보여 줘 보세요.

그러면 차액이 7600만 원 정도 생겨요.

이것 계산해 보신 거잖아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전혀 모르는……

○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가서 이것을 ‘중복수혜 등을 고려했을 때 세부 검토사항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의견을 10월 15일, 저희가 자료 요청한 날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것은 제가 과학원에서 지금 조사 중에,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 **민형배 위원**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다가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바꾼 것 맞잖아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요.

○ **민형배 위원** 에이 참, 왜 그러세요, 이사장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제가 직장이 반듯하기 때문에……

○ **민형배 위원** 이사장님,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연금?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체육진흥기금에서……

○ **민형배 위원** 올해 체육진흥기금이 제대로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

○ **민형배 위원** 이것 공단 기금에서 쓰는 돈인데 당신도 해당되는 거면 오히려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셔야지 스스로도 해당되는 것을 지시를 했다가 저희가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가서 이것을 바꾼다?

국민들이 이게 공직자로서 온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답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민형배 위원** 기회를 드릴 텐데 제 물음에 답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전혀 의도치 않는 방향입니다, 지금.

○ **민형배 위원** 아니, 의도치 않은 방향을 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때 가서 바꾸시냐고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아니요,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러면 실무자들이 알아서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검토해 보라고 했지……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민형배 위원** 자세히 해 보세요, 대신 사실에 맞게 자세히 해 보세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자세히…… 예, 알겠습니다.

연금제도는 저도 해당 사항이 있는 만큼 우리 체육인들의 체육인 복지 사업 중에 최고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체부 통해 가지고 용역 수주를 받아서 과학원에서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안 중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이야기에 국한시키자면 그때 당시 92년도, 94년도 그때 연금이 없어진다고 선수들에게—특히 저한테도 그랬고요—일시불로 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두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하나 마나 한 말씀 하시니까 별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왜 윤석열 탄핵에 이르렀는지 과연당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과연에 이르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신과 연관돼 있으면 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과 연관돼 있는 것을 뺀히 알면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자료요청 하니까 이것을 그냥 없던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변명하셔 봐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때 그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 일시금 타 간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자금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 많고 아파 누워 있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도 한번 희생, 회생 시켜 줄 수 없겠나……

○민형배 위원 대한민국에 없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하신 것 맞잖아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것은 맞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민형배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냐고요. 어쨌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저는 반듯한 직장을 갖고 있는데요. 나랑 같이 올림픽의 메달 딴 선수들이 사기도 당하고 다 현금 보관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설 병원비도 없어서 지금 너무 불우한 사람이 많아서 체육계를 쟁기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저 답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하게 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임오경 이사장님, 이사장님 답변을……

○진종오 위원 아니, 말씀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답변을 듣고 있다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론화해서 한번 여론도 들어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는 없었고.

94년도, 95년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저는 전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강요를 하거나 전혀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해 놓은 이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절차·과정은 있었지만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진종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진종오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이 전북 올림픽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보니까 없어요. 체육을 통해서는 없는데 그러면 아까 지역 국정과제라고 했나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이행과제하고……

○진종오 위원 지역 국정과제는 발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저도 궁금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그게 발표할 수 없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 진종오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는 좀 알고 싶어서, 체육 관련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 위원장님께서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 좀 합니다.

○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배현진 위원 저도 질의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묻지 못했지만 저희가 여기 국회 문체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발표하지 못할 정보가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같이 한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123대 국정과제에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것은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따가 나와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최성희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대리 임오경 저 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 민형배 위원 답변하기 전에……

○ 위원장대리 임오경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민형배 위원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서 이따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하라 그러셔야지 지금하고 똑같은 내용을……

○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게 아니라 지금 입장에서 왜 답변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 조계원 위원 배현진 위원님도 이따가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 배현진 위원 예, 이따가.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지금 기억이 답을 하게 하시냐고요.

○ 위원장대리 임오경 특별한 것 아닌 것 같아서……

○ 배현진 위원 아니요, 이따가 파악해서 보고하시라고……

○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나와서 말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밝히라 그러시면 될 일인데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지금 답하라 그러시니까 회의 진행이 좀……

○ 위원장대리 임오경 문체부, 정부 차원에서 지금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게 있고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저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민형배 위원 국정과제는 다 공개되어 있는 건데, 다 발표했잖아요, 얼마 전에.

○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러니까 123대……

○ 민형배 위원 만약에 거기 123대 안에 들어 있지 않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걸 정부가 모른 척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 위원장대리 임오경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 민형배 위원 계속 나와서 답변하라 그러면 그 답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임오경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답변하시고요. 또 저희가 답변을 듣고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추후 다시 한번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김승수 위원 저도 자료요구 관련해서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답변하고 나서, 같은 건가요?

○김승수 위원 예, 같은 겁니다. 자료요구니까 답변하고 해도……

○위원장대리 임오경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국정과제 채택 여부와 별개로 이번에 저는 한국의 2개 경쟁 도시 중에서 올림픽 개최지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앞으로도 유사한 과정이 반복될 텐데 개최지 도시 후보로 결정되기 전에,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공동개최 도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동개최 도시별로 집행부의 시도에서 공동개최 도시로 같이 하겠다는 결정과 관련된 내부 결정 과정, 공문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또 그렇게 2개 후보지 서울과 전북 또 공동개최 도시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어차피 이게 결정이 되면, 올림픽 후보지가 결정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결정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또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문체부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일단 최성희 국장.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123개 국정과제 공개된 본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아까 임오경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국정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에서 다 공약이 됐던 것들이나 주요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하시는 부분에는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공개돼 있는 국정과제 이외에 사실 세부 이행 과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형배 위원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잠깐만요.

○박정하 위원 답변을 마저 듣고요. 지금 답변 중인데……

○민형배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의사진행발언한다니까요.

○박정하 위원 답변 중인데 마치고 하시지요. 그게 맞지 않아요?

○민형배 위원 저 답변이 조금 전에 답변한 것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박정하 위원 그래도 지금 답변 중인데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1분만 줘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답변 중인데 그것을 발언권 달라고 해서 이의 신청해서……

○민형배 위원 답변이 같은 말이어서……

○박정하 위원 다 들으시고, 다 들으시고.

○위원장대리 임오경 최성희 국장님, 지금 좀 전에 배현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과 같은 답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 위원장대리 임오경 거의 같은 답변인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오후에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지금 저 실무 책임자가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123대 국정과제에 그런 개별 사안들이 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다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 올림픽 유치 공약은 전북 지역 공약이에요. 그래서 세부 과제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저 문체부 관계자를 계속 불러서 답변을 시켜서 제가 저지를 한 겁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 요청한 자료에 관련돼서 문체부에서 자료제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한체육회에서 자료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나미 대한체육회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대한체육회에서 자료제출하시겠습니까, 사무총장님?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나미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대한체육회가?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나미 예.

○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유승민 회장님, 현재 후원금 리베이트 불법 지급과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으로 고발 당한 상태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열심히 조사해서 징계요구권은 셀프 징계로 견책에 그쳐서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PPT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리베이트 후원금 3억 환수 건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조은희 위원 보고 못 받았다고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 조은희 위원 참.....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탁구협회가 저한테 보고할 의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회장님, 이 리베이트 당사자 중에요 회장님의 지인 김 모 씨도 있습니다. 김 씨가 2억 원, 리베이트 총금액의 3분의 2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탁구 협회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당시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의 지인이 후원업체가 선수들 쟁기라고 후원한 돈을 왜 3분의 2, 2억 씩이나 쟁집니까? 유승민 찬스 아닙니까? 그러면 회장님은 아무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회장님 지인한테 이걸 돌려주는 게 낫겠다 해야지요. ‘보고받은 가 없습니다’…… AI십니까?

(임오경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위원회 의사권은 모두 협회장 결재 사항인데 보고받은 바 없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캡 투기는 아내가 했다’ 그렇게 말해서 물려난 국토부차관과 뭐가 다릅니까? 총괄 책임자가 후원금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후원자가 후원을 하겠습니까?

또 아까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이 질의하신 후원 물품 빼돌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너무 어이없는 동문서답을 하시던데요. 문제는 코로나로 취소된 국제대회가 하나은행 로고가 찍힌 후원 물품이 어떻게 처리됐느냐 하는 의혹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로고 없이 제작된 1억 원 상당의 새로운 물품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지금 진정이 들어오고 한 것은 탁구회 임원과 친한 탁구장과 물품업체에 줘서 팔고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 로고 안 찍힌 물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로고 찍힌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회장님?

또 있어요.

부산대회가 2020년에서 2024년으로 됐지요. 그런데 탁구용품업체 버터플라이에서 또 후원금을 현금 3억을 받았는데 그중 10% 리베이트 3000만 원을 협회 관계자 두 사람이 반반씩 나누어 가졌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 두 의혹 모두가 윤리센터가 조사 중이라고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탁구협회장 시절 운영 비위가 이렇게 화수분처럼 터지는데 ‘모르겠습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또 업추비 문제도 짚어 보겠습니다.

체육회 1월 선거 과정에서 ‘나는 협회장 재임 기간 한번도 범카를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사실입니다.

○**조은희 위원** 거짓말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사실입니다.

○**조은희 위원** 왜 말씀과 기록이 다릅니까? 저희 의원실이 협회 제출자료와 경영 공시자료 모두 살펴봤는데 재임하셨던 2000년부터 2024년까지 6500만 원 넘게 사용하신 계자료로 확인됩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제가 쓴 게 아닐 겁니다, 위원님.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대회 유치라든지 대회장 운영 관련해서 쓴 것이지 제가 쓴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 변명 하지 마시고요. 또 보십시오.

질문에 답해 주세요.

PPT 띄워 주세요.

항공비, 회장님의 4000만 원 항공권입니다. 출장비는 출장 비목에서 지급하라는 체육회의 감사 결과도 무시하고, 업추비는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지급하라는 협회 정관도 패스하고 23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항공료 4000만 원 사용하셨는데 이것 누가 탔습니까? 비행기 누가 탔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는 탁구협회 경비로 해외출장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누가 이 비행기 타서 회장님 업추비로 결제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일단 이 비행기 탄 것은 관련……

○조은희 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희가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무시한 유승민 스페셜라켓 구입 건, 2021년 2월에 스페셜라켓 제작 건으로 또 1000만 원 업추비로 사용했어요. 업추비가 지금 누구 호주머니의 용돈입니까? 회장님 이름을 딴 유승민 스페셜라켓 이게 여러 버전이 있는데 2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범위의 4배에서 16배를 웃도는 제품인데 이것 누구 줬습니까?

그리고 또 더 해괴한 것은 탁구용품 판매사이트 보니까 제작이 RSM 스포츠인데 여기 이사장이 회장님이에요. 본인 업추비로 청탁금지법이 정한 범위의 4배, 16배 하는 라켓 그것도 이름이 유승민 스페셜라켓,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회사에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이런 물품을 협회 업추비로 구입하면 배임 아닙니까, 배임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말씀은 사실과 달라서 제게 혹시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또 있어요.

지금 회장님을 포함한 임원, 아까 업추비 임원이 썼다고 그러는데 주유비·숙박비, 업추비로 사용한 게 하도 많아서요 업추비 규정 위반 내역이 심할 때는 95%입니다. 왜 정상 편성해서 쓰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현재 탁구협회 정기 감사 중인데 이것 셀프 감사해서 셀프 솜방망이 ‘무죄’, ‘없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장 국장님 좀 나와 보세요. 잠깐 스톱 좀 해 주시고.

국장님도 한통속이에요? 그런 것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윤리센터 징계 요구에도 탁구협회가 솜방망이 했는데 이런 것도 다, 탁구협회가 이런 것 체육회가 감사해 가지고 탁구협회가 하는 것을 전임 탁구회장인 지금 체육회장, 체육협회에서 감사해서 또 ‘문제 없음’, 되겠습니까? 옛날에 배드민턴협회에서 셀프 감사해서 셀프 솜방망이 해서 결국은 공정위가 나섰잖아요. 이번도 문체부가 나서셔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러겠습니다. 윤리센터에서 권고한 게 제가 알기로는 징계와 환수를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것까지 다 해서 국장님도 한통속이라는 의혹을 벗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답해 보십시오, 회장님.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추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업무추진비를 제가 재임 기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또 심지어 해외출장 갈 시 탁구 관련된 업무로 간다고 하더라도 항공료를 쓴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자료 보시면……

○조은희 위원 그거 위증인 거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증 아닙니다. 위증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원받은 항공

권, 또는 제가 국제탁구연맹 임원이기 때문에 항공권을 지원받아서 제가 갔고요. 세계선수권대회 때 4300만 원이라는 항공료는 저는 들어 본 적도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업추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 육천몇백만 원이 집행된 것은 자세하게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출장시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쓴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로고가 박힌 물품 외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용품으로 1억 원어치를 후원받아 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 말이 너무 엉뚱해서요 제가 한 5초만 더 쓰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너무 엉뚱해요.

○위원장 김교홍 그래요.

○조계원 위원 이따 질의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발급 카드 없다고 그랬지요? 경영공시 저희들 다 확인한 건데 회장님의 확인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영공시는 이렇게 말했는데 발급 카드 안 했다 그러면…… 경영공시가 거짓이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보고 답변하십시오. 위증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모르쇠가 아니고 제가 쓴 적이 없는데 쓴 적이 없는 걸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탁구용품 관련돼 가지고는 로고 찍힌 외의 탁구용품 협찬은 그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SM 스포츠 말씀하시는 거기는 용품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사단법인의 좋은 일을 하는 재단입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걸 제작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사실과 다른 말씀을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취임 전부터 지금 1년째 같은 걸로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는 그들이 유승민 찬스를 쓴 게 아니고 제가 지인 찬스를 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 기간이었고 후원금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가져온 38억, 30억에 대해서는 이거 인센티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하기 전에 저희가 에이전시 계약을 했었는데 그 수수료가 한 20% 정도 됐었는데요. 그것도 좀 아끼고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 지인들이 다 십시일반 나서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뿐만이 아니고 이걸 후원받은 한 10명 되는 분들 중에 저희 지인들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 기업을 연결해 줬고 유치되는 데까지 같이 뛰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조은희 위원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인이 2억 원 가져갔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나중에 보충질의하시고요.

○조은희 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모르쇠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교홍 유승민 회장님, 여러 가지 조은희 위원이 말씀하신 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정확하게 제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교홍 탁구협회에서 고발 들어가고 막 가지고 수사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런데 그게 정확히 그 고발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직은 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는 아직 조사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언론에 보면 많이 나오던데, 그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런데 아직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에 다른 시민 단체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가서 한 번은 받았는데요 그 건이 인센티브 관련된 건이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비리 관련된 것은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제 명예에도 심각한 혼란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제가 체육인으로서 후배들한테 너무 죄스러운 심정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충분히 한번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그 건에 대해서도 한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본인이 업무추진비는 전혀 안 쓴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전혀 안 썼습니다. 쓴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카드 발급도 안 받았고?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심지어 제 수중에 카드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항공료도 아끼고자 제가 모 항공사에서 후원받은 그 항공권 그리고 국제탁구연맹 임원이었기 때문에 국제탁구연맹에서 지원한 항공권으로 세계선수권 등 다녔지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나중에 밝혀지겠지요, 그것은.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는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강수상 체육국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오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해야 할 날입니다만 우선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강수상 체육국장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정부 지원 배제를 지시해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는 김기춘 씨—전 대통령비서실장이지요—이분이 지금 한창 축제 중에 열리고 있는 한국시리즈의 VIP로 초청돼서 관람했다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문체부의 체육국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되시지요, 취지를?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시리즈 1차전이 있었습니다. 축제의 현장이지요. 전 국민 4명 중 1명이 즐기는 범국민적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이고 저도 아직 한 번

도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가 보고 싶은 꿈이 있는 그런 국민 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도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 축제에 제 질문으로 인해서 혹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성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가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정사회, 형평성 이런 모든 가치를 생각할 때 이 문제가 결코 작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김기춘 씨가 그렇게 ‘법비 김기춘’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국민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실형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어제 한국시리즈 1차전에 이분이 와서 관람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VIP로 초청을 했다 하고 이것은 대체로 전직 KBO 총재들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분이 초대를 받았는데 두 분만 참석을 했고 이분도 역시 그중에 하나로 관람을 했다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이런 관례가 있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직 KBO 총재였음만 기억하고 그 초청에 응해서 뻔뻔하게 이런 국민적 축제에 나와서 관람을 하는 본인의 잘못……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런 잘못도 했겠지라고 그건 제가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에 보면 이장석 모 구단의 전 대표가 있는데 이분 역시도 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분이 2022년 10월 25일 날 플레이오프 2차전에 개인 자격으로 관람을 한 것에 대해서 KBO가 ‘개인 자격으로 관람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개인 관람인데도.

그런데 이것은 공식 초청 관람이잖아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던 KBO가 왜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김기춘 씨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스러운 어떤 인식 없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KBO의 어떤 사회인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현격히…… 예를 들어서 그냥 잘 모르고 했겠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구선수들은 그런 KBO 규정에 의해서 잘못을 하면 영구 실격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지적을 받았던 이장석 전 사장도 자기 실형 받은 것 때문에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지도감독·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문체부 체육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KBO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초청은 아마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KBO가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기관인 만큼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감정들은 충분히 고려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살펴봐 달라고 하는 게 KBO 규

약 부칙 제1조가 있습니다. 지금 KBO는 ‘전임 총재 신분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고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답변 역시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데 KBO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규약 부칙 제1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리는 등 적절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KBO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부칙에 의해서 이장석 전 사장 또한 영구실격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기춘 씨에 대해서만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 국장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물론 제 질문을 들은 KBO가 잘 듣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직접 답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KBO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그리고 야구팬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의 취지 판단 오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 사실관계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VIP 초청을 결정했는지 초청 주체, 승인 라인, 좌석과 의전 등급, 동선 관리까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셋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리스트, 횡령, 학폭 등 중대한 사회적 유착자에 대해서는 의전·초청금지 지침을 제정하고 부칙 제1조에 근거한 이 제재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문체부 국장으로서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주신 의견은 KBO에 전달해서 KBO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종감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유승민 회장님, 서울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징계가 징계가 아닌 제 식구 감싸기였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징계위원을 추천을 하고 그 사람을 도운 인맥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공정위원회입니까?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사건은 경희고 축구부 감독 변윤철 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024년 11월에 변윤철은 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장학금과 대회운영비 등 2억 7000여만 원의 공금횡령·배임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회계부정이 확인되어 학교는 기관경고를 받았고요. 대한체육회가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서울시축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그러나 서울시축구협회는 첫 심의에서 과실로 인한 경미한 행위로 분류해서 견책, 두 번째는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습니다. 결국 대한체육회가 두 차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야 세 번째 심의에서 자격정지 5년이 확정이 됐지요. 즉 9개월 동안 협회는 횡령을 단순 과실로 둔갑을 시켜서 징계를 축소 지연시킨 겁니다.

변윤철의 부친 변일우 씨는 서울축구협회 제11대 회장이자 경희고 교사 출신으로 아들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경희고 교감을 찾아가서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마라’ 이렇게 회유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징계를 심의한 김영우 부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는 영등포 공고 교장 출신인데 변일우 회장과 오랜 교류가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제척·기피·회피 없이 전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걸 보면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1조의 6 심의 건과 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을 한 것입니다.

PPT 또 보시면, 회의록에는 김영우 부위원장이 ‘경희고 교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변 감독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징계가 과하면 무덤이 된다. 자살까지 생각했다더라’ 등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다른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회의 도중에 ‘이 사람 더 징계하면 나 공정위원 안 하겠다’ 이렇게 퇴장까지 했습니다. 이게 공정위원회 위원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절차 자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PPT 보시면, 서울시축구협회는 공정위원 14명 중에 11명을 서면 추천으로 선임했습니다. 정식 회의나 기록, 회의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면결의로 선임 완료했다는 것이 협회 측의 공식 답변입니다. 즉 추천위원회 회의록, 출석자 명단, 토론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자체로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9조 2항에 규정한 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의 그리고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나머지 3명 위원 선임 과정은 더 심각합니다. 협회는 전문적 축구 지식이 있는 위원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축구인노동조합 대표 정종선의 자문을 받아 해당 단체 추천 인사 3명을 추가 선임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문제는 이 한국축구인노동조합의 대표 정종선, 전 연남고 감독은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서 현재 자격정지 상태로 축구협회로부터 추가 징계 절차가 임박한 인물입니다. 즉 자격도 없는 사람이, 특히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구성에 관여한 셈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정종선이 대표로 있는 한국축구인노동조합 단체 사무실은 서울시축구협회 사무실이 있는 효창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로부터 무상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가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확인을

했더니 서울시축구협회는 정종선 개인에게 금전 차입을 한 거래 내역도 존재했습니다. 2022년에 5000만 원, 2023년에 1억 원을 빌렸습니다. 협회와 정종선 간 금전거래 및 상호 의존 관계는 정종선이 협회 인사나 징계 과정에 비공식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을 그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축구협회 징계 시스템의 인적 구성이 전직 협회장 변일우와 아들 변윤철 그리고 징계 유죄 전력자 정종선을 중심으로 얹혀 있는 특정 이해관계 인맥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았다고 간주를 해도 되겠습니다.

회장님, 서울시축구협회가 14명 중 11명을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선임하고 무자격자를 통해서 나머지 위원을 채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단순히 이거 행정착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야합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이고요. 대한체육회는 경징계 결과를 반려를 하면서도 이런 위법적인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해서 특별 감사와 직권 조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한체육회 공정위 구성부터 작년 국감에서 많은 질타를 받은 이후로 굉장히 공정하게 구성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 산하단체인 축구협회 또 서울시체육회랑 협력해서 그 산하단체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강수상 체육국장님, 지금처럼 징계 대상자와 연루된 인물이 공정위원 추천과 징계 결정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 문체부 차원에서 직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말씀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부터 공정위원은 회장님이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로 다 만들어 놨고요. 이게 모든 체육단체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변윤철, 정종선 이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도 견제하게 축구협회에 나타나니까 짧은 지도자들이 이거 공정하냐, 이런 부분에서 매우 좌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합동 조사 그리고 서울시축구협회 감사계획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 조치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전에 문체부 최성희 국장님, 잠깐만 빌까요?

오전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국정과제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정리 안 됐나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빨리 저기 할 테니까……

○위원장 김교홍 그거는 시간에서 빼 드릴게요, 국장님 발언한 시간은.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아까 질의 주셨던, 지금 국정과제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국정과제 106번에 보면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라는 체육 분야 국정과제가 있고요. 그 가운데 국제스포츠 관련된 부분이 K-스포츠 위상 강화라고 되어 있고 거기 안에 국제대회 참가·유치·개최 지원이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북에서는, 지역에서 기대하시는 거는 전주올림픽이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기를 바라셨겠지만 저희는 아직 국정과제에서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저희 국제대회의 유치 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게 정리된 답변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박정하 위원 여전히, 제가 올해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준비를 해 갖고 국정과제로 발표된 123개 이렇게 보면서 크게 K-컬처 300조 얘기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명 얘기한 건에 대해서 좀 공허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궁금증이, 문체부로부터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회의 계속 참석·배석하셨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올림픽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큰 행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지원, 국제대회 참가 지원은 유승민 회장 업무보고하시면서도 올해만 해도 대여섯 개씩 국제대회가 있는데, 그런 거 지칭하는 거지 별도의 전북올림픽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논의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전북올림픽에 대해서? 그 파트 106번 항목 논의할 때, 정리할 때, 전북올림픽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올림픽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평창 올림픽 유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기는 했는데요. 그 단계가 유치가 확정되고 사실 대회 개최를 1년 앞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지금 전주올림픽 같은 경우는……

○박정하 위원 지금 유치가 결정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문체부에서 막 덤빌 일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그러니까 아직 체육회에서 선정을 한 단계이고 사실 저희 정부 쪽으로 지금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송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단계가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어서, 적어도 국정과제에 명시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단계나 유치 단계들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어디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아니, 굉장히 중요하게……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인데 그거를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뭘 하지를 않는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굉장히 수조 원이 드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예산이 드는 페가 이 벤트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실 있고 타당성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체육회랑 전북이랑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용들을 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IOC랑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IOC랑 협의를 하면서 더 타당성 있는 계획, 완성도 있는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요.

○박정하 위원 IOC하고 협의할 때 문체부에서도 누가 관여하고 있나요? 아직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그것은 지금 NOC에서 주관하시는 회의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여전히 애매하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분야는 안 하시더라도 문화체육관광 분야만요.

국정과제가 비공개가 있고 공개가 있고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몇 달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못 볼 정도로 국정과제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지금 국정과제는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박정하 위원 그게 막 평가가 혈령하다는 거예요. 저도 죽 읽어 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정책 방향을 잡는 수준에서 지금……

○박정하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 말씀하실 때는 비공개 부분이 있고 공개 부분이 있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그러니까 국정과제……

○박정하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회의 계속 배석해 계셨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그러니까 세부 이행과제 수준에서 얘기가 조금 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저희가 실적을 내거나 하는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사실 큰 카테고리 아래 다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종감에 다시 여쭐게요.

유승민 회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이 절절하게 복싱 선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답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하시는 답변도 그렇고 스포츠맨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자신 있게 시원시원하게 답변 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조계원 위원님 답변 주실 때 제가 메모를 죽 했는데 기억나는 것은 안타까운 사고고 안타깝다, 이것 한 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 부분에 보조금 수령에 대해서 알았느냐. 1억 5000이나 받았거든, 제주도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보충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인지하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부모님도 만나셨다고 했어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희 사무총장께서 만나 뵙고……

○**박정하 위원** 회장님과 직접 만나신 건 아니고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사무총장께서 그 사고 이후 일주일 뒤에 제주도 가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체육회 내에서 조사는 한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희 조사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했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박정하 위원** 조사했는데 아까 조계원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당시에 있었던 세컨드 이 양반은 복싱연맹 지도자 자격도 없는 걸로, 등록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확인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확인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출석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 아예 자격도 없는 분이었네요.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박정하 위원** 그런데 이 양반 징계해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지금 그 징계……

○**박정하 위원** 이에 관련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체육회에서는 문체부 후원이라고 줬는데 이거 조사해서 나온 것 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줬느냐면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조금 받은 것 나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글로브라는 게, 선수가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데 소위 복싱 글러브라는 게 한 사오십 개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몇 번 쓰고 나면 이게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관리를……

저 1분만 쓸게요.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주세요.

○**박정하 위원**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죽 가다 보니까 다 몰랐대요. 다 몰랐다고 하고 책임도 없다고 해요.

아까 몰랐다고 하시는 보조금 1억 5000 잘못 수령한 건에 대해서 조사 다시 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이 장비니 그다음에 의료진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문제없다. 우리는 1000명 이하라 해당 안 된다’라고 한 건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된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희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안전관리 미흡으로 해서 기관경고 징계 조치를……

○**박정하 위원** 기관경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관경고라는 게 제일 경징계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런데……

○**박정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볼 용의 있으신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챙겨 주세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답변할 것 없어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희가 기관경고를 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정 책임자의 요건이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처장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협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는 전무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기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경고를 주는 차원으로 제가 징계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회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임오경입니다.

 유승민 회장께 질의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있어요. 불법, 부정행위, 비리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 228개 시군구 내에서 그리고 시도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컨트롤타워가?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원단체라고 함은 82개 경기단체의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하고요. 17개 시도이기 때문에 228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보고체계가 각 시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계속해서 종목단체들, 시도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대한체육회 회장한테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문제가 발생하면 종목단체에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바로 직 다이렉트로 보고체계가 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애인단체에 그렇게 연락체계가 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임오경 위원** 여기 국회라는 곳은 의원님들은 민원을 받고 바로바로 지금 여기 회장단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오전부터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러면 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원래는 지금 228개 시군구가 있다라면 그게 시도로 연결체계가 돼서 그 안에서 컨트롤타워에서 해결을 하고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안이 결정 났을 때 대한체육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절차·과정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를 봤을 때는 이 컨트롤타워가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보고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침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비리들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을 준비하실 때는 국감을 준비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어 놔서 답변하셔야지,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82개의 종목단체, 시군구 228개, 시도 체육회 17개, 이것 다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한탁구협회 회장 하실 때 대한체육회 지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연?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자세한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인건비와 강화훈련비 정도 그리고 목적 사업인 디비전리그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강수상 국장님, 지금 운영비 정도, 국제대회비 정도만 지원받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임오경 위원** 지금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말, 답변 들어 보면 연 대한체육회 지원금을 운영비 그리고 대회출전비 정도만 받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선수훈련비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최저 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연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연 얼마를 받았는지 유승민 회장님, 탁구협회 회장 하실 때 모릅니까? 대략.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대략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이 있고 개인 종목과 구기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 종목에서도 차등이 있어야 돼요.

강수상 국장님, 82개 종목 얼마씩 지원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뽑아 봐야 되는데요. 현재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돈은 연 한 3000억 정도 선수들 관련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국장님, 내년 정부 총 예산안 대비 문체부 예산은 고작 0.02% 올랐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도 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걸 물어보면 저는 건강입니다. 그렇지요?

왜 우리가 소식을 할까요? 왜 우리가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할까요?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까요? 저 성인병에 안 걸리려고 저 몸 관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몸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좋은 명예와 부와 경제 다 갖춰도 내 건강을 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콘텐츠 예산은 26.5% 증액됐고 문화예술 예산 10.9% 증액됐고 관광 예산도 9.5% 증액됐는데 체육 예산만 0.3% 정도 증액됐어요. 0.3%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국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문체부에서 0.3%가 말이 됩니까? 올려 달라고 한번 의원실을 찾았다니면서 말씀이라도 해 보셨어요? 삭감시키면 삭감시키는 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가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문체부 국장의 입장에서 다 해 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현장에서 학부모들 95.7%가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 예산 141억 원 보장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중복 사업이라고 또 빼앗겼어요. 왜 존재해야 됩니까, 다 빼앗길 거면? 문체부 왜 존재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올해 예산 증액을 축계 한 부분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임오경 위원 아니, 있는 예산 411억 우리 생활체육 예산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내려주고 무슨 사과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문체부에서 국민 건강 책임진다, 이게 답변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로잔사무소 사진 하나 띄워 줘 봐요.

여기 개소식에 작년 4월 23일 날 우리 유승민 회장도 참석했네요.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임오경 위원 불과 1년 4개월 만에 지난 8월 31일 폐쇄됐어요, 인력은 철수했고.

회장님, 이것 왜 폐쇄된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이것 관련해 가지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글로벌 선두 주자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설득을 했는데 이게 설득이 잘 안 돼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회장님 답변이 그렇게 답변을 늘어놓으시면 안 되고, 솔직하게 이기홍 회장 때문에 폐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 유인촌 장관과 전 체육회 이기홍 회장과의 전쟁 속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아서 폐쇄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 회장으로 역임해서 이 예산을 살려 보려고 하니까 절차·과정이 또 문체부 입장에서는 다시 살리자니 의원들한테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체육 예산이……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임오경 위원 무슨 동네 놀이도 아니고 장난하는 겁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부터 한 질의 못 들으셨어요? 2036년 전주 올림픽 되든 안 되든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국제 외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체부에서 적극 나서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임오경 위원 또 있습니다.

이것 장흥에 지어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장흥시에다가 인재개발원 지었어요? 이것 체육인을 위한 유일한 공공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1년 넘게.

강수상 국장님, 책임지고 예산 확보하십시오.

이것 이기홍 회장이 예산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 한번 다 찾아봤어요. 2019년에 차관이 그랬더라고요, 차관이. 공공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에 어떻게 문체부에서 지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인재개발 50억, 수자원공사에 50억 지원하고 있고 모든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 PT 나오고 있네, 국비로 건립된 공공기관 건물을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 하나 없이 운영하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봐요. 할 수 있어요, 강수상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원래 그것 운영비 없이 짓는 걸로 일단 확약이 돼서 예산이 지원이 됐었고요.

○임오경 위원 그게 다시 말하지만 2019년에 차관이 한 말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실제 운영비는 못 넣지만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일차적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각종 체육 관련 훈련을 장흥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 유치함으로써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금 체육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체육계에서 비리·횡령들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인재개발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장흥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오경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반영돼 있는 게 10.5억이 반영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증인분들 들어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유승민 회장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실은 지금 들어온 분이나 20년 있는 베테랑이나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서 문체부에서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걸 두기로 했습니다. 강 국장님,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그 장기근속수당이 5만 원에서 14만 원밖에 안 되지요, 차이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금액은 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봉책이지요, 잠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호봉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체육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강국장님도 이 부분을 지역의 바닥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부산의 어디는 사무국장들 26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지도자들은 앞으로 호봉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체육회하고 문체부에서.

그리고 각 시군구의 사무국장들의 봉급이 천차만별이에요. 600만 원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600만 원.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무조건 100만 원씩 내려보내면 자자체에서 대는 것 아니에요? 자자체가 완전히 천양지차로 대는 거예요. 이것 그냥 놔둡니까? 어디 체육회 사무국장은 860만 원 받고 어디 260만 원 받고 이것 되겠어요, 같은 일 하는데? 이게 동기부여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체육지도자들하고 각 시군구의 체육회 사무국장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국민 생활체육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것 그냥 정부에서 내버려두고 체육회도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600만 원 차이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한선을 좀 두고, 자자체에서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좀 더 대든가 이렇게 해서 하한선은 대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나머지는 자자체에서 더 내는 데는 내더라도 이것 편차를 좀 줄여 줘야 되지 않겠어요? 차이가 너무 심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기업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띠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육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를 찾아다니면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용역 나가 있지요? 연구 용역 나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위원장 김교홍** 이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이것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자체랑 저희가 다 협의를 좀 해서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지금 상한선을 깎으면 안 돼, 하한선을 끌어올려서 상한선하고 편차를 되도록이면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위원장 김교홍 이것 나중에, 이분들 불만이 많아. 체육 활동이 안 돼요, 생활체육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장기근속수당은 국장님 얘기대로 미미한 거니까 이건 나중에 호봉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걸 꼭 해 주세요.

그다음에 유승민 회장님, 지금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것 철거해야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전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자체에 공모를 해서 7개 지자체가 거기에 응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회까지 다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현장까지 갔다 왔거든? 그런데 그 뒤에 그냥 묵묵부답이야. 그러면 지자체장이나 그 지자체에 소속된 우리 국민들을 희망고문하는 거예요, 희망고문. 지금도 각 지역에서는 자기네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체육회 이것 갖고 뭐 하는 것 있어요? 하고 있냐고.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결국에는 문화유산 등재되는 바람에, 이게 27년까지 원래는 철거 예정이었다가 얼마 전에 유네스코 방문단이 와서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언젠가는 이것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태릉선수촌을 쓸 수 있는 만큼은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요. 이게 사실은 작년 국감 때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스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7개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지금 문제부랑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이게 강 국장님 소관이에요, 최 국장님 소관이에요? 누구 소관이에요? 강 국장님 소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위원장 김교홍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까지 철거 예정이었는데요. 올해 3월에 유네스코 실사단이 다녀갔었습니다. 이 실사단이 다 점검을 하면서 27년까지 철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26년 12월까지 새로운 철거·이전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계랑 같이 26년 12월 이전에 철거와 이전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왜 유승민 회장은 장기적으로 늦춰졌다고 말씀하세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닙니다.

○위원장 김교홍 유승민 회장은 모르고 있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이게 철거 계획을……

○위원장 김교홍 철거가 장기적으로 지연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철거 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는 거지 그 철거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27년까지 철거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게 미뤄지면서 사실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철거가 장기적으로 지연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 위원장 김교홍 그게 아니라 26년까지 철거 계획을 지금 정리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계획안을 만들어서 26년까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하라고.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강국장, 지금 문체부에서는 이것 입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문체부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실제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 인데요.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 부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주무부처가 어디예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문체부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문체부에서 이것 공모받아서 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그 부분도 주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 정리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무슨 행정이 바로 전임자 때는 이것 한다고 7개 공모 다 해서 곤 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무기한으로 연장해 버리면 이것 되겠냐고, 어차피 옮겨야 되는 것 아니예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 위원장 김교홍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그 안의 지하를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도 돼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그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없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예.

○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누구는 또 지하를 사용해도 된다고 체육회에서 누가 얘기하던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이전에 당시에 그런 내용까지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하여간 체육회하고 문체부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 빨리 정리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은 강태영 대한근대5종연맹 대외협력관, 맹호승 대한철인3종협회장,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박세우 대한빙상경기연맹 전무이사, 이태성 대한탁구협회 회장, 정해천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 총 7명으로,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김홍식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상근부회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수경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은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인은 비공개 참고인과 최은종 경기도청 근대5종 감독 등 총 2명이 출석하셨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형배 위원께서 신청하신 강태영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강태영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손솔 위원께서 신청하신 맹호승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맹호승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세요.

다음, 김승수 위원께서 신청하신 문진희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문진희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께서 신청하신 박근찬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박근찬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세요.

다음, 양문석 위원, 진종오 위원, 손솔 위원께서 신청하신 박세우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박세우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십시오.

다음, 조은희 위원께서 신청하신 이태성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태성 예.

○위원장 김교홍 다음, 조은희 위원께서 신청하신 정해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정해천 예.

○위원장 김교홍 다음, 양문석 위원께서 신청하신 가림막 안의 참고인은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000 예.

○위원장 김교홍 마지막으로 민형배 위원께서 신청하신 최은종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최은종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강태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태영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태영**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증인 강태영

증인 맹호승

증인 문진희

증인 박근찬

증인 박세우

증인 이태성

증인 정해천



○**위원장 김교홍**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종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김교홍** 진종오 위원님.

○**진종오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전에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17개 시도를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데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수경 회장 불출석사유서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출석사유서 내용을 보면 공식적인 일정이라 보기 어렵고 사유 또한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빙상연맹에서 연이어 발생한 비위, 허위자료 제출 등 중대한 사안을 감안하면 이 회장의 출석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설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우습게 여기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양사 간에 민감한 비밀이나 계약사항이 있다면 최소 우리 양당 간사가 열람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근거는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것조차 없이 그저 그냥 비공개 사유만 내세우는 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 빙상연맹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하셔서 이 사안은 좀 명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수경 회장이 끝내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실관계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빙상연맹의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결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께 단호한 결정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하여튼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간은 5분이고요. 그 뒤에 추가질의까지 3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이니까 더, 9분에다가 3분 하면 12분을 쓸 수 있어요.

○양문석 위원 그리고 대부분 1분씩 더 주지 않나요?

○위원장 김교홍 예, 1분씩 더 드려요.

아니, 그러면 이 3개 항목, 3개 시간대에 1분씩 하면 3분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합쳐서 1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너무 불공평해.

○양문석 위원 제가 가장 긴장하고 질문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사건이 2개인데요. 한 사건은 피해자가 나와서 지금 가림막 안에 계시고 해서 제가 이제까지 질의하면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날이라서 우리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답변을 조금 많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4분, 5분, 3분에 한 1분씩 더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상해, 임신을 우려해서 배를 걷어차고 샤워기 출로 목을 감고 쇠파이프로 폭행을 행하고……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즉 지도자와 코치, 성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이러한 폭력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는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지금 대학에서 코치를 하고 있고 태릉 빙상장에서 개인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7년 동안 정신과 입원만 수백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 전에 가해자 피겨스케이팅 최근원 코치를 태릉 스케이트장에서 우연히 목격하고 우리 피해자가 흉기로 죄 씨를 피습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피의자로 전락되고 체포됐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들을 지금부터 저의 질의를 통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선수 시절에 지도자에게 경기 출전과 진로가 사실상 좌우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종속 구조, 경험했던 그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000 사실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 진로 및 성과를 위하여 코치와 감독의 말을 들어야 하는 구조였고요.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체벌이라는 프레임을 써워 폭력과 폭언을 당연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루밍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공론화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양문석 위원** 지도자한테 눈 밖에 나면 진학, 출전, 평가 이 부분 상당히 어렵지요? 그리고 경기 기회가 박탈되지요? 그리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절이 거의 불가능한 분위기지요?

○**참고인 000** 예.

○**양문석 위원** 당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 그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000** 티를 내거나 말을 하게 되면 폭행이 더 심해지기도 하였고 성폭행 보복 압박감과 저는 나 혼자 참으면 된다는 생각과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며 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더욱 이 권력을 사용하여 아무렇지 않게 가해자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지도자는 영구제명으로 발을 다시는 들여서는 안 된다고 체육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위원** 신고를 하면 선수생활이 끝난다고 실제로 느꼈습니까?

○**참고인 000** 그것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만 참으면 된다 하고…… 죽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 가지고……

○**양문석 위원** 자살지도도 몇 차례 하셨지요?

○**참고인 000** 예.

○**양문석 위원** 내부 분위기가 낙인, 보복 우려, 이런 일상에 있어서의 위협들이 끊임없이 오면서 이러한 폭행과 폭행에 대한 상해까지 있었는데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말할 수 없다라는 압박이 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고인 000** 어느 정도 조직이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 선뜻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기도 했고 아무래도 보복이 두렵다 보니까 혼자 감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스피드스케이팅 최근원 코치가 가해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참고인 000** 사실 제 사건 이후로 영구제명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거기 안에서는 좀 눈감아 주는 식으로 해서 다시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아이들을 폭행한다는 소문과 그런 얘기들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러한 폭행과 상해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고인 000** 거의 10년 정도 우울증이 좀 심했었고 자살시도도 많이 하고 피폐해진 정신과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양문석 위원** 제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좌절감, 무슨 뜻입니까?

○**참고인 000** 아무래도 그 안에가 사각지대이기도 하고 신고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공론화되기가 확실히 어려워서 그냥 그저 혼자 참으면 되지 그 마음이 제일……

○**양문석 위원** 혼자 참으면 되지, 혼자 참으면 되지 하다가 스피드스케이팅 최근원을 보면서 갑자기 우리 피해자가 흥기를 휘둘렀어요. 그게 일시적으로 폭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000** ……

○양문석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 주셔서 중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체육회장님, 제가 오전에 왜 성폭력 예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체육회 회장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가해자 김아영 코치, 국가대표 피겨선수, 지도 경력 2023년 대구시장상 수상.

김아영 코치는 11살에서부터 15살까지 아동을 학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가 천식치료기 네뷸라이저를 사용을 못하게 하고 정신력으로 이겨 내라, 화장실에 데려가서 목을 조르고 입에 피겨스케이팅 가위날을 집어넣고 입을 자르겠다, 그다음에 점프 잘못하면 다른 아이들 보고 있는데 상의를 벗겼고 그리고 심지어 하의까지 발가벗겨서 학대를 했습니다.

주먹질, 발길질은 기본이고요. 줄넘기 이단뛰기 1000개를 지시하기도 했고요. 손톱으로 배 살점을 잡아 뜯기도 했습니다. 피겨스케이트 날집으로 하루에 300대 이상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화장실 문도 닫지 못하게 하고 10초 안에 용변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죽어라, 네가 죽으면 너희 엄마한테 천식으로 죽었다고 말하면 돼’, ‘엄마한테 말하면 혀바닥 자른다, 죽일 거다’, ‘선생님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지’,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부모님께 말하면 손가락, 발가락 가위로 하나씩 잘라 버린다’, ‘피겨 그만두거나 도망치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여기에 대해서 김아영은 피해자 어머니와의 녹취록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립니다. ‘그러면 때린 건 맞나요?’ 김아영, ‘때린 거 맞아요’. ‘발로 차고 그런 거 맞나요?’,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빙상연맹 박세우 사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 피해자는 11살부터 15살까지 이런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박세우 예.

○양문석 위원 어떻게 징계했나요?

○증인 박세우 저희 연맹에서도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4월 달에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청이 있어서 들여다보다가……

○양문석 위원 징계를 했나요?

○증인 박세우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빙상경기연맹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금 당사자들이 소송 중이고 그 소송이 끝나는 걸 지켜보고 대구시 연맹에서 징계를, 공정위를 열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문석 위원 우선 징계권이라고 아시지요, 우선 징계권?

○증인 박세우 예.

○양문석 위원 왜 우선 징계권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증인 박세우 그거는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구 연맹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양문석 위원 대구 연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면합의를 시도했지요?

○증인 박세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대구연맹 회장이 김아영 코치와 함께 합의해라라고 종용했지요?

○증인 박세우 예, 권유하는 과정에서 같이 했다고, 자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딸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 합의하라고 하면 그게 권유예요, 종용이에요?

○증인 박세우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종용해서는 안되겠……

○양문석 위원 사실이라면요?

○증인 박세우 예.

○양문석 위원 김아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맞다고 이야기한 녹취록 방금 제가 읽어드렸지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빙상연맹이 계속해서 뭉갰고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1심이고 내부적으로 사실상 2심인 대구체육회가 뭉갰고 이 와중에 대구 빙상연맹 회장은 피해자를 보고 회장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했던 사건 맞지요?

○증인 박세우 예. 화해를 권고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다시 한번 역지사지해 보세요. 이게 화해가 될 일입니까? 11살 때부터 15살까지 그렇게 죽으라고 때리고 니 죽으면 너희 엄마한테 천식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일러 주면 너 죽는 줄 알아라.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 버리겠다 했던 이런 모든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위한 자리를 만든다는 게 정상입니까? 징계를 주고 두 번 다시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증인 박세우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이 그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만든 자리에서 회장을 호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어떻게 그렇게 편리한 증언만 듣고 다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범죄행위가 일상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어른들이 은폐하고 자기들끼리 짐짜미해서 봐주고. 그리고 이 범죄자가 아직도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고 징계는 안 주고, 그게 지금 빙상연맹이 하는 일 아니에요?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시지요. 너무 많이 쓰셨어요.

○양문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요, 질의하면서 처음으로 떨어 봐요. 손이 떨리고 말이 떨려요. 그리고 빙산연맹, 대구 빙산연맹 그리고 그 코치, 그들의 행태가 정말 떨립니다. 치가 떨리는 게 아니고요 몸이 그냥 떨려요.

체육회장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도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지에 대해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취임하고 3월 달부터 스포츠공정위 관련 정관을 여섯 차례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체육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이런 비위행위들에 대해서 이번 제 임기 동안에 뿌리를 뽑아 봐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갖고 그렇

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양문석 위원** 회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최근원 영구 제명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아영 영구 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 빙상연맹 김상윤 회장 중징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대한체육회가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민 회장님,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폭력이라든가 성비위 선수들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탁구협회가 7%밖에 안 돼요. 탁구협회가 제일 끌찌야. 그리고 전체 이수 통계는 39%, 그 중에 탁구협회가 7%예요, 회장님.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증언하고 한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기 비공개로.

이거 제가 보기에도 이 성폭력, 폭력 저지를 분들 지도자에서도 원천 배제시켜야 됩니다. 아예 그걸 본보기로 하세요, 본보기로. 제가 보기엔 꽤 많은 것 같아, 비일비재하게,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선수와 지도자 관계가 완전히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에 잘 안 나와요, 이 발언들이. 그걸 이용해서 성폭력하고 또 심하게 과도하게 폭력하고 이런 것들을, 체육회에서 자정 선언 백번 하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을 한두 건을 잡아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하게 하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최고의, 강력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방안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저도 추가 3분 같이 합쳐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8분 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유승민, 회장님 또다시 빙상 얘기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이수경 회장 나와야겠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진종오 위원** 국가대표 지도자 비위 사건 그리고 연맹에서의 허위 자료제출, 체육회 관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시간이 없으므로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김현곤 코치랑 대화한 내용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진종오 위원 이 문자 내용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진종오 위원 연맹에서 하도 이상하게 일을 하니까 체육회장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유승민 회장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바빴다라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 말씀드릴게요.

쇼트트랙 월드투어 가서 국제대회에 참가했을 때 대표팀 지도자가 미승인 영수증 3건을 제출해서 총 73만 원 정도 금액이 김현곤 지도자 계좌로 입금돼서 이것 부정회계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핵심의 인물인 윤재명 감독은 1개월 자격정지, 김현곤 코치는 3개월을 받았어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영수증 제출자는 감독인데 비용 수령자는 코치라는 거지요. 그런데 영수증 제출 과정도 이상해요. 그런데 또 연맹에서는 겸증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거 추가로 또 얘기해 드릴 건데 저희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연맹이 9월 15일 날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어요. 허위 자료제출한 거 보시면 이게 해당 내용 진위 확인하니까 이수경 회장하고 연맹 소속의 김가람 변호사 그리고 장국환 부회장이 와 가지고 ‘사무처에서 잘못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하고 직접 본 의원실을 찾아와 사과를 했어요. 여기 문제 보면 이 모든 서류들의 대부분 결재 라인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박세우 전무이사입니다. 박세우 전무이사가 또 여기서 나와요.

회장님, 체육회 산하단체예요, 연맹이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연맹 회장은 몰랐다고 와서 사과하면 끝나는 겁니까?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거는 연맹이 체육회도 무시하는 건데 국회까지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는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체육회에서도 어떠한 행정적 조치가 없었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희가 권고는 몇 차례 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냥 권고만 했어요? 이게 보면 연맹이 국회를 기만했는데 체육회도 기만한 상황을 보면 체육회가 연맹 감싸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또 하나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빙상연맹 김선태 감독을 입촌 취소하라는 문서를 보냈어요.

다음 자료 띄워 주세요.

10월 1일 연맹 질의에 대해서 체육회 종목육성부가 징계 이력이 있어도 임원 자격 유지 여부는 연맹 자율 판단이라고 공식적으로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연맹에 있는 부회장께서 김선태 이사 유선으로 사임을 권유를 했는데 김선태 이사가 거부하고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법원에 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회장님, 연맹 자율 판단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자체 결정?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 연맹에서 그냥 자체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범죄가 있건 없건?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장님이 좀 책임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

까. 왜? 빙상연맹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체육회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도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 감싸는 것 같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박세우 전무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전무님, 앞서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 빙상연맹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증인 박세우 예, 그 부분은 제가.....

○진종오 위원 지금 전무님 빙상연맹의 실무 책임자 맞으시지요?

○증인 박세우 예.

○진종오 위원 아까 허위사실 보낸 것도 전무님 결재하신 거 맞으시지요?

○증인 박세우 제가 문서를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진종오 위원 인사·정계·행정 문서 다 총괄하시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세우 예, 제가 하지만 어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김현곤 코치 복귀 왜 못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카드를 쓰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복귀를 했고 그냥 영수증 제출한 사람은 복귀를 못 했어요.

○증인 박세우 설명드려도 될까요?

○진종오 위원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요? 모르세요?

○증인 박세우 지금 약간 좀 다른 부분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진종오 위원 다른 부분..... 아니, 지금 사건이 엄청.....

○증인 박세우 이 사건은 전 집행부에서 감독이 영수증을 부당 청구한 김현곤 지도자를 내부적으로 신고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진종오 위원 부당 청구라고요? 이거 자세히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 좀 계속할게요. 일단 그거는 추후에 답변 들을게요.

김현곤 코치가 복귀를 못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사회 회의록 보면 김현곤 코치는 폭행 의혹이 있고 선수 불화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공정위나 인사위 안건이 아니었는데 인사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증거가 부족하다.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을 했는데도 징계를 강행했어요. 그것 박세우 전무님 계실 때 한 거 맞지요?

○증인 박세우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모른다고요?

○증인 박세우 지금 영수증 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종오 위원 지금 영수증 건 얘기했잖아요.

○증인 박세우 일어난 시기는 전 집행부에서 일어난.....

○진종오 위원 아니, 일어난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페이지도 말씀드릴게요. 어떤 위원이 김현곤 지도자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위원은 해임 사유로 볼 만큼 증거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위원들 중 해임이 부정적인 입장인 거지요, 이렇게만 얘기한 거 들

어 봐도?

○증인 박세우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당사자한테 소명 들었어요?

○증인 박세우 공정위를 통해서 입장을……

○진종오 위원 아니, 공정위에서 들은 것 말고……

○증인 박세우 인사위에서도 저희들이 입장을 들었는데요. 들으려고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오셔 가지고 가져온 인용이 된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질문을 거부하셨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증거 부족이다, 소명 미비라고 하고 제대로 안 듣고 그냥 징계 결론만 낸 것 맞지요?

○증인 박세우 징계 결론은 어떻게 제가 지금 기억을……

○진종오 위원 지금 일단은 복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인 박세우 그건 다른 건입니다.

○진종오 위원 뭐가 다른 건인데요?

○증인 박세우 복귀를 못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영수증 건으로 해임된 게 아닙니다. 선수들과의 불화 문제, 지도자……

○진종오 위원 선수들의 불화 그거 이의 제기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증인 박세우 예.

○진종오 위원 그리고 8월 20일 3차 이사회에서 증인을 비롯해서 이수경 회장 그리고 김선태 이사 등 16명이 참석을 했어요.

8월 20일 3차 이사회 기억하세요?

○증인 박세우 예.

○진종오 위원 임원 한 분이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절차라는 게 있는데 공정위를 거쳐야 된다. 이사회가 임의로 할 수 없다’ 이 말 기억 나세요?

○증인 박세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진종오 위원 기억 안 나세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 보니 공정위 절차 없이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절차가 없이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했다라는 것은 절차 무시 맞아요, 아니에요?

○증인 박세우 저희들은 경향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 공정위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공정위가 그러면 더 위의 절차, 위의 기관이 아니에요?

이사회가 먼저예요, 공정위가 먼저예요?

○증인 박세우 저희는 이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이사회가 먼저예요?

유승민 회장님, 공정위가 먼저입니까, 이사회가 먼저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공정위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상무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박세우 ……

○진종오 위원 김선태 이사 관련해서 얘기드릴게요.

시간 다 됐어요, 벌써? 얼마 안 됐는데……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릴게요.

○진종오 위원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교홍 그래요?

○진종오 위원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조금만……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추가질의까지 쓰세요, 3분.

○진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아까 양문석 위원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진종오 위원 김선태 이사 관련해서 얘기드릴게요.

10월 10일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박세우 예.

○진종오 위원 가처분 신청을 한 게…… 김선태 이사의 논란의 요지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김선태 이사의 과거 행적.

○증인 박세우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알고 있는데, 김선태 이사가 연맹에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사로서도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명분이 뭐냐면 지금 선수단 사기 저하가 조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무님, 김선태 이사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세우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규정을 보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임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세우 결격사유가 있다면 임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진종오 위원 없는 것 맞지요? 직접 얘기하셨어요.

○증인 박세우 예.

○진종오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빙상연맹 하는 것 보면 특정 누구를 몰아내기 위해서 다 같이 결합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증인 박세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종오 위원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증인 박세우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대표선수들의 얘기를 듣고 청취하고 그래서 일이……

○진종오 위원 대표선수들 얘기 들었을 때 특정인들만 모아서 얘기 들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세우 특정인이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특정 선수들을……

○증인 박세우 올림픽 선수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요? 얘기해 보세요.

○증인 박세우 그래서 그 면담 내용을 저희들이 접했을 때 확인했을 때는 이 지도자들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과 올림픽을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해임을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김현곤 코치가 복귀 못 한 이유가 영수증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증인 박세우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진종오 위원 선수들과의 문제, 그런데 그게 제대로 경향위라든지 얘기가 됐어요? 공정위에서도 거론이 됐어요?

○증인 박세우 경향위에서도 충분히 다뤘습니다.

○진종오 위원 경향위에서 했는데 공정위에서는 올라가서 얘기가 됐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당해고 아니에요?

○증인 박세우 아직……

○진종오 위원 연맹이 정확한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지도자도 보호하고 선수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이사회에서 왜 자기들끼리 해서 하냐고요.

○증인 박세우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한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진종오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회에서 다른 위원들은 이것은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안 하신 것 맞지요?

○증인 박세우 ……

○진종오 위원 답변하기 쉽으세요?

○증인 박세우 아니, 저희들은……

○진종오 위원 이 자료가 다 있는데?

들어가세요.

유승민 회장님, 유승민 회장님도 그렇고 체육계에서 오래 있으셨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진종오 위원 물론 지금 대한체육을 총괄해서 진두지휘하는데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한 회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관련 사항 해서, 물론 종감 때까지 보고가 안 될 것 같아요. 종감 지나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의원실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3분 같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추가질의면 지금 이제……

○**손솔 위원** 제 앞의 4분, 뒤의 3분, 다 당겨서 12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2분?

○**손솔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쓰십시오.

○**손솔 위원** 박세우 전무이사님,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빙상연맹은 치외법권입니까?

○**증인 박세우** 아닙니다.

○**손솔 위원** 지켜야 되는 법적인 의무와 절차들이 있으시지요?

○**증인 박세우** 예.

○**손솔 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하셨을 때 시간을 살짝 뒤틀면서 본인 유리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수증 사건이 있었고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증인 박세우** 예.

○**손솔 위원** 본인이 결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수증 사건 관련해서 5월에 자격정지 결정을 하셨고요. 김현곤 코치가 이것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향위는 다시 열어서 계약해지랑 새 지도자 채용을 의결하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김현곤 코치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될 거다라고 통보하신 이후에 회의에서 성적 부진이랑 선수관리 소홀을 꺼내 들었어요.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되니까 이유를 바꾸신 거잖아요.

○**증인 박세우** 그렇지 않습니다.

○**손솔 위원** 그렇지 않아요?

○**증인 박세우** 예, 그 이야기……

○**손솔 위원** 대표단 의견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경향위에서 성적 부진이나 선수관리 소홀로 결정한 다음에 6월에 결정하신 건데 의견 들은 것은 8월입니다.

의견 들으러 간 사람 누구세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세요, 이인아 위원.

○**증인 박세우** 예, 맞습니다.

○**손솔 위원** 이 해지 의결에 다 관여했던 사람들이 성적 부진과 선수관리 소홀로 결정해 놓고 대표팀 면담해서 짜맞춘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수증으로 문제 제기 했다가 가처분 신청하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유 틀어 가지고 그 이후에 대표단 의견 들어서 이 경향위에 속하신 분이 대표단들 모아, 선수팀 모아서 그 지도자 문제 있지 않았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증인 박세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손솔 위원** 아니, 정황상 지금 과정이 다 그렇잖아요.

○**증인 박세우** 그 면담을 하러 간 경향위 위원이지만 그분은 변호사님이시고 일반인이

십니다. 그래서 그분……

○손솔 위원 경향위에서 같이 결정하셨잖아요.

○증인 박세우 예, 그래서 그분도 선수들의 의견을 더 확실히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혼자 가겠다, 빙상 관계자가 가면 안 된다, 그래야 공정성, 투명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손솔 위원 아니, 해임 의결 이미 하신 경향위 위원 소속이신데 그렇게 죽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됐잖아요?

○증인 박세우 예.

○손솔 위원 그리고 그전에 사실 체육회에서 재심 신청 당사자들이 했으니까 징계 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징계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임명한 그 과정이요, 원래 감독은 공개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김선태 임시 총감독으로 임명했다가 문제되니까 퇴촌시킨 거잖아요. 지금 내년 동계올림픽 앞두고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제가 대표단 면담한 것 봤어요. 지도자 관련해서 질문 4개 하시고 마지막에 선수들한테 뭐가 더 필요하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리하신 대로 ‘선수들이 그 지도를 싫어한다’ 이것만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건 못 느끼셨어요?

지금 이것 보시면, 제가 다 봤는데 선수들이 빙상연맹에서 감독·코치 자르고 김선태 꽂으려다가 안 되고 하니까 이 공백과 눈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년 시합 앞두고 어떻게든 이 공백을 메꿔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지원을 제대로 해 달라, 1인 1실 필요하고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증인 박세우 말씀드릴까요?

○손솔 위원 지금 2월, 6월, 8월, 10월 이 시간 동안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빙상 연맹이?

○증인 박세우 ……

○손솔 위원 지금 법원 말 안 들었고요, 체육회 말 안 들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하지 말라고 권고조치 왔고 9월 29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 안 하셨어요.

○증인 박세우 그건 저희 전임 노무사님이 지금……

○손솔 위원 답변 안 하셨다고요.

○증인 박세우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고용노동청에서 연맹에 보냈지 않습니까? 노동청도 무시하셨지요? 자체 절차도 무시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절차 지킨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외법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박세우 가처분 신청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복귀시키지 않은 이유는 선수들……

○손솔 위원 그건 별건으로 다른 이유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박세우 예, 맞습니다. 그걸로 해임 조치한 것입니다.

○손솔 위원 결국에는 사람 찍어 누르려고 이유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요.

체육회 회장님, 이것 지금 올림픽 앞두고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00여 일 앞둔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수들의 충격이 없도록 체육회 차원에서도 신경 쓰고 있고요.

다만 빙상연맹의 입장과 또 지도자의 입장이 상이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최근의 법원 판결도 나와서 저희는……

○**손솔 위원** 법원 판결은 징계효력정지랑 간접……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강제……

○**손솔 위원** 강제 조치잖아요.

그거 별건인 거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손솔 위원**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 섞으시면 안 됩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손솔 위원** 징계는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손솔 위원**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외부감사, 특별감사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손솔 위원** 지금 선수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선수들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연맹에서 지금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증인 박세우** 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손솔 위원** 짧게 하십시오.

○**증인 박세우** 선수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으셨는데 그러면 혹시 선수들의 얘기 를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선수를 혹시 만나 본 적 있으십니까?

○**손솔 위원**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대표팀 면담 결과 보고 제가 의견 드리는 거예요.

○**증인 박세우** 저는 지금도 선수들한테 계속 소통하고……

○**손솔 위원** 연맹에서 수개월째 여기 사람 찍어 내는 데 시간과 돈 들이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증인 박세우** 짧게 한마디 저 드리겠습니다.

○**손솔 위원** 들어가십시오.

철인3종협회 회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회장님, 최근에 여러 예능에서 철인3종대회 다뤄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철인3종협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의혹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횡령, 배임 정황이 포착된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보시면 이게 6월 26일에 지급된 2025 아이언맨 70.3 고성대회 운반비 내역입니다.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보시면요 (주)창영에 1100만 원 상당의 운반비가 지급됐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제가 이 창영이 어디인지 찾아봤는데 여기는 소매업, 서비스업, 의복, 액세서리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보시면 이 회사는 방구석상점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운반비로 1100만 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증빙서로 제출한 사진을 보면 운반차량에 주평종합물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성대회뿐만 아니라 최근 거북섬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주평소속 차량이 물류를 운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엄청 짧은 영상인데요, 지금 바로 볼 수는 없는데 주평물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평종합물류, 회장님의 대표이사 아닙니까?

○증인 맹호승 예, 제 소유 회사입니다.

○손솔 위원 실제 대회 물품은 주평에서 하고 운반비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창영으로 지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맹호승 제가 회장을 하면서, 그 전에 제가 하기 전에 전임자들이 지금까지 우리체육회 철인3종 시합하려면……

○손솔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 창영의 현내나 대표와 어떤 관계세요?

○증인 맹호승 우리 직원의 딸입니다.

○손솔 위원 직원의 딸이에요?

○증인 맹호승 직원의 딸 회사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또 맹호승이 앞으로 운송을 해서 제가 사업자를 내면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를까 봐 제가 소개만 하고 너네 회사로 해라, 차는 내 차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손솔 위원 그 1100만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맹호승 운송료 받아서 제가 입금을 받았지요.

○손솔 위원 주평이 받으셨다고요?

○증인 맹호승 거기로 들어온 것을 저한테 입금을……

○손솔 위원 직원의 딸이 운영하는 창영에게 운반비를 내서 회장님의 대표이사인 주평으로 돈을 넘기셨다고요?

○증인 맹호승 예,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저는 분명하게 횡령과 배임 정황이라고 보입니다. 체육회 들으셨지요? 문체부 들으셨지요? 이것 감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이 있어서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비리 관련된 것은 명백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의 딸의 회사고 주평에서 돈을 받으셨다’.

철인3종협회에서 미성년 성폭력 사건이 있었지요?

○증인 맹호승 예.

○손솔 위원 제가 8월에도 기자회견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협회의 성폭력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철인3종협회에서 관련된 입장문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합숙사건 관련으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입장문에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당사자들이 교제 관계였다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교제 관계고 교제 관계는 종결됐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교제 관계와 상관없이 성폭력은 성폭력인 거예요.

그런데 협회의 입장서에 합숙 전부터 교제 관계였다,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그렇게 쓰셨고요. 또 성폭력 사건으로 안 보시고 합숙 사건으로 하셨고요. 그래서 가해자·피해자에게도 정계 처분을 하셨어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후에 협회에서 하시겠다는 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하고 합숙할 때 건물을 분리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층 분리했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합숙할 때?

○**증인 맹호승** 층은 분리가 돼 있는 상태였었지요.

○**손솔 위원** 층 분리 안 돼 있었어요, 이 사건.

○**증인 맹호승** 2층, 3층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손솔 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셔야지요. 한두 방 건너서 있었어요. 원래 하기로 했던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예방 조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집행하셨나요?

○**증인 맹호승** 예, 지금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지금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좀 더 그걸 지켜본 다음에, 직원 일부는 정계를 지금 일단 줬습니다.

○**손솔 위원** 피해자가 여기 스공위에서 조사할 때도 강압적이었다, 끌려갔다……

시간 더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없습니다.

○**손솔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한 2분 더 쓰세요.

○**손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공위에서도 피해자가 강압적이었다고 했는데 스공위에서는 ‘강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셨고요. 여기 불법 촬영 관련된 것도 있는 것 아시지요?

○**증인 맹호승** 예.

○**손솔 위원** 불법 촬영 유포도 있어요. 그런데 스공위의 일부 위원들은 ‘아들 키우는 부모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상담센터 가고 한 것 다 피해자가 스스로 했습니다.

○**증인 맹호승** 협회에서 저걸 했다고 저는 보고받았는데요. 협회에서 전문 치료사들을 다 정해서 경비 다 지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솔 위원** 청소년 성폭력 예방 기관 피해자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진행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협회에서 부실 대응해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똑바로 조치 취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체육회와 문체부에서도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여야 됩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맹호승 증인은 성폭력 있을 때 회장을 했습니까?

○증인 맹호승 저 취임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만 저도 회장으로서……

○위원장 김교홍 전의 일입니까? 그래도 이것 제대로 해결해 주세요.

○증인 맹호승 예.

○위원장 김교홍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 다 들으셨잖아요.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 이것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맹호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

○양문석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예.

○양문석 위원 저의 질의 그다음에 진종오 위원의 질의, 손솔 위원의 질의, 대한빙상연맹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2월 6일부터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을 관리 단체로 지정을 해서, 빙상연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운영의 권한을 체육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관리 단체 지정을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간사님들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증인 문진희 축구협회 심판위원장 나와 주세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음 영상.

(영상자료 상영)

유승민 회장님, 앞의 두 영상 폐널티킥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는 축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문진희 심판위원장님, 21년·22년 심판위원장 하셨고 또 25년 다시 심판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축구 심판계의 대통령으로까지 불리는데 저것 앞서 경기 폐널티킥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증인 문진희 지금 현재 K1에는 12명의 주심이 있고요.

○김승수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문진희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판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저게?

○증인 문진희 다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증인 문진희 예.

○김승수 위원 지금 심판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심이 날로 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2건뿐만 아니고 오심이 연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축구 경기, 프로축구 K1 경기가 주간 경기를 라운드로 하는데 한 라운드에 무려 4개가 오심으로 확정된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오심으로 확정 안 된 경우에도 오심으로 볼 수 있는 경미한 것은 몇 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오심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구팬들이 심판들에 대한 불신, 불만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 아십니까?

○**증인 문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한가한 소리가 나옵니까? 탁구 하신 유승민 회장까지도 이 정도 같으면 폐널티킥으로 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년간, 수십년간 심판한 사람들이 이게 애매한 상황이라는 겁니까? 지금 그따위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서?

○**증인 문진희** 애매한 상황이라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희 폐널회의에서는 이걸 오심으로 말씀드렸고 해당 심판은 주관적인 생각으로 봤다고도 봤습니다.

○**김승수 위원** 해당 심판 어떤 징계 받았습니까? 앞서 부천하고 충남 심판 어떤 징계 받았습니까?

○**증인 문진희** 올해……

○**김승수 위원** 교육 후에 아무런 경기 배제 조치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영뚱하게 그냥 해당 팀만 억울한 상황을 당한 겁니다. 그 뒤에 명백하게 발로 밟은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이 정도 같으면 VAR 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면 감독이 VAR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데 축구는 심판들이 뭐 진짜 신성 불가침인지 심판 이외에는 그런 비디오 판독조차 못 합니다. 오심해서 한 번 구단을 죽이고 비디오 판독조차도 안 해 가지고 두 번 죽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선수들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비디오 판독도 안 하고 항의한 감독한테 엘로카드를 줬습니다. 그 뒤에 상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감독이 위낙 억울하니까 페이스북에, 심각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폐널티킥도 안 주고 비디오 판독도 안 하고 항의도 못 하게 한다’ 이 정도 올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문진희** 상별위원회는 K리그 연맹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심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이것 항의한 게, 항의한 감독이 부당한 겁니까? 부당해서 제재금 300만 원이나 부과합니까?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심판은 잘못을, 명백한 오류가 있는 그런 심판 판정을 했는데 왜 그러면 감독은 이런 명백한 불공정한 판정에 대해서 입 꾸 닫고 있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심판위원장이 안이하게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이게 보면 오심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오심 건수를 보면 전체 28건에서 올해 79건으로 182%나 증가했습니다. K1 리그만 보더라도 작년에 8건이었는데 올해 3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심판위원회, 제대로 심판의 역량 개선 안 하고 축구팬들이 위낙 오심이 많이 발생하니까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정 그런 기회가 더 많이 확대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심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3분 더 쓰겠습니다. 3분 당겨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김승수 위원 이런 데 대해서 축구팬들의 그런 들끓는 여론 좀 보십시오. 징계 먹어야 될 심판들은 징계를 안 받고 오히려 엉뚱하게 그런 감독들이 심판을 받고 이렇게 명백한 오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징계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도 보면 한 경기 배제가 대부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지요. 제대로 판정을 못 하는 심판들, 반복한 심판들 아예 배제를 시키거나 강등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등시킨, 배제시킨 심판 최근 5년 동안 몇 명 있습니까?

○증인 문진희 최근 5년의 자료는 봐야 알겠지만요. 당해 연도에는 지금 K1에서 K2로 강등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퇴출시킨 심판 있습니까?

○증인 문진희 예,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몇 명 퇴출시켰습니까?

○증인 문진희 해마다 저희는 상위 빼고 20%씩 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지금 한술 더 뜨는 것은 심지어는 해설위원들이 모인 단체 SNS 방에다가 프로축구 자회사인 스카이스포츠 제작진 PD가 해설위원들의, 중계진들의 그런 심판 판정에 대한 코멘트를 자제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입틀막 문자까지 보냅니다. 이런 횡포, 이런 슈퍼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해설위원들이 축구에 대한 문외한들입니다? 영상까지 보면서 그대로 판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판정을 하니까 중계에서 코멘트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 조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 판정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잘해야지요. 판정을 잘해야지. 이런 일이 안 나와야지요.

그리고 문진희 심판위원장에 대해서는 21년, 22년 위원장 하실 때, 그때 심판위원회에서 승급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K4에서 2 이렇게 거쳐서 승급을 시키는데 이례적으로 K4에서 K3를 건너뛰어 가지고 K2로 승진시킨 사례가 딱 한 차례 여자 심판 둘만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문진희 예,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증인 문진희 23년도에 호주·뉴질랜드 월드컵에 저희 국제심판 둘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문진희 위원장의 독주입니다. 이미 답정너 형식으로 여성 심판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 가지고 별도 편성, 별도 교육, 체력 측정도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아예 그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굿고 특히 여성 대상자는 이름까지 바로 제시를 해 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승급된 여성 심판 요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명이 이례적으로 K2리그 자격 심판인데 K1리그의 게임 배정을 많이 받습니다. 24년과 25년 비교를 해 보면 25년도에 게임 배정받은 것이 갑자기 2배 가까이 뛵니다. 차이는 그전에는 심판위원장이 다른 분이었고 25년도에는 지금 앞에 계시는 증인이 심판위원

장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심판위원장이 여성 심판 중에 어떤 분하고 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문진희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때 위원장 시절에 또 한 심판은 올해의 심판상도 줬었지요. 그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SNS의 사적인 대화까지 이렇게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보면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다 해 줄게’, 도저히 이거 심판위원장과 심판과의 SNS라고, 대화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워딩들이, 그런 대화들이 나옵니다. 여기 ‘내가 다 해 줄게’ 이렇게 하셨는데 뭘 다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뭘 다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증인 문진희 모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런 대화가 오가는 심판위원장과 심판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문진희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이러니까 오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오심이 작년하고 비교해 봐도 급격하게 늘었는데 오심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문진희 먼저 K리그 팬 또 국민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4월 10일 날 심판위원장에 선임됐고요. 중간에, 전년도까지는 오심에 대해서 저희가 오심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심과 정심을 또렷하게 구분하고 싶었고 이렇게 해서 동계훈련 하고 나면 내년 정도는 K리그가 오심이 확연히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김승수 위원 잠깐, 체육회장님.

○위원장 김교홍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너무 오래 해.

○김승수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30초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정리해요.

○김승수 위원 체육회장님, 이게 지금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 전국체전에서도 진짜 어이없는 오심 사례가 나왔지요,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 승자가 뒤바뀌는? 그래서 심판들의 어떻게 보면 역량 또 오심이 선수의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목별로 문제가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심판진의 선정과 운영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체육회 차원에서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말씀대로 비단 특정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종목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억울함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꿈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심지어 오늘 점심 때도 제가 모르는 번호로 충남의 무슨 종목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이미 지시를 했고요. 제가 고강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이상 심판의 판정으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 한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한 경기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심판 판정에 따라서 선수 생명이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예

○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오후 질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리 봐도 빙상연맹 등 체육계 관련해서 상임위를 한번 국감 이후에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 현장에서는 폭력, 성폭력, 무슨 뒷거래, 오심, 이런 문제가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처리 과정은 허술해 가지고 은폐됩니다. 이거 한번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는 현안질의를 한번, 상임위를 한번 열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유승민 회장님과 김나미 사무총장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번도 이런 것 가지고 특위를 꾸리거나 특별한 대응팀을 꾸리거나 이런 걸 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꼭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꾸려서 대응을 좀 제대로 하라고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전에 체육계에서 자정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민형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런 것은 안 꾸린 것 같아요, 성폭력 또는 폭력을 가지고. 유승민 회장께서는 체육회 차원에서 꼭 염두에 두고, ‘아예 뿌리를 뽑겠다’ 아까 유승민 회장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근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빙상연맹의 문제점이 다 나오기는 했는데, 물론 또 감추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내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우리가 상임위를 해서 이런 모든 게 밝혀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아까 양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양당 간사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협의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교홍** 예.

○ **진종오 위원** 당장 올림픽이 100일 남았다고 하나 연맹의 이런 사태는 오히려 선수들을 저하시킵니다.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서 선수들이 더 클린한 환경에서 경기를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민형배 위원 강태영 증인 나오셨지요?

○증인 강태영 예.

○민형배 위원 시간 내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대한근대5종연맹의 전 사무처장이시고 회장이 안 계셔서 회장 역할을 대신하셨고 지금은 대외협력관으로 계시지요?

○증인 강태영 아니요, 회장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다. 회장님 계십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증인 강태영 아닙니다. 저희 연맹은 회장님……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됐지요?

○증인 강태영 예, 신고는 됐지만 기각됐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번 들어 볼게요.

(영상자료 상영)

잠깐만요, 저걸 좀 지우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오네요.

저기 욕설하는 사람 증인 맞지요?

○증인 강태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런 게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골드 프로젝트 사업비, 국가대표팀 지원하는 골드 프로젝트라고 있지요?

○증인 강태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파리올림픽 때 제대로 썼지요?

○증인 강태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근래 방송에 나오는 것 보니까 도쿄올림픽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저한테 선수들이 탄원문자를 저렇게 많이 보내 왔어요. 봐 보시지요.

회장이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회장을 출곧 LH 사장이 맡아 왔지요?

○증인 강태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LH 사장 계세요?

○증인 강태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안 계실 때도 있었지요, 사장이?

○증인 강태영 안 계실 때는, 선거 기간 잠깐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연맹 결산 봐 보면 이 골드 프로젝트 사업비가 달라요. 차이가 나오요. 그리고 저희 방에 제출한, 의원실에 제출한 사무처의 법인카드 내역도 엉터리예요. 보세요.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 20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고 그래요. 사실이지요?

○증인 강태영 아닙니다. 골드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했던……

○민형배 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사무처 법인카드 내역도 보면 저렇게 출장여비, 체력단련비 저런 게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증인 강태영 저희 체력단련비는 이미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다음번 현안질의 할 때 제대로 따져 드릴게요.

그다음에 안 모 감독 있지요? 아시지요?

○증인 강태영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성희롱 징계 요구받았지요?

○증인 강태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11달이 지났는데 징계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니까?

○증인 강태영 그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경찰에서 유사 사건으로 조사 중에 있어서 조사가 끝나면 하는 걸로……

○민형배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리센터에 연계 요청도 안 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의 90일 조항을 어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안 모 감독이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대요. 저거 봐 보세요. 제가 차마 보여 드릴 수가 없어서 다 지웠어요. 이런 분이 지금 감독하고 있고 연맹 임원 맡고 있지요? 맞지요?

○증인 강태영 연맹 임원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다음번에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연맹 임원인데 아니라고 그러시네.

그다음에 강 모 전 전문위원 있지요? 이분은 왜 규정을 어기면서 겸임 보수를 지급하셨습니까?

○증인 강태영 그 부분도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이 났고요.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기각 났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증인 강태영 대한체육회 소속……

○민형배 위원 이렇게 계약서가 있잖아요.

○증인 강태영 대한체육회 소속의 전임지도자였고요. 연맹에서 일하는 업무량에 대비해서 체육회에서 받는 보수가 적어서……

○민형배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고. 겸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증인 강태영 겸직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두 일을 같이 했는데 겸직이 아니라고 그래요?

○증인 강태영 대한체육회에서 업무가 연맹에서 선도해서 업무하는 내용입니다.

○민형배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 강 모 전문위원이 국가대표 코치 선발하는데 한국체대 출신 한 분을 60점 미만 과락이라는 있지도 않는 규정을 이용해서 탈락시키고 재공고 내서 박 모 코치를 또 임용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증인 강태영 탈락했지만 이유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지만 서류 점수에서 60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거 쓴 거고 나중에 과락 규정까지 또

만들었잖아요.

○**위원장 김교홍** 증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증인 강태영**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렇게 봐 보세요. 있지도 않은 규정으로 탈락시키고 추후에 규정을 만들고. 정상적이지 않아요.

들어가세요.

박지영 이사장님, 왜 조사를 제대로 안 합니까? 다 기각되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이 사건은 다 기각된 것은 아니고요. 근대5종연맹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민형배 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만, 근대5종에서만 한 대여섯 가지가 갔는데 기각, 각하 그다음에 처리 접수가 안 됐느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수상 국장님, 이거 감사를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파악을 해서……

○**민형배 위원** 1분만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체육회가 지금 감사 권한이 있는데요.

○**민형배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전 사무처장님이 계속 땀 얘기를 하셔서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다뤄 보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한번 제대로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대여섯 가지, 이 앞전에 나왔던 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 부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참고인 한 분 모셨습니다. 최은종 전 근대5종 국가대표 감독님이신데 며칠 전에 사고를 당해서 좀 불편하실 텐데 국회까지 오셨습니다.

최은종 참고인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분들에게 피해 입은 적 있으시지요?

○**참고인 최은종** 예.

○**민형배 위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참고인 최은종** 일단 제가 파리올림픽에 정상적으로 공모해서, 제가 팔 힘이 지금 안 좋은데 정상적으로 공모해서 제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이 됐는데 선임하고 나서 연맹에 강원도의 송주식 그다음에 LH의 안창식, 안창식이는 제가 시험 볼 때 경향위 부위원장으로 시험을 보면서 저를 합격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둘이 찾아와서 사퇴하라,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제가 승부조작을 했다는 등 아니면 다른 허위사실을 해서 만들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맹에다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대면을 하면 바로 나올 거다. 연맹의 강태영 그다음에 여상경 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맹에 있으면서, 아마 연맹을 사유화하려고…… 제가 연맹에서 일본 도

코올림픽에서 57년 만에 메달을 땄고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참여해서 금메달 땄는데도 이런 허위사실과 거짓으로 저를 몰아내려고 해서 제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해서 저의 신고받은 송주식은 지금 징계를 받았고요. 제가 징계를 받고 또 연맹에서는 저를 다시 한번 몰아가려고 연맹이 조직적으로 저를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모든 게 다 허위사실로 드러나서 저는 모든 사실이 기각되고 제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참고인 최은종 제가 이거 읽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강태영 중인 들어가세요.

○증인 강태영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참고인 최은종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여야 위원님, 저는 사흘 전에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천운이다 싶을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제 목과 턱에 명이 보이시겠지만 거동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냐? 수십 년간 대한근대5종연맹 일부 간부들의 조직적인, 더럽고 추악한 부정부패, 비리행위를 모든 국민께 알리고 여야 국회의원님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맹을 사유화하는 이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근대5종을 사랑하고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근대5종 선수, 지도자 그리고 가족들이 이들에게 부서지고 물어뜯겼습니다. 연맹이라도 되돌려주고자 이 자리에서 버텼었습니다. 저는 좋은 선수를 만나 57년 만에 도쿄올림픽에서 전용태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고 파리올림픽에서는 아시아 여자 최초로 송승민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세계대회에서 지금까지 총 130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체육훈장 1등급, 청룡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여받습니다. 제가 메달 땐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 육십 평생 일주일 동안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우리 선수들한테 인사조차 못 하고 쫓겨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추악한 범죄자들에게 철퇴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저들이 체육회와 이 사회에 돌아올 수 없도록 여기 계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제발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범죄자들은 스포츠센터의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윤리센터에 강제 수사권과 직접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사전에 가담한 연맹 직원들을 포함하여 증거 조작, 허위 문서 제출, 거짓 증언을 통해 수십 년간 추악한 범죄를 이어 갔습니다.

강태영, 여상경, 안창식은 이 비리 중심에 서 있고 모든 일을 맡고 있는 LH 파견 전상임부회장 이정관은 LH 연맹 회장님의 눈과 귀를 막았고, 강경호 전무위원은 겸직을 위반하면서 13년 가까이 월 18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월급을 추가로 받았기에 이들이 조력자가 되어 각종 범죄와 비리를 옹호하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일이 스포츠센터에 이 비리를 신고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위원님을 먼저 찾았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이 범죄 조직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하고 증인으로 부르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발 저들의 거짓과 비리를 낱낱이 밝혀 죽어 가는

우리 근대5종을 살려 주시고 저도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냥 좋은 감독, 열심히 했던 감독으로 남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 문광위 위원님, 제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발언은 끝나셨지요?

○민형배 위원 예.

○증인 강태영 한 말씀만 드리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강태영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게 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앉아 계세요.

○위원장 김교홍 아까 충분히 민형배 위원하고 얘기했잖아요.

○증인 강태영 아닙니다.

○위원장 김교홍 어차피 이거는 문제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정리를 해야지요.

○조계원 위원 아까 발언 다 했으니까요, 순서대로 한 거잖아요.

○증인 강태영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조계원 위원 앉으세요!

○위원장 김교홍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 강태영 최은종 감독……

○위원장 김교홍 이 회의는 제가 주재해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 강태영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잠깐,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뭘 한마디를 해요? 아까 충분히 질의응답했잖아요.

○증인 강태영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뭐가 억울한데요?

○증인 강태영 저는 체육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 사무처에 입사한 직원이었고 최은종 신고인은 실업연맹 상임부회장에 경기도청 감독을 20여 년 하고 대표팀 감독을 12년 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하면 근대5종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행정만 담당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주의 주장이 뭐예요?

○증인 강태영 감독님께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대부분이 본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여기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파악해요? 국민들이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강태영 대외협력관의 얘기와 지금 참고인의 얘기를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인 최은종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이제 그만하세요, 거기도. 거기도 그만하세요. 앉으세요. 아까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앉으시라고요.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저는 추가질의를 다 같이 넣어서 쓰고요.

좀 스톱해 주십시오, 시간을요.

○위원장 김교홍 5분, 3분……

○조은희 위원 그다음 또 추가질의……

○위원장 김교홍 그다음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당겨 써요? 일단 8분 하시고.

○조은희 위원 2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8분 하시고……

○조은희 위원 조계원 위원 경우를,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10분을 드릴 테니까 시간 넘기지 마세요.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박근찬 KBO 사무총장님 중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지금 한창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좀 보시면, 올해 야구장 안전사고가 많았습니다. 창원에서는요 중상을 입은 여성이 끝내 사망을 했고 대전에서는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대구에서는 관중석으로 기둥이 넘어졌지요. 지금 프로야구 1000만 관객 시대의 영광 뒤에는 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있다 이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PPT 보시면, 언론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이 전체 중 절반뿐입니다. 또 야구장별 안전평가 결과가 양호한 곳은 13개 구장 중 단 1곳뿐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근찬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요.

증인, KBO는 이런 시설물과 파울볼, 낙상에 의한 안전사고 일지를 잘 남겨서 시즌 종료 후에 각 구단이 제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요?

○증인 박근찬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올해 가을 시즌도 곧 끝나는데 그간 가이드대로 했습니다, 그 라인대로?

○증인 박근찬 시즌이 끝나고 각 구단들이 저희 쪽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은희 위원 그런데요 화면처럼 규정과 실상은 다릅니다. 편의대로 구단도 바쁘니까 다음 연도 안전교육 서류 취합할 때, 화면을 보시면요, 계획서 부속서류로 갈음해서 받아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 의원실이 4년 치 안전사고 내역 교육훈련 현황까지 자료를 썩 훑어봤는데 작년에만 무려 6개 구단이 작성하지 않았어요. LG, 두산, 한화, 삼성, KT, 롯데, 작년에 6개 구단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왜 그대로 두셨습니까?

○증인 박근찬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꼭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흥행은 쟁기고 관중 안전이 뒷전이다, 그래서 생명을 잃는 사고까지 나잖아요. 반성하시지요?

○증인 박근찬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부족함을 인정하시지요?

○증인 박근찬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요 아까 말씀드린 인명사고 난 창원NC파크 사고의 쟁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증인 박근찬**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유리창 루버를, 유리창을 교체하면서 루버도 교체하는데 이에 NC 구단 측이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단 측은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로 알렸다는 거고 공단은 그런 거 통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서나 시스템상으로 이런 부분이 공유됐다면 기록이 남으니까 책임지는 게 두려워서 제대로 점검하지요. 그렇지요?

○**증인 박근찬**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점검할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 이게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나서 뒤늦게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면 뭐 합니까? 잘못하신 거지요?

○**증인 박근찬**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박근찬**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좀 더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증인 박근찬** 예.

○**조은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체육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안 들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그 결과를 공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동안 잘못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조은희 위원** 탁구협회의 이태성 회장님 나오십시오.

증인, 탁구협회가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 위 명단을 심의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3명 중 1명을 임의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센터가 기관경고를 했는데 그 기관경고도 수용할 수 없어서 대한체육회에 불복을 했어요. 재심을 요구했는데, 대한체육회 회장이 전직 탁구 회장이지 않습니까? 탁구 전·현직 회장끼리 짬짜미해서 기관경고도 묵살했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문이 막히시는가요?

○**증인 이태성**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조은희 위원** 제가 지금 하나씩 더 물어…… 증인은 사실 증인의 부인이 유승민 회장이 회장일 때 부회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짬짜미가 가능하다는 추론입니다.

그런데 탁구협회가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을 구하려고 올린 국가대표 선발 관련 문서에

선수 변경 절차를 논의한 공식 서면 기록이 있습니까? 모르지요?

○**증인 이태성**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없습니다.

이사회 의결 전에 선수 변경 사유를 보고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증인은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는 기업인이신데 기업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바꾸는데 서류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그냥 전화 한 통만으로 대표이사 바꿀 수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증인 이태성** 회사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탁구협회에서는 가능합니까?

○**증인 이태성**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은희 위원** 탁구협회장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거로 모르시면서 재심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셀프 감사를 해 가지고 무마시키도록 합니까?

박지영 센터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왜 기관 경고를 했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이 사건의 핵심은 회장이나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가 대표 선발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조은희 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은희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계 재조치 검토하시겠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은희 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정해천 전 사무처장은 제가 물을 게 있는데 나오시지 마십시오.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회장님, 회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요 사실과 다른 답변을 계속하는데 너무 당당하세요. 그래서 오전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 제가 수사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거고 위증하시면 고발하자고 위원장님께 제안할 겁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요, 선수로서는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으로서는 공적 마인드가 굉장히 없으신 것 같아요.

묻겠습니다.

협회장 시절 본인 카드 없다고 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제 카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24년까지 없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짜 바꾸지 마세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하나카드 한도 1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둘째, 협회장 재임기간 법인카드 안 썼다고 말씀하시는군요, 화면 내용 줘 보십시오.
2020년 협회장 사용내역이라고 탁구협회가 제출한 겁니다. 오른쪽은 스포츠지원포털
임원·업추비 사용내역, 이런 것 있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렇게 단정
하시지요.

집행 대상자, 회장 기재됐습니다. 4000만 원 항공권, 스페셜 라켓 1000만 원 그리고 주
유비까지 회장님의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페셜 라켓 유승민 이름 적힌 것 'RSM' 이사장 본인이 있는데 거기서
제작했다니까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조은희 위원** 화면 보시면요 제조사 RS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뺀하
게 나와 있는 것을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업추비 비목이 안 맞는 것 너무 많고요. 그것도 넘어간다 쳐요.

그런데 나는 안 썼다, 우리 직원들이 다 썼으니까 6500만 원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회장님이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고발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협회장으
로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후원금 리베이트, 20억 후원을 받아서 그 리베이트 2억을 지인한테……

그것을 윤리센터가 돌려받으라고 했지요, 박 센터장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은희 위원** 돌려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권고하신 것……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환수조치 권고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인 찬스라고 그리고 자랑하시면서 돌려줄 생각을 안
해요.

○**위원장 김교홍** 1분만 더 드려요.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회장님은 회장님이 잘못한 게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
는데 전부 다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공적 마인드가 없다는 게요, 지금 국가대표 뽑는 절차도 그냥 실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뽑는다는데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마음
대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박지영 센터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대한체육회에서 아직 다시 재조치,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조은희 위원** 제대로 지켜보시고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은희 위원** 오죽했으면요 유승민 회장의 대부로 알려진 이유성 대한항공 스포츠 전
회장이 추가 비리 폭로하고 본 수사를 촉구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체육국장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적 마인드가 없으신 회장님이세요.
그런 회장님한테 같이 한통속이라는 소리 듣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잘 살펴보는 게 아니고 잘 감시해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김교홍 회장님, 환급하라고 윤리센터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닙니다. 지금 김택수 촌장께서는 환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김교홍 2억.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탁구인, 예를 들면 탁구계 내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 위원장 김교홍 왜.....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수사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교홍 지금 센터에서도 환급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환급 권고가 내려와서.....
- 위원장 김교홍 인센티브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환급해라 그것 아닙니까?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탁구협회에서 제가 탁구협회를 떠난 뒤에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환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환급을 해야지 그러면 센터 뭐 하러 두고 있어요? 센터 뭐하러 두고 있어요, 환급을 해야지, 그럼?
(손을 드는 이 있음)
손든 사람은 누구세요?
- 증인 정해천 정해천 사무처장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왜요?
- 증인 정해천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은희 위원님, 제가 평생 이런 자리 처음 와 봤는데.....
- 위원장 김교홍 제가 발언권 안 줬는데..... 아니, 손만 들면 발언합니까?
- 증인 정해천 그래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손만 들면 발언하냐고. 내가 발언권을 줘야 발언하는 거예요.
- 증인 정해천 여기가 처음이라 절차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왜.....
- 증인 정해천 저한테 발언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왜 발언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 증인 정해천 당시에 저는 유승민 회장님을 모시고 4년 동안 제가.....

○위원장 김교홍 내가 유승민 회장한테 물어봤지 사무처장한테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증인 정해천 그래서 위원장님께……

○위원장 김교홍 그냥 앉아 계세요.

○증인 정해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앉으세요.

회장님, 센터에서 환급하라면 환급해야지 그게 체육계가 아닌 비체육계인들은 그러면 안 환급해도 되나 보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교홍 그게 아니에요? 나무 거기서 20억을 후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10%, 2억을 환급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인센티브 수혜자들한테 다 환급하라고 한 거였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왜 환급을 안 하냐고, 그것을.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탁구협회에서 다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회장님 때 사건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교홍 회장님이 책임지고 환급을 해야지.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환급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만큼 많이 줬으면 됐지 뭘 또 자꾸만 줘? 그만하세요, 이제.

(「들어 보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조은희 위원 다시 발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앞으로?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발언하세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유승민 회장의 발언은 굉장히 궤변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탁구협회 회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본인의 지인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거 제가 지적했잖아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본인의 지인이면 그런 것 없어도 권고가 있으면 본인의 지인한테 전화해서 빨리빨리 내라 그럴 텐데 지금 모른 척 하잖아요.

○위원장 김교홍 제가 지적했잖아요.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환급하신다고 확답을 했잖아요, 지금.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장님,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발언 기회를 얻은 것은요,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많은 지

적을 주셨지만 위원님이 판단하신 것과 제가 경험했던 것이 다소 또 차이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이 기회를 빌려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발 비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8조에 보면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하면 회장이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1년 뒤에 바뀌었습니다.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하면 그 추천한 사람을 회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서 선발을 할 당시에는 만약에 이 추천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추천 결과가 뭔가 다소 부정확하다라고 생각하면 회장이 그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보통 선발 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A와 B를 놓고 봤을 때 이 기준에 부족한 친구가 선발이 되는 것이 선발 비리라고 하는 것이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그리고 종합평가가 다 앞서 있는 친구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제가 회장인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올해 취임하고 나서 체육계의 여러 가지 변화를 주도하고자 취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요. 오늘 조은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국가대표선수 출신인데 어떻게 선발 비리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규정과 절차대로 저희가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선발 비리가 아니고 선발 과정의 다소 미스테이크(mistake)한 것을 저희가 바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이제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의 증인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오경 위원부터……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시간은……

○위원장 김교홍 시간 다 쓰지 않았어요, 조계원 위원님은?

○조계원 위원 어디요? 저는 아예 발언 안 했는데?

○위원장 김교홍 아까……

○조계원 위원 발언 안 했습니다.

(「오늘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니고 전날이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교홍 안 썼나? 많이 받아 놨어?

질의하십시오.

아, 지난번에 그랬구나.

○조계원 위원 오늘 격렬하게 증인 신문이 진행되다 보니까 잠시 훈돈이 있으셨나 봅니다.

박세우 대한빙상연맹 전무이사님, 증인석에 나와 주십시오.

김현곤 쇼트트랙 코치에 대한 대한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은 이해하지 않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현곤 코치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시도했고 또 다른 사유를 들어서 재징계를 통보했지요.

그래서 또 9월에는 법원이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한 사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한 상태지요, 현재 상태는?

○증인 박세우 예.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이지요.

이렇게 명확하게 법원은 지난 7월에 명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73만 원가량의 회계처리 문제를 이유로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문에서 해당 사안이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명시했어요.

그런데 이 건으로 다시 고소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박세우 예.

○조계원 위원 간단히 답하세요, 간단한 건데.

그러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이 난 지 또 3일 뒤에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계약 해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박세우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이미 과도하다고 판시한 동일한 사안으로 재징계 절차를 통보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보니까 빙상연맹의 지도자 찍어 내기 작전일지예요.

보면 증인께서 경향위 맡고 있지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책임을 맡고 있지요? 경향위에서 모든 걸 다 핸들링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징계 절차를 경향위가 주도해요. 결국 전무, 증인께서 주도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리고 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김 코치에게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또 체육회 연맹에 징계효력 정지하라 두 번에 걸쳐 공문도 발송했고, 이런 데도 전부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빙상연맹 쇼트트랙 TF를 통해서 김선태 이사 등 4명의 새 감독을 추천해 보려고 강행했지요.

그리고 강행하고 경향위에서는 김 이사를 새 감독으로 확정해 이사회에 통보합니다. 이사회는 그대로 의결을 하더라고요. 막강한 경기력향상위원회네요?

그리고 새롭게 징계한 사안을 보면 선수들 중에 김 코치가 직접 했다고 하는 선수들은 15명 중에 6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김 코치하고 전혀 훈련도 하지 않은 선수

들의 면담을 했었고 또 사실상 이지메 면담으로 변질되었고 그리고 김 코치 본인에게는 반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사실상의 징계 사주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시나요? 징계 사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증인 박세우** 김현곤 지도자에게 배우지 않은 선수들은 증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배우고 경험을 한 선수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면담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15명 다 면담을 한 걸로 확인되고요.

○**증인 박세우** 김현곤……

○**조계원 위원** 이건 혹시라도 본인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따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인 박세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유승민 회장님,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일 줄 정말 몰랐어요. 빙상계가 지금 뜰뜰 뭉쳐서 동계올림픽을 준비해도 부족할 판에 완전히 정말 찍찍 갈라지는 빙산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이 혼란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관리 단체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수를 강구해서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증인은 들어가 주시고요.

○**증인 박세우** 저도 짧게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계원 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요.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님, 센터가 설립된 지 2020년 9월 2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는 1만 5039건에 달하더라고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신고 건수도 3279건에 달하고요. 그러면 2020년 596건에서 2024년 3897건으로 6배 이상 폭증했는데 상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상담 인원이 3명입니다.

○**조계원 위원** 3명 갖고 1만 건이 넘는 이것 업무상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정말 센터의 대응 인력이라는 게 처참하고 참담한 수준이다, 3명으로 어떻게 이 1만 건이 넘는 상담을 감당해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1인당 1만 7000건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부하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4명의 전문 상담사를 계약 채용 중인데 정규직 상담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시직으로 상담을 해 왔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임시직으로 상담을 한 것은……

○**조계원 위원** 정규 상담사는 딱 1명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퇴사한 상태지요? 업무량이 폭주해서 감당을 못 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임시직으로 이걸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현재 지금 인력 보강을 위해서 상담사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그것 또다시 계약직으로 돌려 막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그래서 현재 문체부하고 같이 국회에 2명의 정규직 상담사를 요청한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상담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CTR콜센터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CTR콜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문체부에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의 폭력과 비리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요구로 탄생한 조직이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조직이 제대로 상담을 받고 피해를 조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저하게 이 정도 상황, 3명의 인력으로 수만 건의 상담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원뿐만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계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김재원 위원님……

○**위원장 김교홍** 하세요.

○**임오경 위원** 하고 할게요. 제가 간사인데……

○**위원장 김교홍** 하고 한다고? 여기는 간사가……

김재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재원 위원**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와 주십시오.

저도 추가질의시간 3분을 당겨서 8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찬 증인, KBO는 단순한 민간 단체가 아니지요? 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스포츠 단체, 즉 경기 단체이자 체육 단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박근찬** 예.

○**김재원 위원** 그렇게 프로야구는 산업이자 동시에 국민 여가 문화의 공적 자산입니다.

정부 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만도 2025년도 기준 220억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 단체 예산이 총재 개인의 빵값과 출장 금고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과 관심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정작 국민에게는 투명하지 않고 싶은가 봅니다.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불완전 제출, 은폐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 단체로서 최소한 책무조차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확보한 자료 보면 2024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9개월간 서울 서초구 특정 제과점에서 총 548만 원 결제됐습니다. KBO 본사에서 도보 5분 거리 가게입니다. 결제 주체는 허구연 총재 그리고 빵을 산 결제 행위는 운전기사가 대리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 공식적으로 행사나 회의나 선물로 사용됐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직원들에게 제공된 사실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공적 단체 예산이 이렇게 개인의 사적 소비로 쓰여도 되는 겁니까? 빵구연입니까, 이제?

PPT 다음 것 보시지요.

○**증인 박근찬**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원 위원**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구매내역입니다. 2024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 총 2310만 원어치 선불카드 법인카드로 구매가 됐는데요. 2024년 9월에서 12월 26건, 1210만 원. 2025년 2월에서 8월 22건, 1100만 원. 한 번에 50만 원씩 많게는 한 달에 아홉 번 총 450만 원씩 짚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들이 누구한테 어떤 기준으로 배포됐는지 역시 빵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KBO 내부에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이 이어졌는데 본 의원실과 언론이 나서니까 올 추석 직전에 갑자기 직원들에게 스타벅스 카드를 나눠 주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박근찬** 이전에도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사무총장님, 국민 세금이 총재의 커피 쿠폰을 사서 무작위로 뿌리는 게 프로야구 발전입니까? 명백히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그리고 공금 사적 전용인데요. 그리고 제가 발언 기회 드린 적 없습니다. 왜 갑자기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러시지요?

○**증인 박근찬** 지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김재원 위원** 말씀 멈추십시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해외출장 내역 보겠습니다. 전임 구본승 총재는 해외출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구연 총재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열아홉 번 해외출장 다녀 왔습니다. 다른 스포츠리그 임원 좀 볼까요. 프로농구 5회, 프로배구 1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인데 문제는 출장비 규모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KBO는 총재와 임원들의 출장비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실비 정산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를 써도 제재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 직원 출장비 규정은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당일 출장수당 제외, 성수기 숙박 시 초과 시에도 승인을 받

도록 했습니다.

다음 PPT, 충격적입니다.

허 총재는 기사 빨린 최고급 차량을 렌트해서 일주일에 렌트비로만 2000만 원, 숙박은 1박 140만 원 넘는 호텔 이용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에서 총재는 무제한이고 직원은 제한이고 이게 바로 총재 중심의 특권 구조 아닙니까?

문제의 근본은 감시 체계가 부재하다는 겁니다. KBO에는 총재와 임직원의 법인카드나 출장비 사용을 점검할 감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 자료요구에도 비협조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BO, 한국음악저작권협회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업무 점검 착수해야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함께 나서 주셔야 됩니다.

체육국장님, KBO는 민간 단체라고 백번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감사, 검사 대상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즉각 합동 점검 착수 후에 결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사무총장님, 한 가지 더 묻지요.

다음 PPT 보시지요.

오전에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질의하셨지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기준 전 비서실장이 인물을 26일 어제 한국시리즈 1차전 VIP로 초청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증인 박근찬 최종 승인은 총재가 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 총재가 했습니까? 비서실을 통해서 초청 명단 직접 승인한 것 맞습니까?

○증인 박근찬 예, 전임 총재님들은 다 초청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VIP 초청 기준은 뭐니까? 말씀하십시오.

○증인 박근찬 통상적으로 한국시리즈 같은 경기에는 전임 총재와 야구 원로들을 초청 하였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야구 원로나 전임 총재 이런 분 아닌 분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PPT 다음 것 주시지요.

사진 속의 좌측에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인물 누구입니까, 아십니까? 저분 누구예요? 허구연 총재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요.

○증인 박근찬 그분은 잘 모르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저희가 초청한 분이고 초청자와 동행한 인물입니다.

○김재원 위원 VIP 초청 명단을 사무총장이 몰라요?

○증인 박근찬 그 초청하신 분에게 동반자를 저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PT 여덟 번째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미국 애리조나에서 ‘아소’라는 일식집 운영하는 이능기 씨입니다. 허구연 총재가 야구 해설 시절에 애리조나 전지훈련을 갈 때마

다 숙소나 이동을 도와줬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야구계 인사가 VIP 초청 대상이라고 하셨지요?

○증인 박근찬 예.

○김재원 위원 그런데 야구계 인사도 아닌 단지 개인적으로 신세겼던 사람 한국시리즈 VIP로 초청해 앉혔다는 것 규정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허구연 총재가 KBO를 사유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벗어나서.

○증인 박근찬 해당 부분은 저희 협력병원 원장을 저희가 초청한 것이고요. 그분에게 동반자 1인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말씀드렸고……

○김재원 위원 아까 원로 아니면 전직 총재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증인 박근찬 예.

○김재원 위원 체육국장님, 이번에 문체부 업무 점검해서 VIP 초청 과정과 승인 절차도 반드시 규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VIP 초청 아니고요. 허구연 총재, 블랙리스트 사건을 야기한 과거 권력의 상징을 스포츠의 명예석에 앉히면서 공공성보다는 정치적 유착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KBO를 사유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시리즈를 즐기는 전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배임 행위를 했고, 프로야구는 국민의 애정과 자부심으로 성장해 온 대표적 공공 스포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KBO는 그 공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총재 개인의 빵값, 커피값, 특권적 출장, 불투명한 회계 이 모든 것들이 명백히 공적 지원을 받는 단체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문체부는 민간 단체라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즉시 합동 점검하시고요. 스포츠윤리센터 동참해서 총재 법인카드, 출장비, VIP 초청 내역 등 전반 면밀히 조사하십시오. 직원들 일대일 면담 실시해서 추가적인 문제 없는지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증인 박근찬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스타벅스 상품권과 빵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스타벅스 상품권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저희 직원 격려라든가 명절 선물 명목으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원 위원 직원들이 받은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증인 박근찬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빵 부분은 확실히 직원이 받은 적은 없습니다. 빵이나 쿠키 세트 같은 경우는 야구 원로들이라든가 해외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경우에 저희가 선물용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왜 관련 자료 내라는 데 내지를 못 합니까? 왜 공적 자원으로 썼다고 얘기를 못 합니까? 왜 기록에 남기지를 않습니까? 법인카드로 썼지 않습니까?

○증인 박근찬 그것은 공적 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뭐라고요?

○증인 박근찬 공적 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공적 자금이 아닌데 법인카드로 써요?

○위원장 김교홍 그것은 무슨 돈이에요, 그러면?

○증인 박근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김교홍 법인카드가 어디 법인카드예요?

○증인 박근찬 그러니까 정부지원 자금이 아니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정부지원 자금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예산도 KBO는 문체부 산하 단체인데 그러면 개인적인 겁니까, 단체가?

○김재원 위원 총재 법인카드가 어떻게 개인 사적인 카드입니까?

○증인 박근찬 제가 사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김재원 위원 공적인 게 아니라면서요!

○위원장 김교홍 공적 카드가 아니라며?

○증인 박근찬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부지원금으로 받은 그 비용을 쓴 것 이 아니라 저희 구단 회비에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김재원 위원 정부지원금 이외에도 거기 예산은 공적 자금입니다, 단체 자체가.

.....

○위원장 김교홍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주질의시간에 강수상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질의했던 과정에서 답변에 조금 위증이 있습니다. 좀 전 제가 질의를 했는데 26년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체육국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교육비 10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교육비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에 6억, 후보선수 사업 내 전문인력 양성 4억 5000만 원, 총 10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체육국장은 장흥 교육 예산이 확보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허위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운영비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운영을 못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체육인재개발원은 24년 말에 준공되고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가치센터도 운영비 50억 원을 지원하고 타 기관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체육국장은 운영비 확보 노력은 안 하고 국회에서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체육국장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허위 답변을 다시 할 경우 위증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인재개발원이 어렵게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그것에 관계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어렵게 해서 각 지역 단체에서도 받고 현장도 가서 보고 해서 어렵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최초 설립 시 운영비 없이, 설립비를 받으면 체육회

에서 운영비를 마련하는 형태로 해서 설립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비를 확보한 건 아니고요. 각 사업에서 지도자 교육을 하는 사업을 장흥교육원에서 하도록 강제를 함으로써 실제 운영비를 주는 효과가 나게끔 하겠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서 교육할 수 있는 걸 장흥으로 가서 교육을 하면 그 훈련비를 장흥에서……

○임오경 위원 아니,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원장 김교홍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 지도자들이 장흥 면 데까지 왜 가. 운영비 대체시켜 주려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장기 교육을……

○위원장 김교홍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거는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줘야지. 다른 데서 받아야 할 지도자 교육을 그쪽으로 강제로 오게 해서 운영비로 대체하겠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그게 문체부의 국장이 할 소리냐고. 참 답답한 분이네. 그게 말이 돼요? 장흥까지 가냐고. 여기 그냥 수도권에서 하면 되는 걸 문체부에서 오게 해 가지고 운영비 대체하려고 그거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아예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자료나 이런 걸 다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위증할 생각 하지 마세요.

임오경 위원 질의하세요.

○임오경 위원 저는 오늘 증인과 참고인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궁금한 게 많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양문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있어서 2014년에 영구제명이 됐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수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제가 영구제명을 시켰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유승민 회장님께 질의할게요.

영구제명이 됐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할 수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사설로 강습하는 민간 사설에서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도자로서는 영구제명이 됐습니다. 사설이든 전문이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규정이 제대로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있으면 각 연맹체에다가, 종목단체에다 정확하게 이 규정을 내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김아영 코치에 관련돼서, 영구제명 당한 그 지도자는 2014년에 제가 영구제명시켰던 코치예요. 김아영 코치는 1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작년에 신고가 들어와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다시가 아니라 수면 위에 처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 같은 게 있나요? 이런 매뉴얼이 대한체육회에 있나

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규정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이게 정확한 매뉴얼을 알고 있지 않으면 대구빙상연맹에서 질의를 했을 때 대한체육회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나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님, 이와 관련돼서 매뉴얼이 있나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존경하는 위원님,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25조의2에 의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학생인 경우 공소시효가 성년이 달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아영 코치 사건은 다시 신고하면 조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거 유승민 회장님,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대한체육회에 이런 또 문의가 왔을 때 스포츠윤리센터와 공조해서, 협력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제보자들이, 투 트랙으로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도 계속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대구빙상협회로 제보가 들어온 거지만 정확하게 이것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빙상연맹 박세우 전무님, 궁금한 게요 지도자들의 식비 관련 부당청구가 있을 경우 바로 해임입니까, 발견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증인 박세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증인 박세우** 저희들이 그 사건은 서로 지도자들 간에 부당청구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가 들어간……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부당청구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정확한 정황을 파악해서 부당청구를 했을 경우에 바로 해임입니까?

○**증인 박세우** 정계에 따라서 해임도 가능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증인 박세우**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원회에서 1개월 이상 징계를 받으면 지도자에서 해임……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도자가 선수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당청구가 있었다? 그러면 매뉴얼에 정확하게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그런데 부당청구로 인해서 전 집행부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는데 왜 감독과 코치의 불화로 인해서 또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셔요.

○**증인 박세우** 그거는 또 영수증 사건으로 인한 징계였고요. 그외 또 다른……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당청구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감독과 코치 간의 불화로 인해서 그것도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증인 박세우** 그거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수들에 의해서.

○**임오경 위원** 지도자·선수 간에 무슨 문제가…… 아니, 감독과 코치와 불화설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라면……

○**손솔 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증인 박세우** 어디가 위증이라시는 거지요?

○**손솔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진종오 위원** 선수가 제보한……

○**임오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손솔 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진종오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선수가 제보하면 바로 그렇게 징계할 수 있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김교홍** 아니, 잠깐, 질문하는 위원도 있는데……

○**증인 박세우** 선수 얘기를 듣고 바로 징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질문을 하세요.

○**임오경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셔요. 이게 부당청구가 있으면…… 지도자가 해서도 안 될 일이고 또 감독과 코치 간에 불화설이 있으면 이거 바로 2명 다 해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한 사람은 보직시켜 주고 한 사람은 해임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김교홍** 답변하세요.

○**증인 박세우** 그 두 분은 선수들 간의 문제와 또 두 분 간의 불화, 그래서 선수들에게 저희들이 훈련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 배제 조치를 일단 취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선수들 간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징계 절차를 따랐던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김선태 감독은 2018년에 남자 감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증인 박세우** 예.

○**임오경 위원** 그 당시에 이 사람도 징계를 받았습니까?

○**증인 박세우** 그때 조재범 사건으로 인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같이 징계를 1년 받았습니다.

○**임오경 위원** 빙상은 남자, 여자 지도자를 따로 뽑습니까?

○**증인 박세우** 예, 따로 분리되어서…… 훈련을 따로따로 합니다.

○**임오경 위원** 분리되었는데 왜 이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증인 박세우** 그때 당시에 조재범 코치의 사건이 워낙 사회적 물의가 커지기 때문에 보고하는 관계에서 오해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거는 빙상협회가 직접 나서서…… 왜 갑자기 이 사람이 피해를 받아

야 되지요?

○**증인 박세우** 그 부분은 김선태 지도자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임오경 위원** 저는 이 사람을 옹호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빙상협회가 그 당시에 사건을 덮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까지 피해를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해외에서 문제가 됐던 지도자 국내에서 채용해도 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표팀 지도자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아까 발언에 있어서 무슨 폭행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묻는 거예요.

유승민 회장도 이거는 답변해 주세요. 국내에서 영구제명됐던 지도자들은 국내에서 활동은 없어요. 그런데 해외에 가서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드시 협회에서 그 나라에 정계 사유를 전달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외에서 해임되거나, 폭력사건이나 성폭력이 있을 경우, 승부조작이 있을 경우 그런 해임당한 사람이 국내에서 지도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요?

○**증인 박세우**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증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유승민 회장님 말해 봐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일단 해외에서 그렇게 받은 걸로는 아직까지는 관련된 매뉴얼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정계를 받은 사람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런 거 알려 주는 의무화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럼 해외에서도 들어올 때 의무화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원래 질의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저는 질의를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도저히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종목단체에 매뉴얼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대한체육회에 매뉴얼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책도, 능장대응도 이상하고 심각한 상황이고…… 성폭력, 폭행, 승부조작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조사해야지요. 그거 매뉴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특히 빙상은…… 올림픽 이제 102일 남았습니다.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청문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을 생각해서 저는 한발 물러서겠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동계올림픽 끝나면 반드시 이거는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해천 증인은 조은희 위원이 질문 안 했지요?

○ 증인 정해천 예.

○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정해천 증인은 서면에 답변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잠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기관증인만 서면으로 답변하지 개인 증인은 서면답변이 없습니다.

○ 증인 정해천 존경하는 위원장님 바쁜 와중에도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증인 정해천 저는 대한탁구협회에 약 4년 동안 유승민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협회의 일을, 중추적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도 제가 만들었었고 과거에 대기업에서 약 10억씩 냈던 그런 금액들이 있었는데 유승민 회장님은…… IOC 위원회에는 사실은 지급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협회 운영비가 1년에 7억에서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대학에서 근무했을 때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제도가 약간 오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승민 회장님도 윤리센터에서 약 두세 시간만 받고 징계가 내려졌고 저 역시 서너 시간 받고 소명의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더가 바뀌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유승민 회장님 모시고 처음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유승민 회장님은 수많은 후원을, 약 30억~40억 정도의 후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다 운영비 차원에서 받아 왔고……

○ 위원장 김교홍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증인 정해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승민 회장님은 단 1원도 편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배드민턴협회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정치적인 과한 징계가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에서 패한 일부 선배가 특정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하의 꽃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선배가 되기 어렵다면 후배들을 조용히 지지하는……

○ 위원장 김교홍 이제 정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증인 정해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만하세요, 이제.

○ 증인 정해천 마지막으로 22년, 23년도 두나무 프로탁구에 대한탁구협회에서 7억과, 2년 동안 14억 원이었고 운영하면서 두나무에서 후원을 약 12억 받았습니다. 약 26억에 대한, 두나무 프로탁구에 대해 저희들이 대한탁구협회에서 영수증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김교홍 지금 스포츠윤리센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증인은?

○ 증인 정해천 잘못됐다라기보다도……

- 위원장 김교홍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 증인 정해천 제대로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정해천 그래서 제가 스포츠윤리센터에……
-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아까 유승민 회장은 환급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 증인 정해천 환급에 관계없이 저는 여덟 번의 민원을 냈고요. 세 번의 신문고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유승민 회장님…… 모시던 분이 환급하겠다는데 무슨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 증인 정해천 환급의 별개로 그 진행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 증인 정해천 고맙습니다.
-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교홍 예.
- 양문석 위원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임오경 위원이 공소시효가 만료됐는 데 대한 매뉴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그래서 김아영 피겨 코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교홍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 조계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짧게 하십시오.
- 조계원 위원 아까 박세우 증인께서 제가 위증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예시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연맹은 이 사안이 진짜 심각하다, 선수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선수단 면담 결과를 근거로 해임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면담에 참여한 선수 15명 중 9명은 지난 시즌에 김 코치와 훈련한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면담도 안 했고 면담 보고서도 없다’ 그렇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면담 결과 일체를 제시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위증의 사안이 있으면 명확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교홍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 조계원 위원 박세우 전무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박세우 전무님은 지금 조계원 위원께서 얘기했던 면담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박세우 예.
- 위원장 김교홍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 위원회

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증인하고 참고인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다섯 분 남았는데요. 앞에 증인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지금 다섯 분이 안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하형주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아닙니다.

○정연욱 위원 먼저 간단하게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지요. 연매출이 제가 파악한 자료만 해도 6조가 넘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조 9000억 상당의 돈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 체육진흥기금이 거의 우리 체육계 전반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게 현실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스포츠토토의 상당 부분에 국민들도 그렇고 여기에 개입을 하는데 그동안 이 스포츠토토 할 때 전부터 PC를 이용하게 돼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PC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저희가 확보한 베트맨 공식 고객…… 사실상 QnA인데 ‘모바일 전용 폐이지에서는 정책상 구매 및 예치금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구매 및 예치금 충전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PC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이용을 현행 규칙상 막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정연욱 위원 불법은 아니지요. 다만 막고 있는 거 알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막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할 수 없게 돼 있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 정연욱 위원 그런데 그동안 한 10년 정도 이 부분이, 모바일은 편법상 많이 또 방치가 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모바일 앱 기반의 체육진흥투표권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니까 올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운영계획에 인터넷 발매 시스템 모바일 앱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 정연욱 위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모바일로 하면 사행성 요소가 너무 커질까, 두루 있고요. 사감위하고도 의논드리고 있는 중이고, 특히 아직까지도 보안 요소가 아주 취약한 걸로 알고 있고.

○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스포츠토토를 그쪽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 정연욱 위원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 정연욱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모바일로 되면, 확대를 하면 스포츠토토 확대되고 수익은 오를 수밖에 없지요? 아무래도 모바일 이용자 수가 워낙 지금 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 정연욱 위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사장님도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일반 국민들이 사행성 우려하는 부분들을 또 극복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체육진흥공단이 앞으로 이 부분을 해쳐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 하실 겁니다. 다만 또 이렇게 되면 기존의 오프라인 매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고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직접적인 피해도 예상이 되는 것이고……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전국에 6500개 있습니다.

○ 정연욱 위원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렇습니다.

○ 정연욱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어떤 형태로든 가고.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 정연욱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포츠토토 운영 수익금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이 저희 체육계 운영 자금으로 투입된다는 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렇습니다.

○ 정연욱 위원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건강하게 쓰이고 투명하게 쓰여야 된다는 부분은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철저하게 ‘아, 체육진흥공단이 모바일로 해도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구나’ 하

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칫 제대로 시행이 될 때, 모바일 앱을 시행을 할 때 여론의 역풍을 맞거나 또 국민적 지탄을 받는 그런 식으로 훌려갈 경우에는 또 다른, ‘이걸 왜 했느냐. 단순한 수익 사업 아니냐’는 식으로 가면 우리 체육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이상 사행산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이 모바일 앱으로 해서 전향적으로 나아갈 때는 기금 사용처 공개 및 환원 현황을 좀 더 보여 주겠다든지, 이런 식의 스포츠토토를 구매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변에 누리고 있는 생활체육의 여러 가지 활동, 지원에 쓰인다든지, 도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건전한 양식으로 지원될 수 있는 자기 모든 활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육진흥공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중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충분히 책임을 엄중히 가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스포츠토토가 사행, 우연, 복, 행운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정부의 체육 재정 98%가 스포츠토토하고 경륜·경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포츠토토가 가장 큰데요. 따라서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고 즐기는 자체를, 좀 더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스포츠토토를 즐기는 그 자체는 당선되면 행운이고 안 되면 내가 대한민국 체육 재정과 엘리트선수, 올림픽 선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어떤 봉사 정신으로 돌리고자 캠페인을 벌이고 싶어 합니다.

○정연욱 위원 앞으로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게 이게 자칫하면 어느 순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훌려갈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돌리는 문제는 결국 이사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사행감독위원회나.....

○정연욱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된 내용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유관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이기현 위원 저도 오늘 빙상연맹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자료 조사를 조금 해 봤는데요. 이수경 회장,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

께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빙상연맹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내에서 관리단체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의견을 주셨고 또 문체위 내에서도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빙상연맹 회장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했느냐라고 봤더니 오늘 이수경 회장 그리고 상근부회장인 김홍식 부회장, 한 분은 해외출장,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안 오셨는데 이수경 회장의 경력을 찾아보니까 삼보모터스그룹 CFO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회장은 누구신가 봤더니 이재하 회장이라고 자기 아버님이신데 삼보모터스가 대구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 2월, 당선된 것은 1월 24일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있었던 일이 아까 있었던 대구빙상연맹의 화해 권고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빙상연맹 회장이 누구지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서 연관성을 100%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수경 회장님 나이 43세에 체육회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인 출신 첫 빙상연맹 회장’이라고 아주 그냥 크게 광고를 해서 올 5월에 당선이 되셨던데, 2월에 당선된 거지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25년, 올 5월이지요,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것을 또 굉장히 크게 체육회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빙상연맹의 회장이 왜 밀라노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떠나는 우리 선수단의 단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단장 결정한 회의록 그리고 이수경 단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빙상연맹과 그리고 삼보모터스 그룹에서 어떤 지원을 선수단에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지원 내역을 내일모레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체육회장님, 이수경 회장이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적합합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희가 선수단장을 임명하는 시기는 6월 초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현 위원 아니, 들어온 건 4월이었다면서요. 4월인데 왜 6월이라고……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선수단장을 저희가 4월, 6월의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사건 신고된 건 4월 1일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6월 정도에 제가 김현곤 코치랑 통화한 자리였습니다.

○이기현 위원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지금의 판단은 어떠세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지금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논쟁적 지점이 있는 단장이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일 남았다고 하는데 선수단 단장의 교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형주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감사, 이번에 정보유출 관련된 그리고 도급업체에 대한 과견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 사진에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회장님? 노트북 보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 노트북도 있고 컴퓨터도 보이지요, 데스크탑도 보이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이기현 위원 자세히 보면 외장하드도 보입니다, 노란색 랜선도 보이고요. 이게 도급업체 사무실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이것 있어서는 안 되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규정상 안 됩니다. 이것은 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이기현 위원 이 사진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기현 위원 이 사진이 이번 체육진흥공단에서 자체감사를 했다고 하는 9월 1일과 9월 5일까지 본감사가 있었는데 본감사 끝나고 3일 후에 9월 8일 날 찍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의 감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 준 겁니다.

도급업체 직원도 지금 디지털혁신팀의 모 팀장 전화받고 ‘야, 일단 숨겨’ 그래서 이것을 스카이박스 안에다 보관합니다. 노트북, 데스크탑, 모뎀, 전기선, 모뎀선 다 빼 보관하고 감사가 5일 날 끝나니까 다시 갖다가 깔아 놓습니다. 체육진흥공단 감사가 이런 수준입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감사를 저희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공단 직원들이 SR 시스템을 통해서 도급업체를 관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급업체 직원들을 과견법 위반하면서까지 마치 공단의 말단 직원인 양 인사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지침도 바로바로 개인 메신저로 주고 사내 인트라망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그분들께 다 지시를 해요. 정확하게 과견법 위반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로펌의 유권해석 받으셨는데 유권해석도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과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해 달라, 로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로펌 얘기는 과견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견법도 위반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평가 관련된 주요한 정부 관련 데이터들을 체육진흥공단의 주요한 보직에 계신 분들이 왜곡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사장님이 정말로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정말 기관장으로서 그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만 올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 상세 내용을 파악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조치를 취하

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현 위원** 중대 과실입니다. 체육진흥공단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 과실을 한 것입니다. 특히 성과급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갈취한 행위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공단에서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아 간 C등급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토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맞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염중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이사장님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감사 결과 그리고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가 나오면……

하형주 이사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체육인이셨습니다. 저는 그 존경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40년 넘게……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이기현 위원** 40년 넘게 이사장님에 보내 왔던 존경과 그리고 경외감 잃지 않도록 명예로운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정진완 장애인체육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 선수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 이천에 있는 것 맞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재난대피훈련 하고 있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2023년도에는 1차 했고요, 2024년도에는 파리 패럴림픽 문제로……

○**이기현 위원**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대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래서 안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사시에 장애 유형별로 대피할 수 있는 훈련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이기현 위원** 현재 대표훈련을 선수촌 직원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실제 선수들은 그 훈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직원들하고 분간돼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이것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분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인데 누구의 손 이끌림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현 위원** 유사시에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이기현 위원** 이 문제 관련돼서 장애인체육회에서 각별하게 선수촌 관리지침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고 장애인 선수들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교육 및 안전재난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재난대피훈련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3분 붙여서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예.

○**배현진 위원** 최성희 정책관님, 앞으로 아까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전북 올림픽에 관해서 질의를 잠깐 했는데, 사실 분산 개최 방안과 전북도의 숙소나 아니면 교통편 현황 등 인프라에 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후보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지로 드렸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혹시 문체부가 지금 이것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염려가 들기 시작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후보 시절에 전북특별자치도 공약으로 해서 1번 공약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 후보지가 결정됐지요. 그리고 나서 대선은 그 이후니까 그 이후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계올림픽 유치하겠다라고 되게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던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이지요. 민주당의 전북 고성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상함을 느꼈다’.

고창이군요,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끝까지 국정과제 선정에 부정적 입장을 끼지 않았다’라고 본인의 국정기획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성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매체를 통해서 난 기사를 보면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위가 국정과제 세부계획을 담긴 책자를 공개 직전에 이것을 취소하고 자료집을 폐기했다, 파쇄했다라는 단독 기사가 났고 그 위딩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개하는 게 맞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딩 까지 실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여쭐게요.

문체부가 지금 대한체육회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것은요 1년 계획이 아니라 5년의 비전을 담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중에서도 국내적으로 해야 될 산적한 일이 많지만 100대 과제 정도로 추려서, 그 안팎으로 추려서 하겠다라고 중요성을 하는 건데 이거 혹시 유치 실패할까 봐……

문체부 입장을 묻습니다.

실패할까 봐 국정 기획 과제 이름 전북도 유치에 대해서 못 넣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배현진 위원 문체부는 왜 계속 윤준병 의원님의 주장대로라면 부정적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아까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금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K-스포츠 위상 강화 부분에 국제대회 유치, 개최 참가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워딩으로는 들어가 있고요.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요. 왜 포괄적으로 넣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현진 위원 대통령의 지역 1호,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부산에 우리가 해수부 이전 이런 것 하면 대놓고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윤석열 정부 때는 보니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저희가 부산엑스포 유치 못 해서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빼 아프기도 했지만 이때 그래도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개최 추진해서 102번에 ‘범국가적 유치 역량 결집한다’ 이 정도의 폐기와 의지를 보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꼭, 체육회장께 여쭙겠습니다.

회장님, IOC 선수위원도 하셨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배현진 위원 지금 12개 경쟁하는 국가들 중에서 전북도가 후보지로 선정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적인 올림픽 유치의 여망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 혹시 경쟁력 많이 떨어지나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지금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실은 늦게 출발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응집력을 발휘해서 저희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본인께서 국가대표 선수도 하셨으니까 다시 개인적으로 선수 입장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분산 개최를 한다라는, 그것도 2~3개 도시도 아니고 여러 개 도시로 한다라는 것을 참가하는 전 세계 선수들이 좋아하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너무 많은 분산 개최는 오히려 선수들의 올림픽 경험을 다소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전략을 애초에 내밀었던 것이 IOC가 지금도 압축적인 개최를 원한다고 권고를 한 것은 약간 우리한테 약점으로, 먼저 전략적인 누수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일단은 개최 도시의 전략으로 평가를 했지만 저희가 IOC에서 1차 회의를 했을 때 IOC에서 너무 많은 분산 개최는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런 우

려가 있으니 최소한 콤팩트(compact)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에 따라서 아마 개최 계획을 다소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대한체육회는 지금 이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나름대로는……

○**배현진 위원** 문체부에서는 절차가 남아서 국정과제에 담지 못했다라고, 대한체육회가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남았다라고 공을 넘기셨는데 대한체육회 혼자 노력하면 유치·선정 까지 몇 %, 100% 중에서 몇 % 정도 기여할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희 대한체육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국민적인 관심이라든지 정부, 지자체의 그런 합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는 IOC의 정해진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금 최대한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문체부 입장 여쭐게요.

문체부는 정부 부처, 행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 아까 440여 억 원이 들었다라고 말씀들었어요, 유치까지.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유치 이후에 어쨌거나 다 든 비용이 한 14조 정도 됩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치 이후고요, 후보지에서 유치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해서 개최 전에 뛰어든 만큼 국가예산을 집행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들어가서 유치를 하기까지 아주 죽기살기로 해야지 정부가 지금 한발짝 스리슬쩍 빼고 한다고 하면 공연한 예산 낭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체육회가 할 일이 남아 있다라고 그냥 수수방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그것은 아니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유치 후보 도시가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전북도, 체육회, 문체부와 같이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계획들이랑 같이 리뷰를 하고 있고요. IOC랑 협의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어젠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별도의 전주 올림픽 개최라는 게 사실 국가적인 국정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부산 엑스포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의 어떤 시행 부처나……

○**배현진 위원** 국제대회 참가·유치·개최 지원이라고 지금 그냥 한 줄로 나온 게 이것은 국민 누가 봐도 대단히 국가적인 어젠다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집중한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전북도의원께서 국정기획원으로 활동했는데 왜 자꾸 문체부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정확히, 이 국정감사장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그래서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도 국정과제에 들어갔을 때 정부 승인, 그러니까 저희 문체부와 기재부의 단계를 거쳐야지 구조적으로……

○**배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이것 유치 자신 없어서 지금 포기하는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저희도 지금 타당성 있는 계획, 그러니까 IOC에서 경쟁력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전북, 체육회랑 같이 협의를 하고 계획을 잘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현진 위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지금 지적했지 않습니까? 숙박도 준비 안 되어 있고 교통도 준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 자체랑 어느 정도 논의됐습니다라는 얘기가 오늘 아까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 잘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왕 칼 뽑았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도, 국민의힘이 출범한 정부도 실패해서 빼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니까 대충 대한체육회에 떠넘겨서 대한체육회가 지금 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수세적인 입장 마시고 적어도 그 지역 의원님들도 납득하실만 한 구체적인 계획 보고하시면서 잘 준비해서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박정하 위원 좀 전에 배현진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하세요.

○박정하 위원 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기획위원회 회의 이후 123대 국정과제가 결정된 이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북도, 문체부, 대한체육회 이렇게 3자가 긴밀히 협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3자가 협의한 일지, 관련 회의록 그리고 그때 논의된 내용 등을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최 국장님은 박정하 위원님 말씀하신 회의 자료부터 해서 그 상세한 내용을 종감 전까지 자료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들어가세요.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유승민 체육회장님에게,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체육회 회원 자격 인정 단체 승인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제도 운영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

만 너무 엄격한 제도 운영은 저변 확대가 필요한 종목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종목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를 검토해 보자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 이해하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박수현 위원** 제가 알기로 어떤 종목이 국제대회 참가가 가능하려면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과 정관상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 등 세 가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격 중에서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이 가입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년간 총 15건의 인정단체 가입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에 받아들여진 것이 4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26.7%에 불과하다 이런 것인데, 저도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저 비율이 과연 낮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판단을 유보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회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통화도 한 일이 있고 회장님도 열심히 알아본 일도 있는데 한 사례를 들어 볼게요.

대한체육회 중에 회원 이상의 회원 자격을 얻지 못해서 대회 참가가 좌절되는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인정단체 자격을 얻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쉽게 얻겠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년 제3회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가 10월 20일부터 31일 바레인에서 열리는데, 인도네시아 무슬림 펜칵실랏이라고 하지요. 이 종목은 그 대회의 정식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선수단을 파견하지 못했어요. 이 대한 펜칵실랏연맹이 비회원 단체—그러니까 인정단체조차 아닌 거지요—를 이유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참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회 주최 측에서는 충분하게 초청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체육회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이게 파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보지도 않지만 인도네시아 무슬림 펜칵실랏을 열심히 연습해 오고, 아주 해 온 이런 동호인들, 선수들 이런 사람들의 꿈이 좌절이 되었어요. 대한체육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니까? 대한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목적과 잘 맞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유승민 회장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말 내 일처럼 열심히 노력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결국 답은 뭐였느냐면 회장의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체육회의 관행과 규정과 또 여태 있었던 관계자들의 현재로서의 그런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됐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이와 같은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 대한체스연맹, 한국브리지협회 그다음에 대한주짓수회, 대한크라쉬연맹을 준회원단체로 한시적 가입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아시안게임 종목 참가를 위해서 대한서핑협회를 인정단

체에서 한시적 준회원으로 승격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한체육회 회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스러워요. 하여튼 이 문제도 어쨌든 포함해서 그리고 권위 있는 국제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준회원 자격을 더욱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제도화하고 더욱 구체화해서 임시 참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이번처럼 유승민 회장 혼자 의지를 가지고 막 알아봤는데 안 됩니다라고 벽에 부딪히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박수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1분 더 드려요.

○**박수현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제도개선 방향밖에는 제시를 못 하겠는데 제가 뭐 체육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생각은 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설립 목적에 맞도록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승민 체육회장이 당선될 때, 지금 40대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박수현 위원** 40대의 새로운 변화를 약속했던 그 취임식장을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 출신으로서 선수들이 해외 대회에 나간다는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체육회장이 되고 지금 한 8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한체육회가 규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어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또 방금 말씀하신 유스대회의 종목 선정이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보니까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참가를 하게 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규정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도 82개의 단체가 있어서 굉장히 비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번 들어왔을 때 나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종목단체들의 어떤 그런 비위 행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 행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 단체를 받는 조건을 좀 완화하고요. 이 단체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또 엄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춘다면 아무래도 종목단체에서도 좀 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비단 국제대회뿐만이 아니고 소년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전 관련해서도 약간의 어떤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종목들은 계속해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입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개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굉장히 광장히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 주신다면 적절한 어떤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수상 국장님, 잠깐만 마이크 잡고.

아까 질의 답변에, 제가 작년의 국감 속기록을 볼 시간이 미쳐 없어서 제가 작년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곤란하실 테니까 잘못된 부분만 말씀 주세요.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장흥교육원 그 예산, 건설예산을 도와주면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운영 경비는 대겠다가 전임 이기홍 체육회장의 약속이었고 그게 작년 국감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 면 장흥까지 갔는지는 제가 더 따지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그때 약속, 장흥에 체육회의 교육원이 입지하기로 한 것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도와주면 운영은 체육회가 하겠노라고 약속한 것 맞지요? 제가 죽 얘기한 것의 틀린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대충 맞지요?

유승민 회장님은 혹시 이런 것 알고 계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제가 예산 관련해서 찾아다닐 때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막대한 건설비용이 들어가서 그 장흥까지 가서 건설을 했는데 또 이제 와서 운영 경비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에 요구하실 거예요, 체육계에서?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지금 저희 재정 상황으로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애초에 했던 약속은 어디 가고 이제 또 없다고 손을 벌리는 게 맞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제가 약속을 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체육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지원이 되신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 보려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정하 위원 아이고, 참……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앞서 정해천 참고인 나와서 말씀하실 때 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님, ‘유승민 회장은 2시간, 나는 3시간밖에 조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저희는 그 절차에 의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천 씨는 5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 문답서는 39장 정도 받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더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한 거라 이거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됐어요.

그러면 유승민 회장님도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것 없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센티브라고 받은 2억 원에 대해서 환급 조치해야 되는 거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 맞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일단은 그런데……

○**박정하 위원** 거기까지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하 위원** 신치용 체육산업개발 사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좀 하나 여쭈려고 합니다.

금년 9월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이 있었나 봐요. 알고 계신가요?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예, 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전직 사장이, 전직 김사엽 사장이 자기가 친분이 있는 임 모 씨를 특혜 채용하려고 하다가 비리가 생겨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게 맞아요, 인과관계가?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쭉 말씀을 드리면 2022년 6월부터 전직 김사엽 사장이 본인과 스포츠학회라는 것을 같이했던 임 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성검사 부적격으로 탈락한 임 모 씨를 절차를 조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을 한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면접 점수를 또 스포츠학회의 아는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해 가지고 최고 점수를 줘서 했더라고요. 대강의 이 상황이 맞나요?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예, 대강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체육학회 두 분을 면접위원으로 한 것은 면접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면접 진행은 그냥 어디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셨구나.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거 여쭙고 싶었어요, 이건 어쨌든 경찰 수사 결과 보면 되는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셨는지…… 그 직원이 현재 병가를 내고 6월부터 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계속 급여를 주면서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뭔지 사장님 말씀 좀 주세요.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지금 경찰에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 직원은 불행하게 지금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박정하 위원** 1년간 병가를 낸 것 같아요.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병가 끝나고 지금 병가는 사용할 수 없어 가지

고 휴가를 내고 있고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건강이?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예.

○박정하 위원 좋지 않다는 건 건강이요?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예. 그리고 저희 인사팀에서 올봄에 자체조사를 했는데 자체조사 결과에 절차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이번 압수수색하고 한 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는 사장님께서 대충 인정하여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얘기 안 했는데 자체 인사팀에서는 이 과정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절차상으로 임 모 직원이 응시했던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해에는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당황스럽지만 수사 결과 이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문을 해야겠어요.

정진완 장애인체육회장님한테는 한 분밖에 질문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내년도 9월 달에 제주도에서 장애인체전이 열리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역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최초인데 대회 개최에 필요한 필수인력이 심판, 운영요원, 보조요원, 수어, 통역, 쭉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항공료가 이번 정부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삽감됐지요, 7억 원?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 가면 대회가 진행이 되겠어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교홍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대책은 저희가 추가 예산을 좀 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교홍 강 국장님, 이거 대책 없이 이렇게 해도 돼요? 정부예산 7억 원 다 삽감해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전국체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장애인 예산은 저희 소관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최 국장님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위원장 김교홍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저희가 기재부랑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삭감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되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국회 증액 과정에서 좀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교홍 아니, 내가 국회에서는 했는데 예결위 가면 또 삭감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장애인체육회를 이렇게 홀대를 하지?

기재부에서 깎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지출구조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앉으세요.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장애인체육의 특성상 비장애인 종목별보다 장애인단체에 종사하는 인력이 더 필요하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대한체육회는 7명인데 장애인체육회는 3명 수준 아닙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러나 보니까 직원 퇴사율이 22년도보다 23년도에 더 확실히 증가가 되지요. 그렇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체육국장님, 이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도 직원을 보강시켜 줘야지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끔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장애인단체들……

○위원장 김교홍 공감만 하면 뭐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고 국회 증액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더 상의드리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제 보충질의까지 마쳤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9시 45분, 간단히 저녁들 드시고 7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체육회장님, 이번에 부산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경기들에서는 경기 운영상 또는 심판의 절차 미숙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고 아마 유승민 회장도 폐막식 때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특히 레슬링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심판이 경기 종료 전에 비디오 판독 절차나 선수에게 경기 계속 의사를 묻는 절차를 아예 생략했고 공식 경기 종료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경기 종료 후에 관중석에서 상당한 항의가 빗발쳤고 본부 측은 경기 종료된 해당 경기를 다시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지요. 해당 경기 심판위원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국체전의 첫 사례로 심판들의 절차 숙지가 미흡해서 거기 비롯된 명백한 운영 미숙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체전이 이런 옥의 티를 남긴 게 좀 아쉽습니다.

복싱도 그랬습니다. 과도한 경고 판정으로 이의 제기가 속출했고 그래서 대한복싱협회 기술위원회가 심판의 성급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심판은 귀가 조치했습니다. 결과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이런 일이 이렇게 된다는 게 상상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체육종목들 경기 운영을 보면 아마 대부분 1인 심판은 없고 주심과 부심이 대개 같이 심판을 보는 그런 상태고 시비가 생기는 판정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전국체전이 이런 식으로 가서 옥의 티가 남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한 오심과 편파 판정 이 하나로 보통 선수 개인이나 팀들이 평생 힘들게 쌓아 온 노력이나 이런 것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경기 운영의 공정성과 심판 판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관련 제도 및 교육과…… 너무 뻔한 답변 아닙니까? 뭐라고 해도 항상 이런 답변 하실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전국체전의 성과를 통해서 다음에 다른 경기에 여러 가지 선발하는 데 유리한 자격을 부여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레슬링 경기가 한 번 경기를 또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이런 오심 논란이 계속된다면 것은…… 이게 단순한 일회성 경기가 아니라 전국체전이라는 상징적인 경기에서 이런 식이 되풀이된다면 것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대회 자체를 할 의미도 없어진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습니까, 회장님?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판 판정 그리고 미성년자 폭행, 성폭행, 성비위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뿌리 뽑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국체전 때 저도 현장에서 복싱, 레슬링 종목들을 참관을 했는데요. 제가 참관한 경기에서도 그런 항의들이 속출하는 장면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실무진들과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심판 개인의 어떤 자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종목단체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종목에 대한 어떤 폐널티라든지 페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육회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령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교육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체육회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폐널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체육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질의에서 나왔는데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권, 체육회에서 보낸 것들에 대한 회신이 거의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단체가 문제부 정관으로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에 9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올 8월서부터 생긴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회신 기한을 따져 보니까 90일 내에 회신한 경우는, 물론 법 적용 이전서부터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12.3% 그다음에 기한 후에 회신한 것은 51.4%, 그나마 늦게라도. 기한을 도과하고 미회신한 것이 36%입니다. 이거 아래 가지고 대한체육회가 산하 협회들 관리하고 또 선수들의 인권 보호하는 체육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지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피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 결국은 이게 2차 가해로 이어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스포츠계 특수한 특성 때문에 분리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는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그다음에 문제부의 징계요구 그다음에 체육단체 회신까지 1년까지 걸리고 또 1년이 도과하기도 하는데 이런 2차 가해에 피해자들이 노출돼선 안 되겠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 피해자의……

○이기현 위원 짧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그렇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래요. 이따가 그러면 제가 질문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 **이기현 위원** 강수상 국장님, 제가 9월 18일 날 이거 관련돼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거는 1년이 아니라 9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을 냈는데요. 이 법안 잘 처리되도록 잘 좀 챙겨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적극 챙기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다음은 장애인체육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전거 탑니다만 텐덤 바이크라는 게 있지요. 텐덤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고요.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텐덤 사이클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두 사람이 타는 거지요?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비장애인 선수가 파일럿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향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파일럿이라고 하는 선수 아닌 선수가 앞에 있게 되고요.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비장애인 선수라고 합니다.

○ **이기현 위원** 비장애인 선수가 있고 장애인 선수가 뒤에서 동력을 책임지게 되지요?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런데 23년에 일본 대회에서 사고가 한 번 나면서 앞에 파일럿 선수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었는데 이분에 대한 법적 책임, 그러니까 이분이 선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안 이루어진 사건이 한 번 있었지요?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래서 저희가 보험사와 해서 지금은 현재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기현 위원** 이분 하나뿐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 **이기현 위원** 저는 파일럿도 적어도 선수촌에서 같이 입실해서 합숙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가 법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료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굳이 텐덤바이크, 텐덤 사이클뿐만 아니라 육상이라든지 보치아, 시각 축구, 조정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스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규정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좀 바꿔 주시고요.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 **이기현 위원** 론볼, 볼링 같은 종목은 지금 이천 선수촌 내에 없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훈련 시설이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없어서 외부에 빌려서 하는데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경기장들을 빌려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설로 다 대부분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선수들을 위해서 수중회복실도 필요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강 국장님, 이런 내용들 챙겨서 앞으로 이천 장애인선수촌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이기현 위원** 그리고 박지영 센터장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자 고통을 덜어 주는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민체육법 18조의 5항에 따르면 체육단체 징계에 필요한 조사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그렇게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계 요청 후 체육단체의 징계 이행 기간이 축소된다면 다시 한번 체육인들한테 고통을 덜어 주고 또 2차 가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유승민 회장님, 체육인들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희 한 40만 명 정도 등록인으로.....

○**조계원 위원** 등록된 체육인이 40만 2262명에 달하더라고요.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투표한 인원은, 선거인 수는 얼마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2244명이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중 몇 퍼센트가 선거했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53.6%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정도면 올바른 대표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체육인을 대표하는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로 봤을 때는 다소 좀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는 이게 체육관식, 옛날 전두환 뽑았던 가짜 선거 죠다,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시 투표를 보면 전지훈련 등으로 해외에 체류한 선수, 지도자들은 투표 기회조차 아예 박탈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난 41대 선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례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그때는 오히려 투표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91%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온라인으로 투표 방식을 개선하면 훨씬 많은 체육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임원들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혁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래서……

○조계원 위원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종목단체 선거도 심각한 논란입니다. 화면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국학기공 그다음에 배드민턴, 보디빌딩,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주짓수, 펜싱, 축구, 다지금 선거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기존의 몇몇 소수의 임원들의 손 끝에서 체육단체의 수장이 결정됨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체육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러니까 체육인 복직·은퇴 선수 지원, 지도자 처우 개선 같은 여러 과제들이 수년째 제자리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대표성을 갖는, 리더십을 갖는 그런 체육계의 대표들이 올바른 선거제도를 통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하형주 이사장님, 올림픽테니스경기장 86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지금 테니스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가 봤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50년도 넘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조계원 위원 유지보수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유지보수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찔끔찔끔 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엊그저께 세계적인 선수들이 WTA,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에 참석했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시비옹테크나 등등 비롯한 유명 선수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국제적인 경기를 치르는데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저렇게 낡고, 더구나 그날 경기장의 전광판까지 고장 나 가지고 정말 디지털 코리아의 위상이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테니스장 그때 당시 시설을 보면 워낙에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돼 있어 가지고 대회 주최 측인 한국테니스협회 측에서 보완한 금액만, 시설 보완한 것만 7억이 넘게 들어갔더라고요, 7억 2300만 원. 알고 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조계원 위원 적어도 국제 행사라면 국가의 명예가 걸린 만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도 부족한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관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희가 저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는 대관료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4년에는 무려 2억 6900만 원, 5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신치용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님, 이렇게 대관료를 올렸는데 공연 행사도 아니고 체육 행사이고 더구나 또 국제적인 체육 행사는 대한민국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제가요?

○조계원 위원 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8서울올림픽 경기장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만든 거라서 또 노천으로 노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34억 정도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을 또 35억을 책정해서 전면 재보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불편함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다시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비타당비에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찔끔찔끔 노후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어쨌든 케이팝 공연 등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적어도 체육 행사를 진행할 때는, 체육인들 체육 행사는 찬밥 취급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너무 공연에 준한, 이런 형태의 돈만 쟁긴다 이런 느낌, 체육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제가 경기인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신치용 대표님도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잘 쟁기고 체육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님, 늦게까지 애쓰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다비체육센터 사업 아시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민형배 위원 이 취지는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을 하는데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하는 체육시설 맞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혹시 반다비체육센터에 도달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장애인인데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조사 안 나와 있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상당히 먼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3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를 한번 보니까 1시간 이상 걸리는 게 7개, 그러니까 전체의 20%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저거 봐 보십시오. 1시간 반 걸리는 데도 있지요.

이게 일반인들이 도보로 측정도 하고 대중교통 가지고 측정한 거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거를 훨씬이나 지팡이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가면 더 걸리겠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훨씬 오래 걸립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셔틀버스가 거의 없어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현재 양산에 1곳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양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주차장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 기준이 최소 20면 하거나 아니면 주차 면수의 30% 이상 해야 되는데 이게 안지켜지고 있다면서요, 대부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강수상 국장님, 이거 한번 점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민형배 위원** 점검해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반다비체육센터 사실은 그림의 떡이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 가지 더요.

혹시 회장님, 장애인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 종목단체별 재정자립도를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전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민형배 위원** 저 표 한번 봐 보세요. 일반 대한체육회의 68개 종목단체의 재정자립도가 42.8%인데 장애인체육회 34개 종목단체는 12.8%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저희는 수익사업 구조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화 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기부금이나 후원금, 비장애인 종목단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거는 법인화가 말씀하신 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고요. 왜 이렇게 법인화가 안 돼 있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산 확보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반영이 안 돼서……

○**민형배 위원** 문체부 책임입니까, 장애인체육회 책임입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저는 문체부하고는 함께 기재부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항상 예산에서……

○**민형배 위원** 이게 거꾸로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비장애인 종목단체는 이미 100% 법인화 돼 있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장애인 종목단체는 거의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하지요, 이거? 6개밖에 안 돼 있다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2년에 1개 단체 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강수상 국장님, 이것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장애인 종목단체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가급적이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그러시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저희가 사실 반다비체육센터 관련해서 15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과거에 개소당 50억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반다비체육센터는 종목형으로 30억에서 40억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다가 이걸 짓을 수가 없고 다변두리에 짓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버스를 지원하는데 1년에 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그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150개하고 17개 시도까지 버스를 지원한다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육관도 도심에…… 사실 그래서 반다비체육관도 서울에는 25개 시군구 중에서 한 군데밖에 짓어지지 못합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하형주 이사장님, 저 대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잘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심각하지 않으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우리 정진완 회장님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부터 관심을 크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하여튼 장애인체육회에 정말 적극적으로, 문체부나 체육진흥공단이나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박지영 이사장과 체육회장님 그리고 우리 문체부 체육국장께 같이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의 체육계가, 가장 순수한 그리고 가장 열정으로 가득찬 선수들이 모인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성폭력으로 가득차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 한국 체육의 빛나는 국제적 위상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할 것이고 또 가장 화려한 선수들의 영광 또한 선수들의 눈물연못 위에 편 연꽃밖에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하게 되는데, 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생명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는 어디서 오는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그 결과는 추상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서고 신뢰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체육계에 만연한 부정부패, 비리, 성폭력 이런 것 뿐리를 뽑을 수 있지 않겠어요?

들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금 그 표에 한번 보시면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시도 체육회나 종목 단체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표로 볼 수 있습니다. 22, 23, 24, 25만 따져도 72건이 현재 징계가 미이행되고 있고 22년에 3건, 23년에 7건, 저런 건 3년 4년이 지나도록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통상 징계 절차를 보면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30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저런 미이행 현황이 저렇게 쌓여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징계가 늦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그중에는 자연사유서를 제출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베티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공정과 추상이라고 하는 본 위원이 제시한 이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2024년 3월 접수된 선수 간 인권침해 사건은 정해진 이행기간을 넘기고 같은 해 10월 대한체육회가 징계 촉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사유서 제출은커녕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센터뿐만이 아니라……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박수현 위원 아니라 대한체육회마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특히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이 늦어지고 있는 72건 중에 15건이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런 것들, 미성년자 인권침해 사건은 피해학생의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이 심지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징계가 계속해서 늦어지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능장 징계는 직무유기이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건 없습니까?

어쨌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올해 1월이지요. 여러 가지 시행이 되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턱이 없다는 것이 작년 국감과 올해 국감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오늘 다 똑같고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우선 이사장님과 체육회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두 분, 이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사장님부터 한번 해 보세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작년, 올 초에 14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여러 가지 조치, 재조치 요구부터 시행되고 또 징계를 미이행했을 때 또 재정 제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권침해와 비리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협회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공정하지 않게 됐을 때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선수들이 얘기를 할 수 없고 또 지도자 간의 여러 가지 파벌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스포츠, 저도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동권리보장원과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성년 선수들이 얼마 전에도 철인3종과 또 씨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미성년 아동들이 또 신고할 수 있도록, 잘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현 위원 체육회장님,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국감인데요 앉아 있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소관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2차적으로 그것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계의 부조리나 만행에 대해서 뿌리 뽑아 달라는 강력한 의견이 있으셨고 저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와 잘 협력을 해서 좀 더 구조적인 정비를 제대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 연맹 회장께서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항상 보면 징계, 제재 또는 조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은폐, 엄폐를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수면 위로 드러내 놓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연맹이나 각 선수 또는 지도자에 관해서는 페이버(favor)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연맹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을 협심해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구조적인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공교롭게 준비한 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의 연장선상이에요.

박지영 이사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 주문 많이 하셨는데 저도 주문을 우선 먼저 하나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가 오후 내내 체육계 내의 성비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정작 안의 여성 조사관은 2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이런 지역은 여성 조사관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박정하 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사장님보다……

강 국장님 담당이에요, 최 국장님 담당이에요, 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입니다.

○박정하 위원 강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과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요구는 많이 가는데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제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안으로 제도적인 권한은 생겼고요. 실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부분들인데 그건 저희가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박정하 위원 노력, 그냥 노력만 하실 거예요? 좀 더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좀 더 열심히……

○박정하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장관도 윤리센터에 찾아가서 격려도 했고요.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박정하 위원 유승민 회장님까지 포함해서.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회장님, 언제 임기 시작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는 2월 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박정하 위원** 그리고 선거 이후로 치면 거의 1년 가까이 다 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박정하 위원** 개혁하신다고 했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박정하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 못 하세요. ‘구조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했지 회장님 처음에 약속하셨던 개혁 이런 것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강 국장님, 제가 윤리센터에 얘기했지만 체육회 내부의 개별연맹이나 종목단체 이런 비위 같은 거 체육회가 못 하면 과감하게 윤리센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도 법안 얼마든지 받쳐 드릴 테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박정하 위원** 하여튼 체육회장님, 그냥 맨날 비슷한 말씀 말고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1년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과를 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더 이상 올해 같은 안타까운 국감이 안 되도록 체육회장님 책임지고 책임지고 개별연맹, 종목단체 문제 있는 데 다 드러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상임위랑 상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세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구조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받아서 진짜 내년 연말까지, 내년에는 정말 스포츠의 중요한 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에 걸맞은 시스템이나 정책이나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오늘 말씀 나온 것에 있어서 강수성 국장에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2026년도 말까지 철거 계획을 유네스코에 전달해야 된다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 철거를 하게 되면, 여기 태릉 빙상장에서 훈련하는 선수들 훈련장 마련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마련된 이후에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26년 12월까지 철거와 이전 계획을 저희가 유네스코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전 계획은 그러면 몇 년에 잡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12월까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어느 시간이 걸리는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임오경 위원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계획이 나와야지, 그래서 선수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대책, 대안 마련해서 입찰 공고가 다 끝나고 다 건축된 후에 철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대체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 하나, 아까 박 간사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장흥 체육인재교육센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9년 예결산소위 위원회에서 김용삼 그 당시 차관께서 11월 8일 날 말씀하셨어요. 이것 건립 신규 추진을 위해서 15억 증액을 요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비 자체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다가 이것을 전달했고.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답변이 온 것은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임오경 위원 처음부터 대한체육회가 이것 운영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그렇게 내린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임오경 위원 자료 다 확인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임오경 위원 말씀하실 때 주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있습니다.

스포츠영웅 헌액식 알아요, 몰라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어이없게도 선정위원 수당 및 회의비 부족, 헌액식 개최 비용 부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원래 이 사업은 국고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적을 받아서 이 사업 자체가 국고 사업에서 빠지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재정 사정상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 사업비가 1억 6000 들어가지요? 유승민 회장님, 취임 첫해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에서 예산 1억 6000이 없어서 영웅 선정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십니까? 답변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적당한 사업이어 가지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자체 예산으

로 진행하겠다는 답을 저희가 듣고 대한체육회가 진행을 하던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재정 사정상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하형주 이사장님, 체육진흥기금에서 2025년도 영화기금으로 얼마 반영된지 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문화예술기금으로 1100억이고요, 영화예술문화로 600억입니다.

○**임오경 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그렇게 문화예술 쪽, 영화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영웅 헌액식 선정하는 데 있어서 1억 6000이 없어서 중단됐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인으로서, 현장에 계셨던 사람으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작년에는 제가 스포츠 영웅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이 1억 6000이 없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희 공단에서 문체부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반드시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국장님, 체육진흥기금으로 꿔 주기는 참 잘하시면서, 참 그런 것은 앞장서서 잘하시면서 1억 6000이 없어서 이런 것은 어이없게 중단해야 됩니까?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아무리 불법행위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82개 종목에서 솔선수범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는 종목단체가 더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1억 6000이 없어서 중단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위증이나 하고 있으면서, 체육단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채찍하는 것은 잘하시대요. 예산 삭감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은 잘해요. 체육진흥기금으로 다른 데 갖다 주는 것도 잘해요. 그런데 1억 6000이 없어서 이것 중단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당장 이것 1억 6000 복원시켜서 다시 이행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여러 가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추가질의를 해야겠는데요.

희망하는 위원님들이 여덟 분 계십니다. 꽤 많으시네요.

먼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 짧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빙상연맹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빙상연맹이 관리단체 해지 이후에 한 사오 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논란의 요지는 뭐냐면 당시에 쇼트트랙의 대부로 불리던 전명규 전 부회장에 대해서 2018년도에 문체부가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 징계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두 차례 징계 심의만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연맹은 이수경 회장 선고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세우 전무도 당시 심석희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음이 분명한데 징계를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빙상연맹에 대해서 청문회 실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양당 간사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유승민 회장님, 여기 사진 보이시지요? 태릉사격장이라고 자세히 글을 써 놨네요. 지금 보시면 태릉사격장인데 여기가 유네스코 문화 지정이 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격장을 보면 지난 24일에도 서울시장배 대회도 유치했었고 하는데 이것 지금 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거의 폐가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진종오 위원 폐가같이 보이는데, 제가 회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한체육회 정관이 있어요. 거기에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해서 국위선양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환경에서 선수들이 대회도 했고 훈련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관련해서 곧 철거한다고 하는데 회장님 혹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있으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부끄럽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길게 답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8개월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예산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게요.

회장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맞지요, 이사장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지자체 매칭 사업이에요.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의회에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랑 함께 서울시의회랑 얘기를 해서 철거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드라마틱하게 보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선수들이, 화장실 또 한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모습 요청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이것은 선수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 나왔던 건데 남산중학교 씨름부

폭행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고교 야구 무자격 코치 논란 그리고 고교 레슬링 폭행 그리고 제주 복싱대회 문제 있었던것 그리고 주짓수 대리 개최 및 은폐 시도한 혐의 등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들, 학생선수들한테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체육회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종목단체 사건·사고 확인 점검이라고 있는데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라고 나옵니다.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체육회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 중심 그리고 사전 점검 예방 체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또한 회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종목단체 사건·사고의 예방 매뉴얼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지 마시고 사고가 날 것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더, 이사회 자주 열리잖아요. 이사회 때 이런 것을 한번 안건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저는 회장님이 대한체육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점에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볼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저도 사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은 종목별, 지역별의 사건·사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선수들 관련해 가지고 지도자의 어떤 비위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선수도 해 봤고 지도자를 해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제가 느낀 점을 실무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후 조치만 해야 되냐, 사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교육을 떠나서 교육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결국에는 예산 문제가 또 결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이프 스포츠라고 해 가지고 그런 관리 인력이나 아니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자 국회에 예산 증액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현주소에 맞게끔 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회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님, 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를 조사해서 윤리를 바로잡는 것이지요?

(김교홍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내부 징계에 눈감는 윤리 없는 스포츠윤리센터,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존재 의미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될 것 같은데.

정보화 담당 6급 직원이 5급 직원 채용 모집 시험에 응시한 후 채용 관련 내부의 보안 문서들을 부당하게 열람했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사장님 당시 징계위에 경징계를 요구하셨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징계의결서에 징계 요구를 하였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덕분에 사실은 과거부터 여태까지 스포츠윤리센터의 그런 징계 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조계원 위원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징계위원회 회의록에—2025년 1월 20일 자 회의록입니다—간사가 ‘입사가 1년 미만 반성한다는 점으로 감안하여 경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이.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그때 저는 그렇게 요구한 사실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기록에,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회의록은 제가 징계위원회 감사 독립성을 위해서 사실은 징계 결과만 보고받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그냥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만 보고받고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이전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을 때부터 그런 현황을 봤더니 취임하기 전부터 센터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모두 이런 해당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무슨 뭐를 요구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위로 그게 기재됐는지……

○조계원 위원 그러면 회의록에 그렇게 기재를 해 놓고 이사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겁니까?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제가 징계위원회 감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사실은……

○조계원 위원 위증하면 안 되시는 것 아시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것을……

○조계원 위원 위증이 아니라면 이 회의록에 대해서 다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속기록을 수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위원님 이렇게 지적……

○조계원 위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사장님이 체육계 윤리를 논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계원 위원 어떻게 자기 회사 시험에, 6급 공무원이 5급 시험에 응시하고 그 정보를 열람하는 이런 상황이 가능해요? 또 이게 경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절대 제가 그런 경징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그러면 징계는 어떻게 됐어요? 경징계를 했어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징계는 나왔는데 아마 그 징계위원회……

○조계원 위원 경징계가 됐을 것 아니에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계원 위원 이 사안이 지금 경징계 사안이에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아니라고 생각……

○조계원 위원 회사의 중요 정보에 접근해 가지고 자기의 채용을, 채용 정보를 열람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조계원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정보까지도 다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어떻게 이런 직원에 대해서 경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그 회의록을……

○조계원 위원 그걸 결정하지 않고 회의록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하는 회의록이 지금 본인과 무관하게 작성됐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위원님.

○조계원 위원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이사장인데 이사장 모르게 마음대로 회의록 작성하고 징계조차 이사장 모르게 경징계로 처분하고 이게 가능해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어쨌든 제가 미흡했던 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징계를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징계의결서에 징계를 해 달라고만 제가 요구를 했지 제가 오히려……

○조계원 위원 지금 스포츠윤리센터 다른 직원 있어요?

강수상 국장님, 이 문제 같이 확인해서 조치 사항들 한번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고요. 이사장님도 내부 징계 상황과 조치 사항 그리고 특히 어떤 경위로 회의록이 이렇게 이사장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징계조치가 의결되고 기록되었는지 소상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앞으로 대응방안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안 그래도 제가 어떤 경위로 기재되었는지 지금 사실은 사유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계원 위원 예, 보고해 주세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예,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 앞서 증인신문에서 문진희 축구협회 심판위원장 관련 질의를 하면서 심판의 오판·오심이 반복되거나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거나 역량이 안 되는 심판을 퇴출시킨 경우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조사를 통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증인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있다고, 퇴출시킨 적이 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한 결과 지금 그런 퇴출시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가지고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위증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사실 저번 정동규 회장에 대한 징계 또 문체부의 감사와 관련해서, 조치 요구와 관련해서 문체부와 축구협회 간에 다툼이 있었고 관련해서 축구협회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 진행을 위한 내부의 결재서류 또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또 소송가액, 관련 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감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축구협회 관련 서류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체부 강 국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출드리고요. 축구협회 쪽은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예, 그렇게 해서 종감 전에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얘기하신 위증 문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김승수 위원 정진완 장애인체육회장님, 작년 파리에서 열린 패럴림픽이 굉장히 역대 최고의 성적을 얻었었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그때 패럴림픽 경기 중계, 우리나라에 제대로 중계가 됐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거의 되지 못하고 녹화 중계해서 저녁 시간대나 이렇게 방송 편성이……

○김승수 위원 거의 중계가 되지 못했을 뿐더러 중계시간도 새벽 1시, 이런 볼 수가 없는 그런 시간대에 중계가 됐었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전국체전 관련해서 얼마 전에 끝난 전국체전은 중계가 됐었는데 곧 어질 장애인체전 TV 중계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지금 현재 개막식만 생방송으로 중계하고요 경기 종목은 녹화를 해서 평일 낮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김승수 위원** 장애인체전 또 패럴림픽에 대해서 지상파, 특히 KBS 같은 경우는 공영 방송인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방송법 관련해서 저희가 법 개정보다는 고시를 개정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현재 반대에 의해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에 코로나로 일반 관중 입장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패럴림픽, 당시에 일본인 학생들에게는 입장료를 시켜 줬습니다. 이유는 우리 장애인들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단순한 스포츠 관람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그렇습니다. 교육적 가치가 더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지금 KBS 같은 공영방송은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를 가지고 방송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방송법을 보면 이런 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해서 이게 포함될 경우에,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서 포함될 경우에 방송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방통위에서 이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김승수 위원** 체육국장님, 이 부분…… 일단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에, 국민적 관심 사항이 패럴림픽이나 장애인 아시안경기인데 장애인 경기를 포함을 시키면 충분히 이게 KBS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계부처 협의할 때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체육회장님, 얼마 전에 전국체전이 끝났는데 정식 종목이 48개, 시범 종목이 2개였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김승수 위원** 지금 새로 여러 종목들이 정식 종목으로 가입하려는 그런 지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또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중에 e스포츠 같은 경우에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는데 아직 전국체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김승수 위원** 다행스럽게 내년도 소년체전에는 이게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얼른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조계원 위원님도 사실은 안 드렸어요.

1분 주세요.

○**김승수 위원** 지금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아시안게임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국체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저희가 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전국체전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종목별, 세부 종목별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꼭 e스포츠도 e스포츠지만 e스포츠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도 면밀히 평가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동호인 수가 제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24년도에 18만이었던 것이 올해는 한 22만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는 몇 개 아직까지 안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파크골프 관련 대회가 작년에 80개였던 게 올해 200개로 늘었단 말이지요. 대표적인 생활체육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국체전 종목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사실은 위원님, 전국체전이라고 하면 전문선수들의 어떤 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동포 선수단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라는 것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종목들이 전국체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인구가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전국체전 종목에 포함시키는 것도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유승민 체육회장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승부조작이 벌어졌던 사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4년도에 제가 뉴스를 했던, 다른 종목에서 입시 승부조작 때문에 학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런 사례까지 제가 거꾸로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1월이지요. 대한스키협회장배 대회에서 한체대 입시로 포인트가 쌓일 수 있는 이 대회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있었고 당시 부모가 즉각 대한스키협회에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협회가 두 달 뒤에 별 증거 없이 ‘알아보니까 명확한 내용이 없다’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학부모가 동일한 내용으로 윤리센터에 신고를 했고 1년여가 지난 올해 9월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승부조작으로 결론을 낸 뒤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할 수 없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제일 잘하는, 성적이 좋은 한 학생을 넘어뜨리도록 1명의 학생이 지시를 받았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이 대회의 총책임자, TD라는 분이었고요. 이 사람이 다른 나머지 2명에게 입시를 위한 포인트를 쌓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윤리센터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라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19개월이 걸렸고요. 대한체육회에 그 안에도 무수한 학생들의 대회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있었을 줄 어떻게 아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경기 운영…… 분야, 특히 좁은 스키나 동계—장애인체육회와도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이 분야에 관해서 독보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가올 동계 대회들에서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놀라운 답변을 줬어요, 회장님. 스키협회 쪽에서도 문제의식이 없었지만 대한체육회에서도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이 올해 6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아니면 국가대표 됐겠냐’ 이런 폭언을 해 가지고 직권조사에 돌입해서 한 달 만에 해임 처리되는 일도 있었던 당사자거든요. 제가 아직 조사 중이고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성함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회장님, 학부모가 이렇게 종종종종 뛰어서 윤리센터까지 신고를 해 가지고 수사 의뢰하고, 이걸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이 관장할 수 있는 대회가 이렇게 막 문을 열고 많이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래서 저희도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무관용의 원칙 그리고 일별백계를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아이들 갖다가 승부라든지 또는 진학 관련된 폭력, 비위 이런 행위는 절대로 이제 스포츠계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될 그런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다가올 동계 종목에서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저희 의원실에 공개적으로, 의원실에 공개적으로 다시 쓸 수밖에…… 이런 식의 애매한 답변을 했어요.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 의뢰를 일단 당한 사람을 대한체육회에서 기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현진 위원 일단 중지해야겠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체육회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현진 위원 종감 때까지 대한체육회에서, 이러한 사례가 아마 비단 스키 종목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리센터를 통해서 수사 의뢰되거나 지금 진행 중인 의혹들을 다 확인하셔 가지고 일단 그 사람은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책 방안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번에는 축구협회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승민 회장님, 혹시 지난해 저희가 이맘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대한축구협회 현안질의 했을 때 기억하시는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민형배 위원** 그때 참고인으로 박문성 해설위원이 여기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보복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올해 초에 축구협회 회장선거 앞두고 정몽규 후보 캠프에서 ‘박문성 위원의 활동을 앞으로 제약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실제로 2월 26일에 축구협회장 선거가 끝나고 박문성 위원은 2020년부터 중계를 해 오던 스카이스포츠 K리그 중계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게 3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보복 맞지요? 이 SkyK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설립한 회사거든요. 그런 느낌이 오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한번 봐 보세요. ‘정몽규 비판한 박문성 해코지 당해…… 해설 하차하고 생계 막혔다’ 저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한 번도 혹시 조사 안 해 보셨나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세요? 저렇게 보도도 됐었는데.

그런데 저때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해설진을 앞으로는 선수 출신들로만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온 국민들이 들으면 세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느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SBS스포츠, TVN스포츠, 스포티비, 하여튼 모든 곳에서 아시잖아요, 선수 출신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꼭 독재정권 시절에 보면 정권 비판한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 출연 못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축구협회장이 한다?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사 한번 제대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민형배 위원** 근래에는 이런 얘기도 있대요. ‘정몽규 회장 눈치 보느라고 박문성 위원과 일하는 것을 기피한다’, 심각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축구협회 부회장에 김병지 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강원FC 대표인데요. 아들이 해외연수에 자격이 없는데 참여합니다. 또 다른 아들은 축구용품 에이전트 회사에 취업하고 입단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특히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그 아들이 자신과 계약하면 강원FC에 입단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이전트 계약이 곧 만료되는 강원FC 선수들에게 특정 구단하고, 업체하고 계약하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혹시 축구계에 에이전트가 입단을 성사시키면 1부 리그, K1 얼마나 받는 것 같습니까?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들어는 봤지만 명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소문은 1억 5000이라고 돼 있습니다. K2, 2부 리그는 5000 그다음에 3부 리그는 3000 저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래에 여기 입단한 선수 중에 몇 명의 커리어를 보면 도대체 저거 아니고서는 입단했을까 싶은 의혹들이 있거든요. 이거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민형배 위원** 조금 급합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린 축구협회의 박문성 해설위원 방송 배제 그다음에 부회장, 회장의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회장의 지금 비리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종합국감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내일이라도 축구협회에다 문의도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최대한 종합감사 전까지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박지영 이사장님, 오후에 국가대표 바꿔치기 기관 경고를 불수용한 탁구협회가 당시 회장이던 유승민 회장이 협회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었으니 선수 교체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21년 2월 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경향위가 추천 선수를 최종 선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협회장이 결정한다 했으니 선수 변경에 하자가 없다는 유승민 회장의 말이 맞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협회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회장이 마음대로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회의 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전결권자인 어떤 책임 소재를 명시한 조항이지 절차와 관계없이 임의대로 선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답변이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공고하고 달리, 공고 때는 경향위가 한다고 그랬는데 협회장이 최종 선발 권한을 가졌다고 하면 해당 공고도 문제가 되고 선발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저희가 절차상의 하자로 보는 것은 대한체육회에서는 이 당시 규정이 협회장이 결정한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 사실은 대한체육회 5 차 이사회 결과를 보면요 절차와 일치하도록 그 문구를 수정한 것이지, 경향위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다시 재심하겠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만약에 이게 저희 센터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국장님, 정해천 전 사무총장을 제가 중인으로 채택했다가 시간이 없어 못 물어본 내용인데요. 승강제 리그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1부 리그, 2부 리그를 이렇게 조정 배치하는 사업인데 정해천 전 사무총

장이 지난해는 탁구협회, 올해는 배구협회 시스템 구축 심사위원으로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낙찰받은 업체는 상록에스라는 데예요. 그런데 상록에스에 이 정 전 사무총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낙찰을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쳤단 말이지요. 이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는 평가위원은 제척되는 회피 사항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대한체육회장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역구에서 느끼고 계시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17개 시도 체육회가 있고 이 시도 체육회가 종목별 생활체육 전국대회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면 그때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박수현 위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성 또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A 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회에 나가는데 10만 원의 교통비를 더해서 지금하고 B 체육회는 합해서 4만 5천 원에서 6만 원, C 체육회는 4만 원. 이래서 같은 대회를 나가는데 각 시도별 체육회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규모, 내용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활동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타당한 지적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체육 전국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취미, 동호인 활동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종목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또 참여해 주는 공헌과 혁신 같은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게 문 닫고, 연차 내거나 자기 회비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높든 낮든 간에 이러한 어떤 전국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도 체육회별로 상황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은 체육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또 부족한 것은 좀 채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지금 표를 한번 마지막 보여 드리면, 그런데 꼭 시도별로 어려운 사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원사업의 불용예산율을 보면 사정이 저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활용하면, 불용률을 낮추면 이런 것들을 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이런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여 이런 것들은 시도별 체육회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서 대한체육회에서 좀 격차가 줄도록 하는 형평성과 현실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도개선을 할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생활체육 예산이 문체부 직교부 형식으로 해서 지방으로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따라서 매칭으로 변화가 좀 있는 거고요. 아까 김교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지도자 예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두 번째로는 지방체육회의 구조를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 구조가 다 지자체 단체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지방체육회가 민선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해진 어떤 일정 금액의 세이브된 금액이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예산이 측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저희 대한체육회에서 가이드를 낸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체육회의 어떤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수년간 노력해 왔던 걸로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주시고.

체육국장님,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함께 우리가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이 저희가 지방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좀 평균적인 수준 이상의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PPT 바로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체육 분야 R&D 사업을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특정한 연구 카르텔이 과제를 독점하는 구조로 고착화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특정 세력이 2021~2023년까지 3년간 스포츠 R&D 21개 과제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7개, 무려 242억 5000만 원 규모를 주관

을 바꿔 가면서 수주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특정 협회가 7개 모든 과제에 참여해서 컨소시엄의 핵심 허브로 작동을 하면서 여러 기관이 반복 참여를 해서 학계, 산업체, 공공기관이 얹히는 인맥 카르텔이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오늘 다룰 스포츠과학원 연구비 횡령 사건은 바로 이 카르텔 내부에서 발생한 실제 비위 사례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거 보시면 항목별로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비 부정 사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년에 생애전주기 운동실천 R&D 과제를 맡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책임자 A 씨, 실제 참여하지 않은 교수, 강사 6명의 이름을 올려서 총 1641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843만 원을 현금 혹은 교수 배우자 계좌를 통해서 페이백 방식으로 본인이 유용을 했습니다. 또는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6명에게 자문수당으로 191만 원을 지급해서 회의가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자료처리요원 수당은 실적이 없는 2명에 지급된 180만 원을 제삼자에게 유용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허위 청구와 단가 부풀리기로 연구비 빼돌린 정황도 나타났는데요. 워크숍 인원을 부풀려서 511만 원 집행하고 남은 89만 원은 숙박권을 사서 자기 가족이 썼습니다.

여기 PPT 보시면, 소모품비·인쇄비 허위 청구가 421만 원인데요. 허위 견적서를 청구해서 개인적으로 다 인 마이 포켓 했습니다. 결국 총 3621여만 원의 연구비가 개인 통장과 숙박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하형주 이사장님, 이러한 상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예,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이거 단순한 횡령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허위 견적서와 허위 영수증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승인이 돼 버렸습니다. 연구윤리, 내부 통제 그리고 감독체계가 동시에 무너진 거지요. 체육계 교수와 강사들이 서로를 공동 연구자로 이름만 올리고 수당을 나눠 갖는 인맥 카르텔 연구 관행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체육국 강수상 국장님, 이런 구조 반복되면 체육계 R&D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되겠지요. 단체, 협회, 학계까지 몽땅 카르텔 아닙니까? 이거 방지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즉시 전수조사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체육 분야 R&D 연구용역 신규사업 수주 전면 중단하시지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과제에 대해서 즉시 전수조사 착수하십시오. 그 결과 토대로 공정성과 전문성 갖춘 그런 컨소시엄이 새로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체부와 체육진흥공단 차원의 정기감사 의무화 그리고 연구윤리 재정비 계획 또한 즉시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요. 감사원에서 일부 지금 적발된 부분도 있는데 총괄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 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스포츠레저의 박용철 사장님, 하루종일 고생하시네요.

스포츠토토 판매점 보니까 소상공인 판매점 비율이 76.9%고 이 중에 19.6%가 사회 취약계층이에요. 그리고 올해 3월 온라인 판매 구매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고 이후에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작년 국감에서 사실은 비대면 판매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안의 내부 계약조항을 개정해서 기존에는 별점 40점에서 지금은 즉시 계약해지 상황으로 가 버렸어요. 그러나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 유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더러 저한테 정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고민해 달라, 그러니까 계도 기간을 두거나…… 이런 민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민원을 스포츠토토 현지에서도 이렇게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국스포츠레저㈜대표이사 박용철 예,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이 건 관련해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번에 원스라이크 아웃으로 제재를 강화했던 것인데 비대면 판매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토토 사업의 본질을 사실은 해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비대면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판매점의 현실적인 애로가 뭐가 있는지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위낙 어려우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두루 두루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스포츠레저㈜대표이사 박용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최성희 협력관님,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및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과 같은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 중 하나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농아인스포츠연맹 및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장애인체육회의 정 가맹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보다 지원 예산이 적습니다. 왜 그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그것은 2015년에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대한지적장애인단체와……

○임오경 위원 통합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스페셜올림픽코리아로 통합되면서 그때 예산이 사업이랑 많이 늘었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임오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페셜올림픽 참가 예산이 더 많다고 그렇게 답하시던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이나 국제체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실 시각장애인……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6년도 예산을 보면 농아인, 시각장애인연맹 예산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삭감되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저희가 23년부터 사실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해 왔는데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삭감을 했고요. 시각단체와 청각단체는 이번에 사실 처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삭감된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임오경 위원 스페셜올림픽은 계속해서 문제가 됐다가 민간 회장이 들어오면서 잘 운영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사유화돼서 지금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어요.

정진완 회장님, 패럴림픽 스포츠에 지적장애인 분야를 관장하고 있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의 조직체계와 국제규정을 맞추고 지적장애인 스포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를 다시 분리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난 IPC 총회에서도 지금 하계패럴림픽에는 지적장애가 3개 종목만 나가는데 동계 종목도 30년부터 확대하자고 NPC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계 종목까지도 지적장애 종목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 KPC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게 답을 알고 계시고 있는데 적극 요청을 하셔야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영상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하형주 이사장님께 질의할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헬스장에 냄새가 난대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악취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악취는 왜 날까요? 흄트레이닝도 요즘 많이 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왜 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악취의 원인은 중국산 쓰레기 고무로 만든 고무칩 바닥재라고 합니다.

이사장님, 국민체육진흥센터 바닥에도 고무 바닥재 쓰고 계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해당……

○임오경 위원 고무칩 안전한지 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중국산 고무칩 바닥재 안전성을 한번 검사해 봤더니 납 같은 중금속뿐만이 아니라 실외체육시설이었다라면 아예 사용이 금지되었을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국민체육진흥센터 바닥재 선정과 관련해 국민 안전 지킬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기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예.

○임오경 위원 유승민 회장님께서도 지금 진천선수촌 실내체육시설 바닥재 전수조사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수상 국장님, 문체부는 공단 및 체육회와 협의하셔서 실내체육시설 안전기준 재설정을 위해서 개선 마련을 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외체육시설은 기준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실내는 없습니다. 저희가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임오경 위원 마지막으로 유승민 회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첫 국감장에 나오셔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깜짝 놀라시는 부분도 있었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102일 남았습니다. 반드시 차질 없이 4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 지도자, 종목단체를 진짜 좋은 결과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 잘 시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비리·부패 관련자들에 있어서는 엄벌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인기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잘 운영되는 종목단체에게는 칭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종목에는 칭찬과 당근을 또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종목에는 엄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체육계 단체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장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질의 나온 것 중에서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근거 규정이 정확하게 없다고 그래서 방치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긴급하고 위급 사항인지를 들여다보시고 신속하게 절차를, 저는 재조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매뉴얼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문체부하고도 협업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목이나 지방체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또 꽤 많이 계십니다. 대다수가 계시고요. 그분들 때문에 체육계가 그래도 이렇게 더 열심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재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민 회장님, 체육은 국력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을 가장 잘 통합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단합된 힘을 보일 수 있는 게 체육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오늘 많이 지적이 됐는데, 하여간 유승민 회장께서 잘 단속도 하고 또 개선할 건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계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국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위원장님, 답변 조금만 드려도.....

○ **위원장 김교홍** 예.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오늘 저도 첫 국감을 치렀는데요. 사실은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조은희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을 주셨는데요.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제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부터 반성을 해야지 또 체육단체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왔을 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국감 이후로 많은 질타와 또 강화된 규정들 그리고 예산 삭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평계를 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년에 228억, 작년에 168억 그리고 올해는 74억 지출했는데요. 저희 대한체육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허리띠 졸라매면서 모든 대한민국 체육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계에 애정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무엇보다도 우리 문체부에서 체육계를 열심히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굳건하게 잘 극복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했으면 좋겠어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특히나 내년 2월 달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기현 위원님, 무슨 말씀……

○이기현 위원 다들 질의 안 하신다고 그래서 진짜 안 했는데 1분만 주시면, 제가 질의 한번 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김교홍 끝났는데 뭘 줘?

○이기현 위원 1분만 주시지요.

○위원장 김교홍 순서가 끊났는데.

○이기현 위원 1분만 주시지요.

○위원장 김교홍 그러지 말고……

○이기현 위원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님 오셨는데 제가 질의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주시지요. 1분 안 걸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세요.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위원장 김교홍 예.

○이기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테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대신 물어 주십시오.

김중현 이사장님, 멀리 무주에서 올라오셨는데 오늘 한 번도 질의를 못 받으셔서 제가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국내 태권도계의 하나의 큰 화젯거리, 쟁점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대신 입장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작년에 유네스코에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또 국내 태권도계에서도 대한민국 태권도를 문화유산으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남과 북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에 북한의 태권도와 남한의 태권도가 뿌리가 같고 그리고 원형이 같고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등재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이고 또 국제 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데 김중현 이사장님, 지금 태권도 4단체 중에 국가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장님이신데 또 태권도인이십니다.

어떤 입장이 요새 태권도계에서 모여지고 있는 입장인지 또 태권도만의 이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답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둘이 깨지면 다음에 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

이사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2016년부터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다수의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당시의 규정상 지역 무형문화재에 등재가 되고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시키고 유네스코로 등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북 겨루기’로 해서, 전북 겨루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우리 태권도 겨루기가 최초로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선정이 되면서 경기화가 정립된 그 장소가 전주 전

국체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전북 겨루기로 등재를 신청했고, 그 이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했는데 당시의 역사성이랄지 고유성이나 여러 문제들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국가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체부와 유관단체들과 힘을 합해서 꼭 태권도가 유네스코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공동 개최에 대해서, 공동 등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교홍** 남북 공동.

○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종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유네스코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보면 우리나라에서만 등재를 신청하게 되면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 김치, 씨름과 같이 저희들이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북한이 이미 24년도에 전통 태권도로 해서 등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유네스코 측에서는 주로 비슷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공동으로 신청을 하라는 그런 제의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공동 신청의 요구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남북공동 유네스코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재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남북 태권도연맹인가 그것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까?

○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종현** 우리 한국이 종주국으로 지금 올림픽 종목으로서 들어가 있는 게 세계태권도연맹이고 북한에서 주로 주도를 해서 국제연맹으로 만든 게 국제태권도연맹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연맹이 크게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사전준비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예산 통계 작성 부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부적절, 대한체육회장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 관련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데이터 조정 문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과견법 위반 문제에 대한 지적과 체육인 연금제도 개선 검토 관련 공정한 절차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전국 시도 복싱대회 선수 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복싱협회의 대회 안전계획 미수립, 응급 체계 구축 미비, 의무진 미배치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체육회 등록경기인들의 성폭력 예방,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 저조, 경기용 실탄 불법 유통 및 관리 체계 미비, 한국프로골프협회의 근로시간 미준수 및 노동조합 탄압 문

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서울시축구협회의 정계 조작 및 정관 유착 의혹, 체육 분야 예산 증가율 저조,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지급,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철거·이전 문제 등 다양한 정책 질의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오늘 피감기관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별도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정연옥 위원님, 손솔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별도로 임오경 위원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자료집을 내 주신 임오경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기관들은 자료집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등 감사 대상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5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손 솔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정연옥 조계원 조은희 진종오

○첨가 위원(1인)

김윤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피감사기관 참석자

대한체육회
회장 유승민
사무총장 김나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전무이사 박용철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완

사무총장 이희룡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중현

사무총장 신성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신치용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한국스포츠레저(주)

대표이사 박용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체육협력관 최성희

○출석 증인

장태영(대한근데5종연맹 대외협력관)

맹호승(대한철인3종협회장)

문진희(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박근찬(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박세우(대한빙상경기연맹 전무이사)

이태성(대한탁구협회장)

정해천(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구원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출석 참고인

000(전 빙상선수)

최은종(경기도청 근대5종 감독)